금주의 법구-〈아함경〉
원수를 없애고 싶다면
먼저 마음의 번뇌를 없애라.
번뇌는 몸을 해치는 근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11월 30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28호 2016년 12월 28일 수요일

한국도 이젠 '脫종교사회' 불교 인구 290만명 감소

2015인구총조사 종교인구 부문 살펴보니

10년 주기로 통계청이 실시하는 종교인구 조사에서 불교신자가 약 290만명이 감소했다. 또한 종교인구 집계 사상 처음으로 무종교인 비율이 종교인을 추월해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불교 포교 종책에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12월 19일 발표한 '2015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불교신자는 761만 9000여명으로 개신교신자 967만명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가톨릭신자 389만명, 원불교도 84만명, 유교 76만명 등이 집계됐다. 그동안 불교는 1000만명 선을 유지하며 1위를 차지해왔다.

불자 감소는 '탈종교화' 이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불교학자들은 불교신자의 감소 원인이 탈종교화 현상에 있다고 봤다.

이번 조사에서 종교가 있는 국민은 43.9%, 없는 국민은 56.1%였다. 1995년부터 실시된 종교부문 조사에서 '종교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이는 사실상 한국사회가 '탈종교사회'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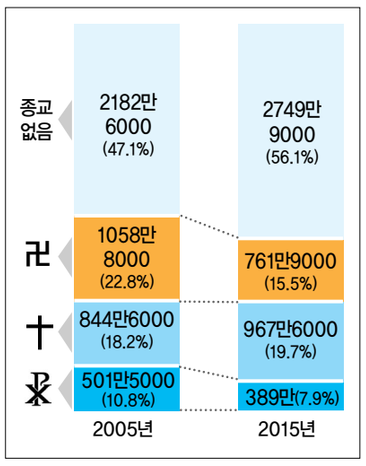
종교가 없는 인구는 젊은 층에서 압도적이었다. 10대 62%, 20대 64.9%가 종교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60대 57.7%와 70대 58.2%는 종교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사회활동 참여는 2010년 33.7%에서 2015년 31.1%로 감소했는데, 이 중 종교단체를 통한 참여가 3.1% 감소했다. 반면 문화단체를 통한 참여는 3.3% 증가했다. 사회 활동으로서의 종교는 현대인들에게 큰 메리트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박수호 덕성여대 교수는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들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종교 정체성을 밝히지 않으려는 냉담자가 증가했다. 종교 정체성도 문화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탈종교화의 시대 흐름에 따라 종교인구는 급속히 변화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이웃종교에 비해 종교를 통한 보호가 약한 점도 이 같은 불교 신자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왔다.

종교인구 변화 추이



국민 56% "종교 믿지않아"
'무종교인〉종교인' 첫 결과
개신교 인구도 불교 역전
'탈종교화' 대책 마련해야

불교, 경상권 강세 여전
수도권서는 2위 수성 위기
표본조사 방식 문제제기도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는 "사회양극화와 경쟁이 심화되면 사람들은 자기보호수단을 찾는다. 명상·수련 등 개인적 극복을 모색하거나 종교이익집단에 속한 집단적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신교에 비해 집단적 보호가 약한 불교에서 개인적 극복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며 감소폭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윤 이사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등을 보면 명상과 수련, 템플스테이에 대한 호감도는 여전히 높다. 불자들은 점점 제도권에 포함되기보다 개인 수행에 관심을 두는 방향으로 변할 것"이라고 탈제도종교화를 전망했다.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도 사회양극화의 영향을 들었다. 김 명예교수는 "전세계적으로 양극화와 경쟁심화가 확산되며 종교 근본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개신교와 같은 조직력을 지닌 종교로의 유입이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김 명예교수는 "기존 개신교계에서도 지속적인 신자 감소를 고민해왔다. 이번 개신교 신자 증가를 두고도 개신교계 내에선 더 기복성과 조직력을 지닌 신흥종교, 개신교계에서 말하는 이단이 포함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포교는 분명한 과제

이와 함께 이번 인구총조사에서 불교신자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29.8%), 경남(29.4%), 부산(28.5%), 경북(25.3%), 대구(23.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8.6%), 인천(8.8%), 광주(9.5%), 경기(10.7%), 서울(10.8%) 등 서부 지역에서는 약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경기 수도권 지역의 경우 가톨릭(서울 10.7·경기 9.0%)과의 격차가 근소해져 신도 수 2위 수성도 위기에 봉착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수도권에서 제3 종교로 전락한 지역도 많다. 도심포교당 운동과 포교사 양성과 기존 조직의 적극적인 활용 등 총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불교 신자의 노령화와 더불어 불교세 급감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번 통계청의 인구총조사는 기존 전수조사 방식에서 사전인터넷조사를 포함한 1100만명에 대한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불교계 안팎으로 표본 설정 등에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기획실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는 향후 입장과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염준근 동국대 통계학과 교수는 "이번 인구총조사 결과는 종교 중 상대적으로 고령화된 불교의 현실 등 불교가 가진 문제점을 되돌아 볼 기회"라며 "불교 인구의 증감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2월 21일 북인사동마당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 왼쪽서 세 번째)을 비롯한 각 종단 대표 스님들이 밝은 표정으로 팥죽을 만들고 있다.

불교계 "팥죽 나눔은 전통문화 살리기"

12월 21일 전국 112곳서 동지나눔축제 열어

연중 밤이 가장 긴 동지(冬至)를 맞아 불교계의 따뜻한 자비나눔행이 펼쳐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12월 21일 서울 인사동 북인사마당 등에서 '세시풍속, 이웃과 함께하는 동지나눔축제'를 개최했다. 사라져가는 세시풍속을 되살리기 위한 이번 동지나눔축제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2곳에서 진행됐다. 축제에는 종단협 산하 26개 종단이 참여해 불교계의 전통문화 전승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현했다.

축제의 대표행사장인 북인사마당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등 불교계 대표스님들이 대거 참여했다. 사전행사로는 청소년 타악밴드인 프롬코리아와 조계사 풍물패의 흥겨운 공연도 펼쳐졌다.

행사장에서 스님들은 직접 팥죽과 함께 양말, 염주 등을 담은 복주머니를 전달했다. 동지나눔축제에 참여한 김인자씨(63)는 "어렸을 때는 동짓날에 새알을 빚고 마을에서 풍물을 치고, 지신밟기를 하는 등 추억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런 추억마저 점점 잊혀져 간다"며 불교계에서 동지나눔축제를 연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글·사진=노덕현 기자

내년 1월 '反성폭력불교연대' 출범

불교계 여성단체, 22일 기자회견서… 신고센터 개설도

불교계 여성단체들이 뜻을 모아 내년 1월 반(反)성폭력불교연대를 출범한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노숙령)·나무여성인권상담소(소장 김영란)·종교와젠더연구소(소장 옥복연)는 12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찻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선학원서 불거진 성추행 의혹과 관련 '반성폭력불교연대(가칭)'를 구성해 피해자 구제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서 "그동안 교단 내 갖가지 성범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왔음을 깊이 반성하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반성폭력불교연대 준비위원회'로 활동을 개시, 선학원 성추행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학원 A스님의 공개참회 및 공직 사퇴 △선학원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 △사직서 수리 및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 △검찰의 엄중한 사건 처리 등을 촉구했다. 준비위는 내년 1월 중순 출범을 목표로 교계단체·언론·법조인 등에 연대활동을 제안하는 한편, 출범과 동시에 교단 내 성폭력고발신고 전화를 개설키로 했다.

이들 단체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문제를 드러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한 처벌과 해결을 원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용이나 배후 등을 운운하며 사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을 수없이 목격해왔다"면서 "출가자에 의한 성범죄는 승풍실추는 물론 교단의 위상과 불자의 자존심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사회법적 기준에서의 처벌은 물론 계율로도 합창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1128호 INDEX

현대불교신문 선정 2016년 10대 뉴스 5



그대는 자비보살 대구 영산합창단 14·15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초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LOTUS (연꽃香) 조연향



new

조연향의 은은한 연꽃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조연향은 맑고 깨끗한 아침 연못의 고요한 연꽃향과 고급 목분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합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조연향은 우리 나라에서 만든 우리향입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격 [장] 10,000원 (제조 : 국내산)
[단] 15,000원 (제조 : 국내산)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www.shcandle.com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2016 종단 결산

한국불교 쇄신, 대중 열망 'Hot'·제도화 'Cold'



3월 31일 서울 불광사에서 열린 2016 제1차 대중공사에서 참석대중이 불교발전을 서원하며 환호하고 있다. 이날 대중공사에서는 직선제에 대한 종도멸망이 확연히 드러났다.

성과 사상 최초 사찰재정 공개, 사업지주회사 출범

과제 직선제·은퇴출가 도입서 보인 승가인식 개선

비판 한국불교의 기복·차별·배타성 쓴소리 나와

올해 한해 불교 각 종단은 불교계 안팎의 어수선한 시국 속에서 다양한 혁신이 시도됐다. '이대로는 불교가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 의식 속에 쇄신책이 나왔지만, 대부분 제도화에는 실패했다. 직선제를 비롯해 은퇴자 특수출가, 재정 투명화 등 일부 논의과정서 성과는 보였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는 평가다. 이런 와중에 현각 스님의 탈종선언과 함께 이어진 불교계 병폐 고발은 아직 불교계가 변화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렸다.

2017년에는 이러한 불교 쇄신에 대한 불자들의 바람이 이뤄질까? 다가오는 새해를 앞두고 2016년 각 종단의 주요 활동을 되짚어 본다.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바람'

2017년 한국불교 대표종단인 조계종은 행정수장인 제35대 총무원장을 새롭게 뽑는 절차에 들어간다. 2016년에는 이런 과정을 앞두고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3월 31일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주제로 서울 불광사에서 열린 100인 대중공사 자리는 그 바람의 시작이었다. 전 지역에서 순회 대중공사를 열고 다시 5월 18일 서울 불광사에서 열린 2차 대중공사에서는 전체 대중공사 참가자 726명 중 61%가 직선제를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어 종회 직선제 특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직선제 찬성은 80.5%에 달했다.

하지만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에 대한 열망은 제도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1월 8일 열린 제207차 정기회에서는 종헌 개정과 종법 개정 등의 절차상 난맥으로 차기 3월 임시회로 이월된 것이다. 이와 함께 종회에서 직선제 추진에 대해 비판을 받은 직선제 특위 구성원들이 대거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35대 총무원장 선거는 간선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2016년의 일련의 사태는 불자들이 얼마만큼 종단 쇄신을 염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계기였다. 총무원장 직선제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퇴자 특수출가는 지속 과제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새해 벽두 발표한 '은퇴자 특수출가제' 도입은 불교계 안팎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불교계 내부로는 출가자 감소에 대한 대책이기도 한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조계종 중앙종회는 출가특위를 구성해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1년 여의 비공개 속에 11월 8일 제207차 정기회에서 처음으로 실체를 보인 은퇴자 출가제도는 대중들의 실망감만을 자아냈다. 만51세 이상, 70세 이하 은퇴자를 '수행법사'란 명칭으로 1년 간 활동하도록 한 '은퇴자 특수출가'안에 대해 수계 문제부터, 처우 문제까지 기존 승단의 반발이 반영됐다. 논란 끝에 종회에서 은퇴자 특수출가안은 기존 포교사 제도와 다를 바 없이 난도질 된 끝에 결국 부결되며 도입이 무산됐다.

한전부지 명분·실리도 못찾아

한전부지 개발 문제는 불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 땅은 군사정권이 1970년대 강탈한 봉은사 토지였기 때문이다. 2016년 2월 3일 조계종 한전부지환수위원회(공동위원장 지현·원명, 이하 환수위)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전부지 환수운동을 천명한데 이어 3월 23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서울경기 지역 불자 1만여명이 참여한 환수기원법회를 개최했다.

환수위는 4월 7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그룹 사옥 앞 2차 환수기원법회, 4월 29일 조계사부터 서울시청광장까지 삼보일배를 진행하는 등 환수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지만 정부와 서울시, 현대차 그룹은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건립 인허가 절차를 광속으로 밟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환수운동을 옛 땅을 이제와 찾는다는 명분도 실리도 놓쳤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현대차 신사옥 GBC 건립이 가시화되자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초고층 건물 건립으로 인한 난반사와 일조량 감소로 봉은사 문화재 등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된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채 6개월도 되지 않는 빠른 인허가 절차 과정 속에 현대차 그룹이 이 인허가를 위해 최순실 회사에 대가성 기부를 했다는 게이트 연루의혹까지 터지며 불교계의 공분은 더욱 짙어졌다. 현재 조계종은 12월 15일 최순실게이트 GBC 특혜 의혹 및 초고층 개발 저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새해에는 이 같은 범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GBC 건립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불교계 활동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재정확보 사업토대 마련

조계종은 사찰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확보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조계종은 2017년 본격적인 수익사업 전개를 앞두고 12월 사업지주회사 출범을 예고했다. 11월 16일 '조계종 출판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종무회의 의결과 공포 과정을 일어났다. 조계종이 4월 4일 조계사, 봉은사, 선본사, 보문사 등 직영사찰 4곳의 사찰 재정을 전격 공개한 것이다. 이번 재정 공개는 지난해 3월 제3차 100인 대중공사 '사찰재정 투명화' 의제 논의 결과에 따른 조치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지난해 연간 예산 30억원이 넘는 43곳의 사찰 재정 공개를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이뤄진 사찰재정공개에 이어 조계종은 연 1회 재정공개 방침을 밝혔다. 시주 문화 등으로 현대화가 더딘 탓에 불교계의 재정 공개가 늦었지만 종단 혁신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진각종, 100년 도약 시작 원년

올해 창종 70년을 맞은 진각종은 11월 22일 서울 성북구 총인원에서 '제12대 총인 회정정사 추대법회와 제30대 통리원장 회성정사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수반 취임은 진각종 창종 이후 종조 1세대, 종조 제자 2세대에 이어 3세대가 행정수반 역할을 맡아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의미를 지닌다.

진각종은 이에 앞서 3월 29일 창종 70주년을 기념한 밀교문화총람 편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총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총람 편찬을 통해 한국불교 내 밀교문화가 집대성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계 불교도 축제 WFB, 서울에서

전세계 불교도들의 대축제인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제28차 서울총회'가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진각종 총인원 일대에서 성대히 열렸다.

태국과 스리랑카 등 전세계 20여개국 불교지도자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차 WFB 서울총회에서는 세계평화와 화합에 기여한다는 선언문이 채택됐다. 북핵 문제와 잇따른 전세계 테러 사건에 대응하는 불자들의 모습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2년 뒤 2018년 11월 일본 나리타서 열릴 '제29차 총회'에 WFB 회원들은 또 어떤 해법을 들고 모일까?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현각, '한국불교 결별' 자정 계기?

올해는 하버드대학 출신의 미국인 현각 스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을 떠나겠다고 밝혀 불교계 안팎에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현각 스님은 7월 27일 페이스북에서 "한국불교를 떠나겠다"며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짚었다. 스님이 제시한 한국불교의 문제점은 △기복 △차별 △배타주의로 축약된다. 스님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불자대중들은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와 한국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입장으로 갈려 설전을 벌였다.

현각 스님의 발언을 두고 한국불교를 되돌아 보는 계기로 삼을 것인지는 대중들의 숙제로 남았다.

조계종 사상 최초 사찰재정 공개도

쇄신 바람에 부응하는 의미있는 일도 만을 남겨두고 있다.

내년 초 출판사가 영리법인으로 확대 개편되면 출판 및 서적 도·소매업을 기반으로 △기획물제작대행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제작 및 판매업 △행사기획 및 대행업 △유통업 △프랜차이즈업 △부동산중개업 및 임대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직접 사업 혹은 자회사 운영 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계종 '50세 이상도 출가 허용' 추진

출가특위, 3월 종회 발의 계획

조계종이 현행 50세 이하로 제한된 출가연령에 대한 상향을 논의한다. 은퇴자 출가제도 도입이 무산된 가운데, 늦깍이 출가자를 정식 출가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검토하자는 취지다.

중앙종회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수암, 이하 출가특위)는 12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출가연령 상향'을 골자로 한 종법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7차 정기회에서 부결된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재발의 여부가 검토됐다. 출가특위 위원들은 "은퇴출가제도는 복잡하고 제약이 많아 오히려 발심을 꺾는다"며 "부처님법에는 출가 나이제한이 없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출가연령제한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 속에 출가특위는 출가연령 상한으로 인한 종단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논의했다.

출가특위는 '은퇴자 특별법'을 수정 보완해 내년 3월 임시회에 재발의하기로 했다. 또 출가연령제한 상향과 귀종승 제도 현실화 등에 대한 종법개정안도 내년 3월에 열리는 임시회에 발의키로 하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내년도 조계종 장학승 15명 선정

장학위, 12월 19일 발표

2017년 조계종 장학승 15명이 확정됐다.

조계종 장학위원회(위원장 보광)는 "12월15일 제4기 장학위원회 2차 회의에서 6개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장학승을 선발했다"고 12월19일 밝혔다. 선발된 장학승은 해외 5명, 국내 4명, 사찰승가대학원 6명 등 석·박사 과정 재학생 15명이다.

해외 장학승으로는 혜융(독일 함부르크대학, 대승불교 박사), 효은(영국 브리스톨대학, 초기불교 박사), 세등(미국 하버드대학, 종교학 석사), 향산(일본 하나조노대학, 대승불교 석사), 종본(일본 동경대, 초기불교 석사)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국내 장학승은 곡중(동국대, 불교학 박사), 자운(동국대, 계율 석사), 현우(중앙승가대, 불교문화 석사), 여서(동국대, 불교문화 석사) 스님이 선발됐다.

사찰승가대학원 재학 중인 대산(선운사, 초기불전), 수미(해인사, 계율), 명신(청암사, 계율), 대안(청암사, 계율), 선정(봉녕사, 계율), 혜강(청암사, 계율) 스님이 전공연구 장학금을 받는다.

장학위원회는 총 1억1450만원을 매년 장학승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 6회 성도재일 기념 승보공양대법회 (회장 이·취임식)

청정한 공양 희유하고 아름다워라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오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에 여념이 없으신 대덕 스님과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도를 기념하는 제6회 성도재일 기념 승보공양대법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법회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 이·취임식과 아울러 부처님의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며
덕 높으신 스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여법하게 승보공양을 올립니다.



- 일 시 : **2017. 1. 8 (일) 오후 2시**
- 장 소 : 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5A홀(신관)
- 대 상 : 부산지역 및 인근지역 대한불교조계종 스님 및 불자
- 문 의 : (사)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051)501-7554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발로뛴’ 사회 · 노동 · 환경… ‘용두사미’ 화쟁위

2016 사회 결산


최순실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5차 촛불집회에서 사회노동위 스님이 시민에게 촛불을 건네고 있다.

사회노동위 등 종단기구 적극 활동
불교시민사회계 공동 행동도 ‘주목’
화쟁위, 무기력 행보 아쉬움 남아
침체됐던 환경계 재도약 기대 모아

올해 불교계 사회참여는 그 어느 때보다 돋보였다. 정교분리의 원칙상 종단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정치 · 사회 현안에 대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불교사회연구소 등 종단기구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으며, 개별 활동에 주력하던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들도 △탈핵 △국정농단 사태 △차별금지법 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며 저력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피신 사태 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조계종 화쟁위원회의 침묵과 국내정세에 따른 남북불교교류 단절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에 일각에선 화쟁위원회 정체성이 무색해지며 해체가 거론되기도 했으며,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민간교류를 활성화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한단 지적이 적지 않다.

사회노동위원회 개편 ‘괄목’ 성과

2012년 조계종 ‘노동위원회’로 출범한 후 지난해 12월 확대 · 개편된 ‘사회노동위원회’는 올 한 해 불교계서 가장 폭넓은 사회활동을 보였다.

기존 노동위원회가 노동 분야에 국한된 활동을 펼쳤다면 올해는 △백남기 농민 추모 및 진상규명 촉구 △세월호 인양 및 기간제 교사 순진 인정 촉구 △제1231차 · 126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정기 수요시위 개최 및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전면 폐지 촉구 △성소수자 초청 법회 봉행 등 사회현안 전반에 대해 불교계를 대표해 나섰다.

특히 최근 불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선 매주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불교시민사회 단체와 협력해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박근혜 퇴진과 국민주권 수호 범불교시국회의’를 구성하는 등 민심의 편에 섰다. 이는 종단이 정교분리 원칙상 정치 및 사회 현안에 대해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점을 보완했단 평을 받았다.

무엇보다 올해 1월 26일 새롭게 위촉된 사회노동위원회 실천위원 스님들의 역할이 컸다. 실천위원 스님들은 때로는 진도 팽목항에 내려가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재를 봉행하고, 또 때로는 조선업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위해 광화문 한복판에 서며 사회적인 파급력을 가져왔다.

‘뜨거운 감자’ 화쟁은 어디로…

올해 시작과 함께 ‘화쟁사상’은 시대적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 11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피신 사태서 중재를 맡은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주목받으며, ‘화쟁’이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

이에 조계종은 2016년 신년 종무기조서 ‘화쟁 사상 확산 및 화쟁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화쟁위원회를 비롯한 조계종 사회부 환경위원회 · 사회노동위원회 · 종교평화위원회가 ‘화쟁네트워크’를 구축, 사회 현안을 화쟁적 관점서 풀 수 있도록 공동 대처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조계종은 앞서 6월 28일 입법예고한 ‘화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 개정안을 7월 13일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운영위원회’ 신설 △화쟁위원 15인서 21인으로 확대 △기존 ‘화쟁위원’ 및 ‘기획위원’ 이분화 체제 ‘화쟁위원’으로 통폐합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개정안은 업무효율을 높이고 화쟁위원의 역량 및 역화를 강화하기 위해 수립됐다.

그러나 조직 개편만으로 화쟁위가 사회적 중재 기구로서 입지를 확립했다고 보긴 어렵다. ‘화쟁네트워크’는 신년 기자회견 후 공식 거론된 바 없으며, 실제로 화쟁위원회의 올해 활동이 세미나 · 시민대화마당 개최 등에 그쳐 무기력한 행보가 이어졌다.

또한 2010년 봉은사 직영사찰 중재 실패, 2015년 용주사 갈등 및 동국대 사태 조정 결렬에 이어 2016년 선학원 원탁회의 구성 실패까지 종단 내부 사안에 대해선 올해 역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단 아쉬움을 남겼다.

‘재도약’ 불교환경연대 향후 행보 기대

한동안 조용했던 불교 환경계에 새 움이 텄다. 4대강 사업의 환경적 폐해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반대에 앞장섰던 불교환경연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2010년 수경 스님의 칩거 이후 지도층의 부재에 따라 유명무실화 됐던 불교환경연대는 3월 21일 새 상임대표 법일 스님을 비롯한 신임 임원단을 꾸리고 재도약을 선언했다.

먼저 불교환경연대는 ‘4대강 재자연화’를 주창하며 4월 3일~7월 11일 ‘4대강 생명살림 100일 수행길’에 올랐다. 4대강 수행길은 사업 그 후를 조명하며 환경파괴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켰단 점에서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후 불교환경연대는 △사드 배치 규탄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탈핵 캠페인 등 대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뿐 아니라, 생명과 생태 관련 소양을 쌓는 ‘녹색불교아카데미(10월 12일~12월 7일)’를 진행했다. 올해 발표한 3년 사업계획서 전국 20여 곳의 녹색사찰과 3곳의 지회 구성, 회원 1000명 및 후원사찰 100곳 만들기를 목표로 밝힌 만큼 향후 저변 확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밖에 조계종 환경위원회도 7기 환경위원회를 출범하며 △사찰림 재선충 현황과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 △사찰 약수 수질특성 조사 및 종합관리방안 연구 등 신규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 부결하라”

불교계 26개 단체, 촉구

불교시민사회단체 26곳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불교환경연대 등 26개 단체(이하 26개 불교단체)는 12월 19일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을 촉구한다’는 제하의 성명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 들어 산지관광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으로 일컬어진 이 산지개발사업의 여파로 전국 명산이 케이블카 공사로 파헤쳐질 위기에 놓였다”며 “26개 불교단체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불교의 생명존중사상에 맞지 않음을 밝히고 사업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먼저 26개 불교단체는 “국립공원이자 천연보호구역인 설악산을 두고 수십 년 동안 부적격 결론이 난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하고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보완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제 남은 희망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뿐이다. 문화재위원회 결정에 설악산의 산양 등 멸종위기 동식물의 생명줄이 달려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아름 기자

대불련 지부 · 지회 복원사업 공모

대학생캠퍼스포교 활성화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지부 · 지회 복원을 위해 총동문회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백효흠)는 내년 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17년도 캠퍼스포교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을 전개한다. 이에 1월 13일 오후 6시까지 각 지부와 지회의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사업분야는 △특화사업(청춘토크콘서트 및 초청강연회) △거점사업(템플스테이) △전략사업(캠퍼스포교 콘텐츠 퍼실리테이터 양성) △기획사업(지부 · 지회 활성화 및 복원 프로젝트)으로 나뉜다.

신청자격은 대불련 재학생과 동문이며, 지원사업 신청서와 제안서 각 1부를 이메일(daebul333@naver.com)로 제출해야 한다. 서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전화통화 · 대면 등이 이뤄진다.

신청자는 사업에 대한 예산 또는 행정 · 인력 · 장비 등을 지원요청 할 수 있다. 지원예산은 총 2000만원.

(02)720-1963 윤호섭 기자

조계종 “선암사 지역정서 챙기자”

선암사특위, 19일 태고종과 소유권 항소심 앞두고 방침 밝혀

순천 선암사 소유권을 둔 조계종과 태고종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지역민심을 먼저 챙기기로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선암사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제정)는 12월 19일 제5차 회의를 열었다.

선암사 주지 법원 스님은 “태고종과 진행 중인 ‘선암사 변경등기 말소 소송’ 항소심에서 변호인력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1962년 통합종단 출범 당시 사찰 등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의뢰를 해당기관에 한 상태”라고 밝혔다.

선암사 특위는 “법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지역 정서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며 “조계종 선암사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암사 특위는 인근 교구본사와 협의해 지역 여론 개선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선암사특위는 항소심까지 진행된 ‘차 체험관 철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차 체험관 철거가 실효가 없음을 들어 순천시와 협의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덕현 기자

사찰 존폐위기 수도사, 1인 시위 돌입

주지 청호 스님, 12월 22일 시공사에 대책마련 촉구



이천-오산 구간 고속도로 건설로 수행환경 침해 위기에 놓인 수도사 주지 청호 스님이 사찰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조계종 직할사찰 경기 광주 수도사 주지 청호 스님〈사진〉은 12월 22일 금호아시아나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도로 시공사인 금호산업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수행환경을 수호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2일 이천-오산 구간 고속도로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제2외곽순환고속도로(주))는 12월 중 착공해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청호 스님은 “2009년 수도사 뒷산에 대형고압송전탑이 설치돼 전자파와 소음, 진동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 그런데 이제는 사찰 앞 26m 앞에 고속도로 건설이 예정돼 더욱 심각한 피해에 직면했다”며 “한국전력과 서울국토관리청, 시공사인 금호산업 측에 수차례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어떤 민원요청에도 제대로 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1인 시위는 한차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관계당국과 시공업체서 납득할만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수도사는 1859년(철종 10년) 중창한 고찰로, 경기도유형문화재 제308호 목조관세음보살좌상을 비롯한 문화재와 성보를 보유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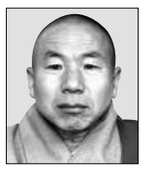
慶 대한불교 조계종 제14대 종정 진제 법원 대선사 추대 賀



조계종의 종지종풍을 봉대하고 2천만 불자의
수행과 정진의 표상이신 진제 종정예하의
제14대 종정 재추대를 팔공총림 동화사 사부대중의
마음을 모아 경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사부대중 일동

일 주 문



해인사 겨울수련회

향적 합천 해인사 주지 스님은 1월 6~8일 경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36회 법보종찰 해인사 겨울수련회'를 실시한다.



성탄절 템플스테이

정념 평창 월정사 주지 스님은 12월 24~25일 경내서 성탄절 특별 템플스테이 '나홀로 성탄절에'를 개최했다.



나마스떼코리아 이사장

상덕 서울 옥수복지관장 스님은 12월 16일 서울 성북동작은갤러리서 나마스떼코리아 제3대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대불련동문회 송년법회

백효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장은 12월 25일 서울 공군회관서 '지나온 50년, 열어갈 50년'을 주제로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22년 모은 헌혈증, 난치병 환자에

생명나눔, 동국대일산병원에 헌혈증 5,000장

22년간 모은 헌혈증 5,000장이 저소득 · 난치병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된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12월 20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원장 오민구) 4층 제2회의실서 1994년 법인 설립부터 모은 헌혈증 5,000매를 기증했다.〈사진〉 기증된 헌혈증서는 동국대일산병원서 백혈병 · 소아암 · 희귀 난치병 환자 및 저소득 환자들의 치료에 쓰인다.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은 "헌혈증 기부는 생명나눔 회원들과 동대부고 · 광동중 · 고등학교 학생 및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능했다"며 "헌혈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리려는 절박한 노력이다. 앞으로도 환자들의 쾌유를 응원하며 헌혈 캠페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태석기 의료원장은 "중환자 수술에 혈액은 필수적이다. 생각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며 "이번 헌혈증 기부로 말할 수 없는 도움을 받았다. 특히 저소득 환자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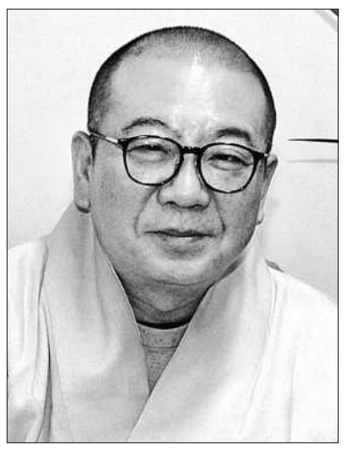
한편 생명나눔은 지난 9월 12일 동국대일산병원에 환자 리프트와 전동침대 구입에 필요한 5,000만원을 기증하는 등 꾸준히 나눔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승희 기자

"복지관 직영해 모범모델 발굴"

Interview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신임 상임이사 함결 스님



6개 분야 직영시설 확보해
빈약한 복지분야 보완 계획
아동 · 여성학대 대책 찾는다

"올해부터 각 분야별 복지관을 직접 운영해 모범 복지관 모델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여태까지 위탁 형식 운영이 많았지만 직영 복지관을 늘리게 되면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는 데 효율적입니다. 우리사회 어두운 곳서 연꽃처럼 정화 기능을 펼치는 불교복지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수개월 간 공석 끝에 12월 15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 신임 상임이사로 취임한 함결 스님〈사진〉은 19일 본지 인터뷰서 적극적인 재단 활동을 예고했다. 우선 상대적으로 노인복지에 집중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직영 복지관을 운영, 6개 분야마다 모범 복지 모델을 발굴하는 데 집중한다.

"노인복지관 · 보육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 여성기관 · 장애인복지관 · 자활센터 등 6개 분야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서 복지 모범 사례를 찾아내고 이를 불교 전반에 확산시키는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함결 스님은 복지관 표준화가 특히 빈약했던 아동 · 여성 복지정책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관 모범 모델이 안정화돼 운영 노하우가 쌓이면 나아가 아동 · 여성학대 예방책을 도출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례 개발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보완해 나간다면 좀 더 완전한 아동 · 여성학대 예방책이 나올 겁니다."

또한 스님은 개별 사찰마다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자비나눔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하며, 궁극적으로는 신도들의 신행생활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개별 사찰 역량은 조계종단과 조계종복지재단 지원 여부에 달렸다"며 체계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자비나눔 행사에 모여 무주상보시를 펼치는 신도들을 지속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구심체가 사찰이 돼야지요. 이를 위해 조계종단과 조계종복지재단은 사찰이 신도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지속적인 보시행 · 신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자료를 만들고 배포해야 합니다. 우리 스님들도 금액 보시에 집중했던 점을 반성하고, 이제부터 신도들이 지속적으로 보시행을 펼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해 이들의 무주상보시를 장려하는 길로 들어서야 할 때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복지의 꽃'이라 표현한 함결 스님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비현장서 활약하는 신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생활밀착형 봉사가 성불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불자들은 봉사점수를 따기 위해 봉사에 나서지 않습니다. 오직 자등명법등명(自燈明法燈明) 정신으로 소외된 이웃 곁을 지킬 뿐입니다.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조계종복지재단은 불자들을 위해 '생활보시'를 비전으로 제시합니다. 매 끼니 챙겨먹듯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스며든 보시행 전통이 정착되면 신도들도 스스로 불성을 깨우치고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이 올 겁니다."

한편 상임이사 함결 스님은 1985년 해인사에서 성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1년 사미계 · 1995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광주 덕림사 주지, 제주 보현사 주지, 호계원 사무처장, 중앙승가대 산학협력단장을 역임했다. 제16대 중앙종회의원으로 제주요양원장과 천축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이승희 기자

"종교인 세속화 바로잡기 주력"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박영근 신임회장



"10년간 축적해온 불교 지성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이 시대 과제인 종교 세속화를 바로잡는 정법당간을 세우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원들의 불심에 대한 자질과 불법(佛法)을 비롯한 종교 덕목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변화하는 포럼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이 12월 22일 부산롯데호텔 41층 에메랄드룸에서 '창립 제10주년 기념 및 회장 이 ·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근 신임회장〈사진〉은 불교 지성의 결집체인 부산지도자포럼의 역할을 이와 같이 밝히고 회원들의 동참을 권유했다.

이어 박 회장은 "앞으로 부산불교 중흥을 위해 내실 있는 불심으로 접근하고 한다. 회원 상호간의 신뢰와 배려, 유대와 소통을 통해 화합하고 다시 10년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회원의 기본 의무는 참석이다. 이름만 걸쳐놓은 회원에서 함께 동참하고 화합과 소통하는 회원으로 거듭나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구성원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경제뿐 아니라 학문 분야, 사회복지까지 아우르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배우고 활동하는 불교기관으로 토대를 굳건히 하겠다"고 전했다.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은 2006년 학술문화 교류, 불교지도자 육성, 국제 교류, 사회복지 및 봉사사업 지원 육성 등 부산불교는 물론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 및 지원을 펼쳐나가기 위해 창립됐다. 창립법회를 시작으로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사랑의 이불 나누기 및 이웃돕기 봉사 활동도 진행해왔으며, 학술적 연구와 아울러 사회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 동명불원 화랑 스님, 박수관 前회장을 비롯해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동국대 불교학과 송년의밤 성료

12월 15일, 동문 90여 명 동참



동국대 불교학과 동문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학과 창설 110주년 동문 송년의 밤'이 12월 15일 서울 충무로 대림정에서 열렸다. 이날 동문회에는 90여 명이 참여했으며, 홍영춘 전 SK에너지 사장과 김형중 동대부여중 교장에게 '2016 명예로운 동문상'이 수여됐다. 또 김용표 동문회장이 만장일치로 재임 가결됐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광명종, 자비의 쌀 전달

김천 봉산면에 백미 2,000kg



광명종 총무원장 현지 스님(김천 미타사 주지)은 12월 19일 김천 봉산면주민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백미 2,000kg(100포)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종정 불인 스님, 종주 광덕 스님, 총무원장 현진 스님과 진경, 진연, 진우 스님을 비롯한 종도스님들과 불자 조수만 봉산면 부면장 등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동짓날 출동한 '아이연탄맨'

아름다운동행, 구룡마을서 연탄 2만장 나눠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12월 21일 서울 구룡마을서 제3회 '이웃의 따뜻함을 전하는 슈퍼영웅 아이연탄맨, 2016 연탄나눔'을 진행했다. 이날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10월부터 모금으로 구입한 연탄 2만1600장 중 4000장을 구룡마을 20가구에 우선 배분했다. 이후 한 가구당 200장씩 총 108가구에 연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승희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6년 12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아듀! 2016, 불교 진흥은 이어진다. 쭈~욱~

현대불교 10대 뉴스

저물어 가는 2016년을 되돌아본다. 올해 벽두 출가자 감소와 불교세 급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불교계는 2016년을 열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불자들의 시름은 깊어졌지만 희망찬 소식도 많았다. 사찰음식점이 미슐랭 가이드에 선정되고 아프리카에 첫 직업학교를 건립하는 등 불교 안팎에 전방위적인 전법활동이 활발히 이뤄졌다. 〈편집자 주〉

조계종 직선제 도입 바람 거세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을 위한 100인 대중공사가 3월 31일 서울 불광사에서 열렸다. 5월 18일 서울 불광사에서 열린 2차 대중공사에서는 전체 대중공사 참가자 726명 중 61%가 직선제를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에 조계종 중앙종회는 6월 21일 개최한 제206차 임시회에서 '총무원장 직선선출제 특별위원회(위원장 태관)'를 구성하고 총무원장 직선제 안 마련과 함께 전체 대중의 여론조사에 착수했으며 1000여 스님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직선제 찬성이 80.5%에 달함을 확인했다.

하지만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 움직임은 11월 8일 열린 제207차 정기회에서 종헌 개정과 종법 개정 등의 절차상 난맥으로 차기 3월 임시회로 이월되며 아쉬움을 남겼다.

'깨달음 논쟁' 활발 전개

지난해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으로부터 시작된 '깨달음은 이해를 통해 이뤄진다'는 논쟁이 2016년 새해 벽두부터 다시 불거졌다. 당시 범어사 주지였던 수불 스님(現 안국선원장)은 현응 스님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담은 소책자 〈조계종지의 현대적 구현〉을 발간했다.

당시 수불 스님은 현응 스님의 주장을 12개 항목에 거쳐 요모조모 반박하며 "인류 최고의 정신문화유산인 간화선법을 활용하지 못하는 현재를 비판해야지 간화선법을 문제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수불 스님에게서 시작된 '깨달음 논쟁'은 학계로 이어지며, 상반기 이슈가 됐다. 학자들의 매체 기고를 통한 논쟁부터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토론회도 진행됐다. 〈불교평론〉에서도 '깨달음 논쟁'에 대한 특집을 다뤄 많은 관심을 받았다.

눈 푸른 납자가 울린 경종

'눈 푸른 납자' 현각 스님이 한여름에 던진 한국불교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가 한동안 세간을 뒤흔들었다. 스님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불교와의 이별을 암시하며 "주한 외국스님들은 조계종 데코레이션" "기복=$(돈)" 등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추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말의 뉘앙스가 오해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본인이 전하고자 했던 한국불교에 대한 아쉬움은 묻어두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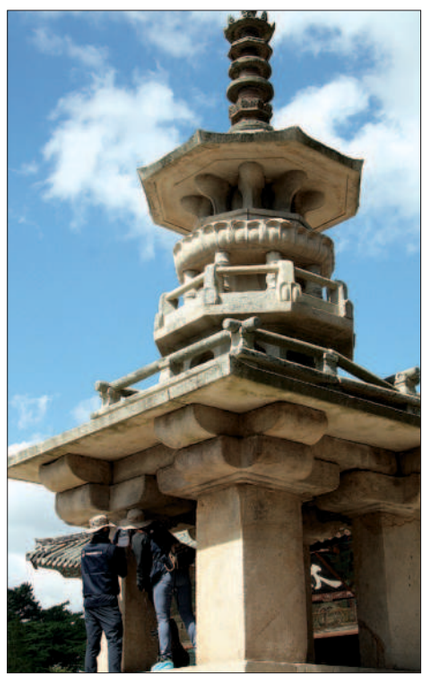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불교 민낯에 공감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반대로 현각 스님을 비난하는 이들도 다수 있었다. 신흥사 조실 무산 오현 스님은 하안거 해제법문서 "겉에 있는 거품을 보지 말고 실상을 보라. 산에 물이 흐르면 흙탕물만 보지 말고 바위 아래 맑고 고요한 물을 봐야 한다. 불법(佛法)은 그렇게 돌덩이 밑으로 사자전승(師子傳承)하며 흐르는 것"이라며 이 논란을 염두에 두고 당부했다.

진각종 창종 70년 맞아 쇄신

올해 창종 70년을 맞은 진각종은 11월 22일 서울 성북구 총인원에서 '제12대 총인 회정정사 추대법회와 제30대 통리원장 회성정사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진각종은 이에 앞서 3월 29일 총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창종 70주년 기념 밀교문화총람 편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진각종은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전세계 불교도들의 대축제인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제28차 서울총회'를 주관해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①진각종 총인 취임법회. ②前사립박물관장이 27년간 은닉하다 적발돼 환수된 불상 11구. ③최순실 게이트 촛불집회에 참여한 스님들의 모습. ④아프리카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⑤'총무원장 선출제도' 주제로 열린 대중공사. ⑥경주지진 후 다보탑 조사 모습.

출가진흥의 원년! 출가 진흥운동 '꾸준'

조계종은 출가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를 '출가진흥의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출가진흥사업을 추진했다. 첫 번째 성과로 출가 홍보 포스터를 제작, 전국 사찰에 배포했다. 또 3월 2일에는 출가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하고 출가 상담 전용전화를 개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5월 26일 서울 동국대에서 출가콘서트 '청춘, 자유를 향한 날개짓'과 11월 26일 부산 부경대에서 출가콘서트 '행복의 길을 찾아서'를 열었다.

아프리카 대지에 펼친 '첫 교육불사'

조계종과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의 숙원 사업인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이 지난 9월 5일 문을 열었다. 2013년 9월 첫 삽을 뜬 후 3년 만에 개교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은 불교계서 아프리카 대지에 지은 첫 학교로 주목을 끌었다. 특히 전국 사찰 및 신도들이 43억4400만원의 기금을 후원, 사부대중이 합심해 펼친 교육불사라 의미가 깊다. 보리가람대학은 총 4만여 평 부지에 교실 6개와 교무실, 행정실, 도서관, 강당, 화장실, 주방 및 식당, 학교정원 등을 보유한다. 특히 전교생 기숙생활을 위한 남녀 기숙사 각 1동과 교사관사를 비롯해 대규모 실습공간으로 농업실습장과 가축실습장을 갖췄다.

관건은 향후 운영방침이다.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이 뒷받침돼야한다. 이와 관련 아름다운동행 측은 "추후 상황을 고려해 동국대 · 중앙승가대 등 종립대학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도난문화재 환수 '봇물'

올해는 어느 때보다 도난 및 해외 반출 문화재의 환수 성과가 도드라졌다. 가장 주목할만 한 성과는 서울경찰청 지방수사대가 도난된 불교문화재를 27년간 은닉한 前사립박물관장 A씨와 아들인 前박물관 국장 B씨 등 2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불상 11구를 되찾은 것이다.

또한, 옥천사의 성과도 두드러진다. 옥천사는 올해에만 도난됐던 나한상 2구와 시왕도 1점을 환수했다. 옥천사는 사찰 문화재 연구 등을 목적으로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와 MOU를 맺는 등 꾸준한 노력을 보여, 문화재 환수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

이밖에도 송광사 오불도, 석천암 지장시왕도가 해외에서 환수돼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

경주 대지진, 문화재 내진 설비 관심

9월 12일 오후 8시 32분 경주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문화재청이 집계한 것으로는 60건의 문화재(국가지정 36건, 시도지정 및 문화재자료 24건) 피해가 있었다. 국보 제20호 불국사 다보탑의 난간석 이탈과 양산통도사 대웅전 · 극락보전 균열, 보물 제678호 운문사 삼층석탑의 상륜부가 탈락되기도 했다.

이후 문화재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이 불교계 안팎으로 확대됐다.

한국의 석조문화재 20%는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고, 정밀한 복원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불교계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찰의 대응 매뉴얼과 체계적인 내진 · 예측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사찰음식점 최초 미슐랭 선정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이 11월 7일 발표된 미슐랭 가이드 북 서울편서 1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됐다. 사찰음식점이 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미슐랭 가이드는 "사찰음식을 대중에게 소개한 레스토랑으로 고기와 해산물 외에도 오신채를 쓰지 않고, 사찰서 만드는 장류와 유기농 재료를 사용해 깊은 감칠맛을 내는 요리를 선보인다"고 소개했다.

미슐랭 가이드 선정을 두고 '사찰음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계기이자 세계화를 위한 발판'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상업용만이 아닌 수행자 음식이라는 철학과 뿌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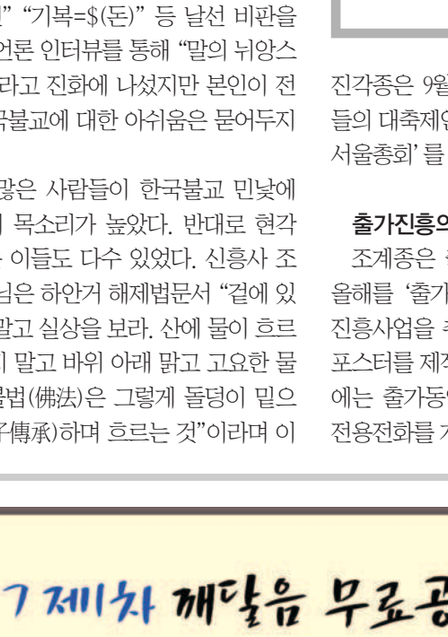
국정농단 뿔난 민심… 스님들도 광화문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에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 최초 보도 후 매주 토요일 100만 명에 육박하는 수가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모여들었다. 들끓는 촛불민심에 불교계도 좌시하지 않았다.

조계종은 12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기성 종단이 박 대통령의 퇴진을 공식 촉구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불교계에 박 대통령 즉각 퇴진 운동이 확산됐다. 12월 6일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33곳으로 구성된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박근혜 퇴진과 국민주권 수호 범불교시국회의'가 출범했고, 앞서 12월 1일 조계종 승려 2,684명도 '박근혜 퇴진과 국민주권 수호를 위한 조계종 승려 2,684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2017 제1차 깨달음 무료공개강좌



깨달음 산문은?
기존의 각종 기도법 및 수행법과 불교의식을 일체 하지 않는 곳이며,
오직.....
80화엄경을 현대식 버전으로 재번역한 깨달음 경전으로
독경, 사경, 법경수행을 함과 동시 독창적인 진귀 수인수행법으로
고통 해탈의 문을 여는 수행 단체입니다.

깨달음은
마음의 흔들림부터

깨달음 山門

▶ 일 시 : 2017년 1월 15일 일요일 오후2시
▶ 장 소 : 깨달음 산문(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 문 의 : 1899-9532

新 불자상 정립·신행단체 재도약 다짐

2016 신행 · 포교 결산

올해는 현 시대에 맞는 불자상 정립을 위한 노력과 각종 신행단체들의 10 · 20주년에 맞춘 재도약을 다짐하는 해였다. 아울러 명상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불교계 명상강좌가 잇달아 열려 성황을 이뤘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조계종이 내년 상반기 신(新) 불자상과 청규를 마련해 불자들의 신해행증(信解行證)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혀 신행문화가 한층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또 이와 함께 교계 청소년단체들이 비전을 발표해 젊은 인재 양성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신행장려 방안 연구

2015년 9월부터 약 6개월간 공석으로 남았던 조계종 포교원장직에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이 지난 3월 취임했다. 스님은 7대 포교원을 꾸린 뒤 5개월 장고(長考) 끝에 '신행혁신운동'이라는 포교종책을 내놨다. 그러면서 '새 불자상 정립'이라는 기조를 세웠다. 이는 수행과 지계에 무관심한 불자들의 마음가짐을 바꿔 실천에 나서도록 독려하고자 한 것이다.

포교원은 이를 위해 하반기동안 수차례에 걸쳐 신행혁신운동 연찬회를 열고, 주체적인 불자를 양성할 수 있는 불자상을 모색했다. 이후 12월 10일 제5차 포교종책연찬회서 '초안'이라 할 수 있

조계종단 새 포교종책 발표

불교계 명상강좌 대폭 늘고

청소년단체는 비전 내세워

신행문화 확산 일신에 효과

는 불자상과 청규를 제시했다. 포교원은 '붓다로 살자'는 슬로건 아래 신행혁신운동 이념을 '정법서 벗어난 신행을 혁신해 붓다의 삶을 따라 지혜를 닦고 자비를 실천하는 운동'으로 정리했다. 포교원 산하 신행단체를 비롯해 승가단체, 명상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신행혁신을 위한 주체로 삼고, 핵심신도와 잠정적 불자를 타깃으로 설정했다.



지난봄에 진행된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의 명상아카데미 대강좌.

사진제공=한국명상지도자협회

신행지침서 · 수행록 · 신행요강 등을 방편으로 삼았다.

하지만 "기존 불교운동과 변별력이 보이지 않는다" "단순하고 실천 가능케 해야 한다"는 많은 토론자들의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포교원은 대중의 의견을 취합해 관변운동에 그치지 않는 더욱 내실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연구에 들어갔다.

미래 꿈꾸는 신행단체

불교계 청소년포교와 인재양성을 위해 출범한 청소년교화연합회와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각각 출범 50주년과 20주년을 맞았다. 1966년 운문 스님과 안병호 거사 등 불교계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 범종단 차원의 단체로 문을 연 청교련은 교육부 청소년단체활동인증 학생 생활기록부 등재 단체로 승인받아 활동 중이다. 현재 16개 지부와 4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초 · 중고교생 및 지도자 등 3만8천여 명의 회원이 있다. 청교련은 50주년을 맞아 기존 예술경연대회를 비롯한 문화사업, 체험 · 봉사활동 · 국제교류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미래 50년을 꿈꾸며 청소년들에게 진리와 자비의 근본정신을 심어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1996년 조계종단이 청소년포교를 위해 출범시킨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파라미타 점핑(Paramita Jumping)'이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현재 23곳인 초교분회를 2026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하고, 전국 교원대학에 대학생 그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국제불교청소년캠프를 시작으로 국제교류에 나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외에도 선묵 혜자 스님의 108산사 순례기도회가 10주년을 맞아 5권 분량의 백서 〈희망의 연꽃으로 피어난 9년〉를 발간하고, 고불식을 올렸다. 아울러 '평화의 불' 이운과정을 담은 기행화보집 〈발길 닿는 곳곳마다 평화의 불 수놓다〉 발간 기념식도 열어 불자들의 신행원력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격려했다.

'명상BOOM' 발맞춘 불교

과학문명의 발달과 자본주의 폐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명상'이 새로운 사회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에 불교계에선 대규모 명상아카데미와 석학 초청 명상강좌 등이 잇달아 열렸다.

먼저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지난봄과 가을에 '명상아카데미 대강좌'를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20여 명의 명상지도자들이 위빠사나 · 명상상담 · 가피명상 · 자비명상 · 참선수행 등을 교육하며, 인터넷강의도 마련했다. 또 교육과정을 '명상전문지도사' 자격 획득을 위한 필수과정으로 만들어 참가자들의 동기부여에 무게를 더했다. 협회는 참가 인원을 200명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400여 명이라는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대한불교진흥원은 미국 임상심리학자 스티븐 힉맨 박사를 초청해 '현대인의 번아웃 증후군 예방을 위한 마음챙김과 자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 자리서 힉맨 박사는 명상과 현대 심리치료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삶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마음챙김 방법을 설명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국내 명상수행 명사들이 지도하는 연속강좌를 열었다. 여성개발원은 오원칠 · 김흥근 법사의 '간화선' 주제 강좌를 통해 좌선 · 실참 · 질의응답 등 이론과 수행을 병행해 호평을 받았다.

윤호섭 기자

익명보살 후원 Story '라디오는 자비를 싣고'

조계종복지재단 통해 기부

김태형 군 외 3명에 각 100만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함결 스님이 뇌변병 장애 1급 김태형 군 보호자 김용길 씨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익명의 보살이 후원금을 통해 4명의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은 12월 20일 조계종복지재단 6층 프로그램실서 저소득 아동 결연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익명의 보살이 기부한 400만원을 후원했다. 현장엔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뇌변병 장애 1급 김태형(13) 군과 보호자 김용길(68) 씨가 대표로 참석해 100만원을 전달받았다.

김태형 군은 좌측 고관절 수술 이후 지속적 신체 변형으로 물리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경제여건이 풍족하지 않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길 씨는 "처음 후원 소식을 들었을 때 때마침 뇌변병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운동기구(기립기)를 구입할 수 있겠단 생각에 정말 기뻤다"며 "얼굴도 모르는 보살로부터 커다란 선물을 받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계종복지재단 산하 보문종합사회복지관 · 영주시장애인복지관 · 전라남도장애인복지관서 총 3명의 아동이 각 100만원씩 후원금을 받게 됐다.

조계종복지재단 측에 따르면 익명의 보살은 평소 BBS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 애청자로, 복지재단과 여성가족부가 협력 중인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방송을 듣고 지난 11월 후원을 결심했다.

이 보살은 조계종복지재단에 전화로 후원 의사를 밝히며 "굳이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게 잘 전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 함결 스님은 "용기 내 실천한 나눔은 각박한 세상서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데 힘이 된다. 소외된 이웃 삶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나눔동참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에 조계종복지재단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서울 도심서 배우는 화두참선

조계사 참선입문 19기 모집

서울 도심에서 시민들이 쉽게 간화선 수행을 접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사(주지 지현)는 내년 1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 저녁반 2차례에 나눠 19기 참선입문 과정을 진행한다. 오전반은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저녁반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과정은 조계사 관음전에서 진행되며 간화선의 원리와 수행체계에 대한 강의와 문답, 좌선, 수련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화두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직접 내리며, 지도법사는 조계사 선감 운문 스님이 맡는다.

구체적인 강의 순서는 △1월 3일 입재식 및 오리엔테이션 △1월 10일 '간화선으로의 초대' △1월 17일 '간화선으로의 초대' △1월 24일 '정견을 통한 자유로운 삶' △1월 31일 '정견을 통한 자유로운 삶' △2월 7일 '간화선의 원리와 수행체계' △2월 14일 '화두알기와 들어보기' △2월 18일 수련회 △2월 21일 화두실참 △2월 28일 수행공동체의 길 등이다. 교재는 자체교재로 진행되며 회비는 25만원이다. 한편, 조계사 참선전문수행기관인 선림원은 2017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원서접수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 (02)768-8525

노덕현 기자

장애불자 · 마가 스님 함께 명상송년법회

보리수아래, 12월 17일 자비명상으로 신심 다져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과 보리수아래 회원들이 12월 17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서 송년법회를 하고 있다.

장애불자들 모임 보리수아래(회장 최명숙)는 12월 17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연수실서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을 초청, 자비명상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보리수아래 회원과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이 함께한 법회에서는 중증 장애를 극복해낸 닉 부이치치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자신의 장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보냈다. 이어 마가 스님은 사무량심을 주제로 행복 명상에 대해 법문했다.

마가 스님은 "자기 행복을 만드는 것은 자신을 사랑할 때 가능하다. 그래야 비로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며 "지금 내 행동과 말, 생각이 곧 나의 미래가 된다.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자신을 돌아보라"고 당부했다.

마가 스님은 이후 보리수아래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돕고자 후원금도 전달했다. 이에 최명숙 회장은 회원들의 글이 담긴 책 등을 선물했다. 마가 스님의 법문이 끝난 뒤에는 일원 스님과 경전을 독송하며 신심을 다졌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 도 모 집



종 정 명 진 석법운 대종사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입종구비서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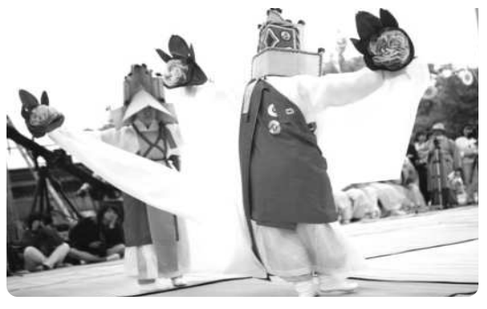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반 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호 동명사

☎ 054)974-2605 / FAX 054)974-2705

제11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7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접수처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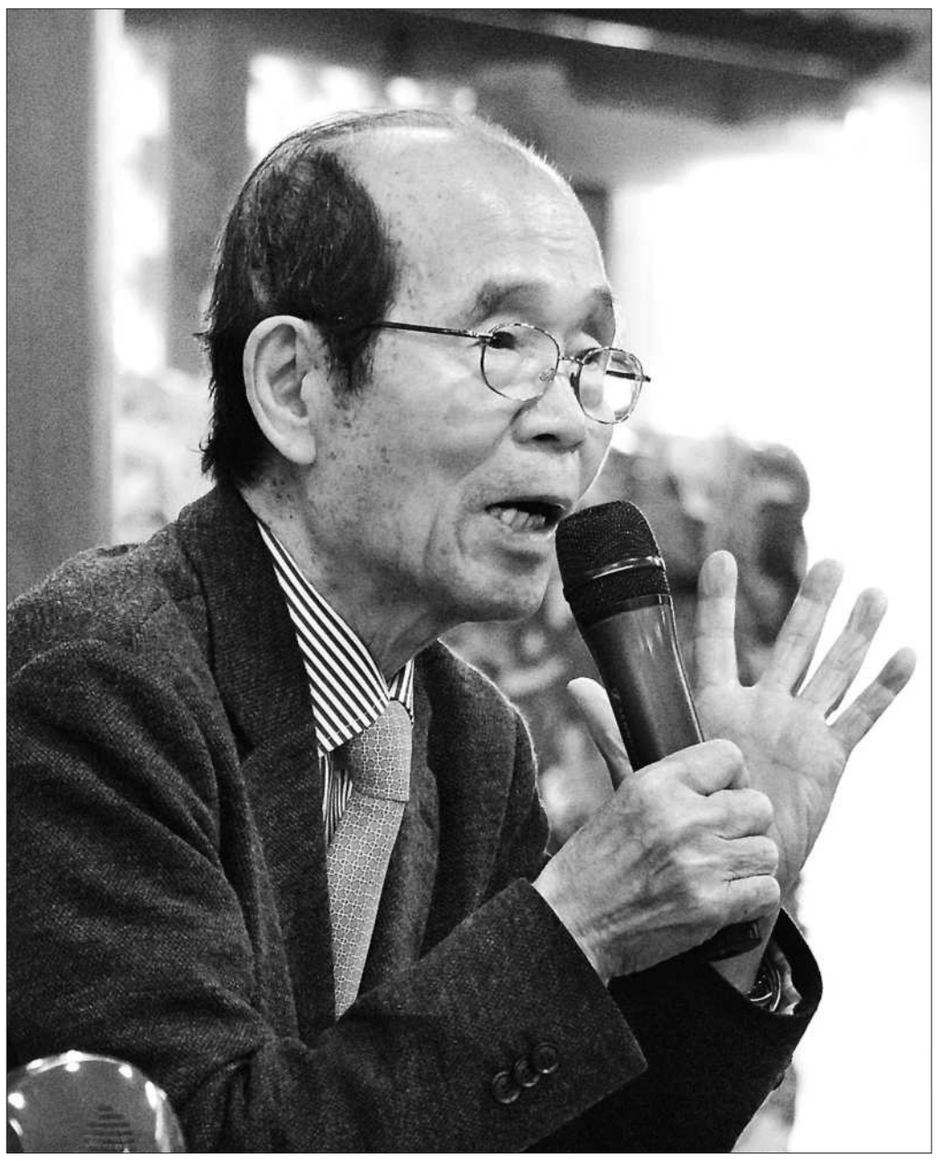
“생전예수재, 기복 아닌 課業 성찰이 목적”

봉은사 불광보조 일요법회… 생사관(生死觀)과 생전예수재(生前預修齋)

홍윤식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1700년 역사만큼 한국불교는 한국인들의 생로병사 모든 면에서 큰 영향력을 남겼다. 윤회를 알고 업장에 친숙했던 우리 조상들은 저승을 무사히 넘길 바라며 생전예수재란 의례를 발전시켰다. 지금도 사찰엔 꼭 명부전이나 지장전이 있는데 지장보살은 사후를 관장하는 보살이다. 홍윤식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는 12월 4일 봉은사 불광보조 일요법회서 ‘생사관과 생전예수재’란 주제로 강좌를 진행하고 “우리나라 불교문화를 알려면 한국인의 토착 의식을 알아야한다”며 “생전예수재는 살아있는 동안 업장을 소멸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한국인들의 죽음관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인들도 생전예수재를 지낸다면 살면서 진 빚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리=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홍윤식 교수는… 불교의례와 불교미술을 전공한 학자로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장과 박물관장, 우리나라 초대 불교민속학회 회장을 지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스토리가 있는’ 불교 문화콘텐츠 개발에 많은 공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생전예수재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해 연구 중이다.

한국인 죽음관과 함께 한 불교

오늘 모인 불자 여러분들은 〈반야심경〉을 열심히 외우면서 염불 수행을 할 겁니다. 오늘은 〈반야심경〉을 먼저 접한 분들이 생각하기에 불교와 전혀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미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생전예수재’를 주제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전예수재에 관심을 두게 된 배경부터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청년시절 불교의례와 불교미술을 전공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문화의 토착에 깔려있는 의식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선 불교의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어려운 교리 공부를 파고들어선 알 수 없는 불교 문화의 심연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전국의 사찰을 돌아다니며 불교의례를 조사하고 다녔습니다. 당시에 스님들께 의례에 대해서 물어보면 “무당이나 하는 것을 왜 공부하느냐”, “경전공부를 하거나 좌선수행이나 하지 무엇하러 의례엔 관심을 갖느냐”는 등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변하자 재밌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요즘 절에서는 불교의례 등 문화적 콘텐츠를 보는 관점이 예전 제 경험과 전혀 다르게 바뀐 겁니다. 이제 스님들은 문화와 결속되지 않은 절은 운영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절에서 문화 콘텐츠와 사찰을 연계해야겠단 생각을 하다보니 의례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됐고, 현재는 영산재와 연등축제에 이어 생전예수재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업 소멸 위한 생전예수재

그렇다면 생전예수재란 어떤 의례일까요?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궁금하지 않은가요? 예수재는 옛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의문에 나름의 답을 내리고 위안을 주는 의식입니다. 불교 사찰에는 사후세계를 관장한다고 믿는 지장보살과 지장보살을 보좌하는 시왕 등을 모신 명부전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의 마지막 남은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짐한 보살로, 지옥으로 떨어진 중생을 구제한다는 커다란 원력을 지녔습니다. 오늘 강의 장소인 봉은사엔 명부전은 없고 지장전이 있더군요. 이 지장전은 명부전과 무척 깊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명부전엔 어떤 신화가 내려올까요. 전통적 한국인의 관점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흔히들 저승에 간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또 황천에 간다고도 하지요. 명계(冥界)에 간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명부전은 명계에 관한 신화를 담고 있습니다. 저세상을 이야기할 때 주로 지옥과 그곳의 무서움에 대해 이야길 많이 하는데, 예수재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생전에 미리 준비하는 의례입니다. 또 이런 바람을 담고 있는 신앙이 명부신앙입니다.

죽음 이후를 크게 2가지 세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세상이란 극락왕생과 지옥이지요. 극락왕생에 들기 위해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계속 외워야하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에 있거나, 앞으로 지옥에 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에 대한 해답이 생전예수재입니다.

여러분, 신도로서 ‘불교를 믿는다’는 말이 성립하려면 필수로 갖춰야할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스님들께 법문을 듣고 교리에 대한 이해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리에 대한 이해만으론 불교를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행동으로 교리를 표현해야 합니다. 입으로 외는 염불, 몸으로 하는 절과 합장 등 행위적 표현을 의식 혹은 의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례를 갖추는 것으로도 모자랍니다. 이를 믿고 행동하는 구심체, 다시 말해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좋다고 떠들면 아무것도 이뤄지는 게 없습니다. 여럿이서 모여 행동할 때 그 종교는 살아서 움직이는 종교가 됩니다.

3가지 요소 중 의례부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생전예수재는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을까요? 만약 스님이 생전예수재에 대한 법문을 한다면 이론적으로 〈예수시왕생칠재의(預修十王生七齋儀)〉와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을 참고 해야 합니다. 예수재의 절차는 여러 신을 모신 각 단에 공양해 공덕을 쌓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정신적 빚과 물질적 빚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정신적 빚을 갚는 방법은 불교경전을 읽는 것이고, 물질적 빚은 돈으로 갚습니다. 그래서 예수재 참석자들은 경전을 읽고 보시를 해야 합니다. 경전을 읽는 것은 예수재를 올리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고, 보시는 종이로 만든 지전(紙錢)인 함합소(緘合疏)를 시왕전에 헌납합니다. 후에 영수증처럼 징표를 받는데 반 조각은 불사르고 남은 조각은 본인이 간직해 죽을 때 함께 묻습니다. 반 남은 함합소는 죽은 뒤 명부시왕과 조각을 맞춰보고 빚을 갚았단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사후심판 두려워한 마음이
‘생전예수재’ 의례의 근원
살아있는 동안 죄업 살피면서
사회에 권선징악 가치 퍼뜨려

시왕, 업의 심판자들

결국 예수재란 시왕님께 죄를 사해달라며 죽기 전에 빚을 갚는 것입니다. 여기엔 인간은 죽어서 시왕들의 심판을 받는단 생각이 깔려있습니다. 심판을 하는 왕 중 핵심은 염라대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염라대왕은 원래 인도에서 죽음을 관장하는 신으로 염마왕(閻魔王, Yamaraja)으로 불렸습니다. 염마왕은 사실 인간 중에서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후 “이제부터 죽은 이들은 내가 다 관장하겠다”고 나선 것이지요. 그로부터 많은 대신들을 거느리고 죽은 자들을 다스렸습니다. 이런 염마왕이 중국으로 건너와 도교의 영향을 받고, 다수의 시왕 중 한 명의 왕 자격으로 격하됐습니다. 시왕들을 보면 전부 중국 관복을 입고 있습니다. 재판 또한 중국 관료조직 개념을 받아들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시왕은 총 10명입니다. 이것은 죽은 이를 위해 지내는 천도재가 77재(七七齋), 100일재, 소상(小祥), 대상(大祥) 등 10번 지내는데 이를 심판받는 과정으로 보아 각 심판관을 10명 정한 겁니다. 염라대왕은 이 중 5번째 시왕입니다. 인도 염마왕 신화가 중국의 도교, 유교와 접합해 다른 의미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명 시왕의 이름을 알아볼까요. 시왕 중 제일 첫 번째가 진관대왕(秦廣大王)입니다. 진관대왕은 죽은 사람이 첫 번째로 맞이하는 7일 동안의 재판을 관장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을 질책해서 죄짓지 말고 잘 살라고 말해주는 권선징악적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초강대왕(初江大王)입니다. 이는 초강에서 망인이 삼도천을 건너는 것을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삼도천을 건너는 사람들은 착한사람 · 보통사람 · 죽을죄를 진 사람 3분류로 나눠 다른 다리로 건넙니다. 당연히 악인이 건너는 나루터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세 번째 왕 송제대왕(宋帝大王)은 저승에 살면서 죽은 사람의 21일째까지 관장합니다.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죄인을 각각의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맡았습니다. 네 번째 오관대왕(五官大王)은 죽은 자의 생전 죄업의 무게를 달아서 심판하는 왕입니다. 그 유명한 염라대왕(閻羅大王)은 다섯 번째 왕입니다. 염라대왕은 죄업을 보고 죽은자의 다음생을 결정합니다. 불교에선 죽는다는 말 대신 열반에 든다고 표현하는데, 사실 열반에 들어야 진짜 죽음이란 생각이 깔려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장에 의해 육도를 윤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업경대(業鏡臺)는 인간의 죄를 투명하게 비추는 거울인데 여섯 번째 변성대왕(變成大王)은 염라대왕 앞에서 업경대에 죄를 비추어 재판을 받고도 죄가 남은 사람이 있으면 지옥에 보내는 일을 맡았습니다. 일곱 번째 태산대왕(泰山大王)은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간도, 천상 등 죄인이 태어날 곳을 자세히 정해 주는 왕입니다. 평등대왕(平等大王)은 명부에서 죽은자가 맞이하는 백일의 일을 관장하고, 공평하게 죄와 복을 다스린다는 뜻에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홉 번째 도시대왕(都市大王)은 명부에서 죽은자가 맞이하는 1년째 일을 관장하고, 사람들에게 법화경 및 아미타불 조성의 공덕을 말해 주는 왕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전륜대왕(轉輪大王)은 죽은 자가 맞이하는 3년째의 일을 관장하고 죽은 자들은 최후로 전륜대왕 앞에 이르러 다시 태어날 곳을 결정하게 됩니다.

전통적 불교 신앙에서 사람들이 저승 심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은 원래부터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황천이란 장소의 의미는 단순히 죽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인도에서 염마왕이 들어오면서 구체적으로 인간들이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보내진다는 설정이 생긴겁니다. 옛 사람들은 이러한 설정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스스로 좋은 일을 얼마큼 했는지 되돌아볼 기회를 얻었을 겁니다. 생전예수재는 살아있는 동안 죄업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재는 친척, 친지들도 모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 전체에게 성찰과 공덕의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권선징악적 가치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이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들도 선조의 지혜를 빌려, 예수재를 통해 과업의 무게를 돌아보고 한 템포 쉬는 것도 좋을 겁니다.

종 도 모 집

(사)대한불교 선화조계종

종단의 발전과 사찰의 불사를 도와주시며
함께 뜻을 같이 하실 종도 및 사찰을 모십니다

종정 : 혜인 법정

● 입종서류 : 주민등록초본, 반명함판 사진,
법당사진, 수계증, 간부스님 추대장 및 위촉장
● 총 본 산 : 용선사(경북 안동시 서후면 금계2길 98-5)
● 입종문의 : ☎ 054)856-9555. 010-8571-0236

(사)대한불교 선화조계종 총무원장

서울 금강불교대학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안내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과과정안내

과정		기간	교과목	요일	자격	시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원	수강료
불교학과	초급과정	1년	불교학개론. 불교입문 천태종사. 심리상담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1교시 : 19:00 ~ 20:20 · 2교시 : 20:40 ~ 22:00	· 입학원서1부 (5,000원) · 반명함판사진 2매 ·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1년 20만원
	중급과정	1년	금강경. 불교의 신해 법화경. 대승불교	화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교법사과		2년	육묘법문. 비교종교론 천태소지관. 기신론	수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지원서 1부 · 반명함판사진 2매 · 서류전형	약 100명	학기당 20만원

원서접수

원서교부	접수 및 면접 장소 · 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23 평 택 법장사 : 031.655.9090 신 촌 성룡사 : 02.336.2052 수 원 용광사 : 031.255.4105 봉천동 명락사 : 02.889.7272 구 리 금성사 : 031.563.9364 구 로 명화사 : 02.854.0196 안 양 대안사 : 031.459.3666 망우동 삼룡사 : 02.496.3803 안 산 월강사 : 031.419.5048 성 남 화성사 : 031.745.1482 부 천 천화사 : 032.671.5353 일 산 화성사 : 031.905.2912 군 포 상락사 : 031.392.0924	• 접수 : 2016년 11월 11일(금)~ 2017년 2월 17일(금) 18시까지 • 면접 : 2017년 2월 19일(일) 오후 3시 • 장소 : 관문사 2층 면접실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 통보	•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 서울 금강불교대학 → 전화) 02-3460-5323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 마을버스 18번 •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 지선버스 3412번 (LG연구소, 우면APT에서 하차)

서울金剛佛教大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

문화재 환수 성과 '뚜렷' … 관계法 개정 필요

2016 학술·문화재 결산

2016년 불교 학술 · 문화재계는 그 성과가 뚜렷한 한 해였다. 어느 해보다 도난 및 반출 문화재의 환수 성과가 도드라졌고, 다양한 주제의 불교 인문 강좌들이 봇물 터지듯 열렸다. 반면 경주 대지진으로 인해 문화재 내진 설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올해 불교 학술 및 문화재계를 정리했다.

'깨달음 논쟁' 점화… 담론화는 '?'

2016년 새해 벽두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것은 지난해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으로부터 시작된 '깨달음은 이해를 통해 이뤄진다' 논쟁의 재점화다. 당시 범어사 주지였던 수불 스님(現 안국선원장)은 현응 스님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담은 소책자 〈조계종지의 현대적 구현〉을 발간했다.

당시 수불 스님은 현응 스님의 주장을 12개 항목에 거쳐 요모조모 반박하며 "인류 최고의 정신문화유산인 간화선법을 활용하지 못하는 현재를 비판해야지 간화선법을 문제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수불 스님에게서 시작된 '깨달음 논쟁'은 곧바로 학계로 이어지며, 상반기 이슈가 됐다. 학자들의 불교 매체 기고를 통한 논쟁이 시작됐고, 정의평화불교연대(대표 이도흠)는 '지금 여기에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세미나를 불기2560년 성도재일을 맞아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깨달음은 무엇인가'에 맞춰진 개념 논쟁을 정리하고 어떻게 21세기에 구현할 것인지를 인문학적으로 접근해 눈길을 끌었다.

〈불교평론〉에서도 '깨달음 논쟁'에 대한 특집을 다뤄 많은 관심을 받았다. 당시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는 〈불교평론〉 여름호 특집에서 '깨달음 논쟁'이 일회성 소란으로 그치지 않고 발전적 담론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깨달음 논쟁'은 상반기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침잠됐고, 담론화 등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

도난 및 반출 문화재 환수 원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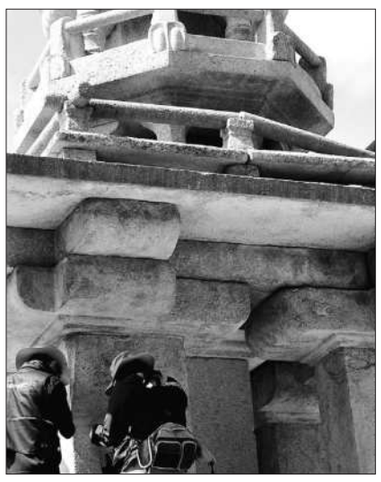
올해 불교계 큰 성과는 도난 및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가 많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가장 주목할만 한 성과는 서울경찰청 지방수사대가 도난된 불교문화재를 27년간 은닉한 前사립박물관장 A씨와 아들인 前박물관 국장 B씨 등 2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불상 11구를 되찾은 것이다. 이중에는 당장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상신해도 손색없을 정도의 불상들도 포함돼 그 의미를 더했다.

또한, 옥천사의 성과도 두드러진다. 옥천사는 올해에만 도난됐던 나한상 2구와 시왕도 1점을 환수했다.

옥천사의 문화재 환수가 눈길을 끄는 것은 학계와 종단의 꾸준한 연계를 통해 이뤄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실제, 옥천사는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와 MOU를 체결하는 등 꾸준히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송광사 일화 스님과 현봉 스님이 미국 포틀랜드 박물관에 전시 중인 '송광사 오불도'에 예를 올리고 있다. 도난문화재인 '송광사 오불도'는 한국으로 12월 8일 반환됐다.



지진 피해를 입은 국보 제20호 다보탑을 문화재청 직원들이 조사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 결합한 강좌 '강세'
경주 지진으로 내진 관심 고조
근대 고승 조명 연구사업 눈길
깨달음 논쟁 등 주목 논제 다수

옥천사 나한상 진본 사진이 본지를 통해 처음 공개됐고, 이중 2점이 제주도의 한 박물관에서 전시됐던 사실이 확인돼 나한상 환수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시왕도 역시 옥천사 성보박물관장 원명 스님과 강소연 중앙승가대 교수가 프랑스 현지까지 가서 협의해 반환하는 등 성보 환수에 노력했다.

이밖에도 송광사 오불도, 석천암 지장시왕도가 해외에서 환수돼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과제도 남았다. 도난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절도 및 은닉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문화재의 도난과 밀거래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문화재 은닉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前사립박물관장은 공소시효가 지난 문화재를 판매하려다가 덜미가 잡혔다.

또한 문화재 환수에 있어서도 종단 내 전담부서와 환수 기금 확보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주 지진과 문화재 내진 설비

지난 9월 12일 오후 8시 32분 경주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60건의 문화재(국가지정 36건, 시도지정 및 문화재자료 24건) 피해가 집계됐다. 불교 문화재 피해도 다수 나타났다. 국보 제20호 불국사 다보탑의 난간석 이탈과 양산 통도사 대웅전 · 극락보전 균열, 보물 제678호 운문사 삼층석탑의 상륜부가 탈락되기도 했다.

이후 문화재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이 불교계 안팎으로 확대됐다. 한국의 석조문화재 20%는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고, 정밀한 복원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불교계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찰의 대응 매뉴얼과 체계적인 내진 · 예측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근대 고승 연구 등 주목 논제 다수

근현대 고승 연구에 있어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백용성 스님(1864~1940)의 저서와 관련 자료를 망라한 총서 발간이다. 조계종 대각회(이사장 혜총)는 12월 13일 서울 목동 법안정사에서 〈백용성 대종사 총사〉 출간을 기념하는 고불식을 봉행했다. 근대 고승에 대한 전면적인 총서 발간은 유례가 없는 일로, 이번 총서 발간으로 용성 스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 인문학 강좌도 강세를 보였다. 참불선원(선원장 각산)은 동서양 철학, 심리학과 불교학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를 총 24강에 걸쳐 강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고, 미붓아카데미는 '불교안의 과학, 과학안의 불교'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불교계 안팎으로 주목되는 논문과 학술서도 다수 발표 · 발간됐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를 통해 "자본주의의 해체는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김호석 동양화가는 초의 선사 열반 150주년 학술세미나에서 현재 아모레퍼시픽 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초의 선사의 진영은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이모본(移模本)이라 주장해 불교계 안팎의 화제가 됐다.

또한,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는 11월 25일 열린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자신이 개발한 '촉각자극분배장치'를 통해 명상 수행법에 따라 좌 · 우뇌 활용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 눈길을 끌었다. 신성민 기자

우수 학술서 저자들의 '나의 불교학' 이란

한국불교학회, '저자와의 대화' 주제 동계 워크숍

김호성 "모든 연구, 韓불교 바탕"
이진경 "불변 없음 아는 게 불교"

우수 학술 연구서를 저술한 학자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12월 19일 '저자로부터 듣는 나의 불교학'을 주제로 열린 2016 동계 학술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힌두교와 불교〉의 저자 김호성 동국대 교수와 〈불교를 철학하다〉의 저자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김 교수는 저서 〈힌두교와 불교〉에서 힌두교 주요 경전 〈바가바드기타(이하 기타)〉가 정말로 비폭력의 문제를 다루는지를 불교의 눈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평화와 탈권력이 무엇인지 짚어냈다.

이날 워크숍에서 김 교수는 〈기타〉를 통해 새로운 불교를 만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학문적 바탕은 한국불교에 기반하고 있음도 술회했다.

김 교수는 "인도 철학과 힌두교를 연구하는 나의 학문은 매우 현실지향적"이다. "그 현실은 불교이고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한국불교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비교 연구를 통해 힌두교에 비춰 한국불교를 성찰하고 불교의 미래를 모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주목을 받았던 〈불교를 철학하다〉는 서양철학자 이 교수가 그간 공부했던 과학, 철학, 예술 등이 불교적 사유



김호성



이진경

의 흐름 속에서 섞이고 변성된 것들로, 자신도 모르게 밀려들어갔던 심연 속에서 보고 생각한 것들을 촘촘하게 담아낸 책이다.

그는 이날 워크숍에서 들뢰즈와 맑스의 사상을 불교의 연기와 공 · 존재론 등으로 풀어냈다. 한 예로 이 교수는 맑스의 역사유물론과 불교의 연기를 연결시켰다. 이 교수는 "맑스는 '역사유물론'에서 '흑인은 특정적 관계 속에서 노예가 됐고, 이 관계가 사라지면 노예가 아니게 된다'는 주장을 펼친다"면서 "'고정된 본성은 없다. 관계가 결정한다'는 맑스의 역사유물론은 불교의 연기와 맞닿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워크숍에 대해 성운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학술서적은 독자와 저자 간의 소통기회가 많지 않았다. 오늘 자리로 두 교수님의 학술 성과가 학계에 알려지고, 일반 대중과 넓은 지평에서 소통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교계 다양한 곳에서 저자와 독자 간 소통의 장이 더욱 활성화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불교학회는 향후에도 신진학자 논문 발표와 우수 학술서 저자와의 대화를 하계 · 동계 워크숍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불교리더십 최고위 24기 수료

16일 수료식… 불교대학원 발전기금 전달

동국대(총장 보광)는 "12월 16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그랜드앰버서더호텔에서 불교대학원(원장 종호) 불교리더십 최고위(CEO)과정 24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수료식은 24기 수료생 45명을 비롯해 22기와 23기 졸업생, 재학생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총장 보광 스님은 "불교리더십 최고위(CEO)과정은 이론과 수행을 겸비한 체계적 커리큘럼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명망 있는 강사님들의 열정적 강의로 불교와 경영에 대한 지식과 함께 실무를 겸비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과정을 수강하며 맺은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동국대의 발전과 밝은 미래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동국대 불교리더십 최고위과정 24기 원우들이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수료식 이후 최고위 과정 24기 원우회(회장 류황범) 일동은 동국대 불교대학원 발전기금 3000만 원을 학교에 전달했다. 신성민 기자

창사 36주년 기념 -
전 품목 25% 할인 판매 단행
※ 기간 :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5기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6년 12월 30일 금요일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조계종부산연합, 16회 승보공양대법회

성도재일을 맞아 (사)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 이하 조계종연합)가 '제6회 성도재일 기념 승보공양대법회'를 2017년 1월 8일 오후 2시 부산 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5A홀(신관)서 개최한다. 법회와 아울러 회장 이·취임식도 진행, 앞으로 조계종연합의 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마음을 결집하는 시간을 가진다.

승보공양은 성도의 길로 안내해 주는 스님들의 공덕에 감사하고 공경을 표할 수 있는 시간이다.

행사는 개인 공양과 승보공양(독송)으로 시작해 예불 및 비전 선포 동영상 상영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조계종연합은 앞으로 회장 이·취임법회를 성도재일에 맞춰 진행하고 전통으로 만들 계획임을 밝혔다. 3년 임기 동안 조계종연합을 이끌 심산 스님은 부산불교화합과 전법을 목표로 활동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불교에 줄 수 있도록 항상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을 밝혔다.

심산 스님은 "매주 실무 회의에서 현 시국에 필요한 사안을 함께 연구하고 시사 문제를 비롯해 사회현상까지 대안을 제시, 불교와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맑고향기롭게 부산, 제4회 부산자원봉사대상

(사)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이 '제4회 부산자원봉사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12월 20일 부산일보사 10층 소강당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일반부 대상은 지정순(64) 씨를 비롯해 금상 박차순(72), 은상 김순금(62), 동상 문혜선(62) 씨가 받았다. 학생부는 대상 정영빈(부산진여고 2학년), 금상 문경원(부산예술고 1학년), 은상 왕수하(주감중 3학년), 동상 김나윤(성지고 2학년)이 수상했다.

일반부 대상 수상자인 지정순 씨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18년간 총 2645회 1만46시간 동안 봉사에 전념해왔다. 호스피스, 목욕, 병간호, 식사 지원 등 왕성한 봉사활동을 펼쳐 좋은 본보기가 됐다는 평을 받았다. 하성미 기자



사)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이 '제4회 부산자원봉사대상' 시상식을 12월 20일 부산일보사에서 개최했다.

친구와 춤·노래하니 스트레스 '훨훨'

부산 파라미타, 청소년 문화 한마당 '창립 기념 예술제'



부산 파라미타가 창립 20년을 맞아 12월 17일 부산정보고 강당에서 예술제를 개최했다.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로 지친 요즘 청소년들이 오랜만에 춤과 노래, 연극, 사물놀이 등 예술무대에 푹 빠졌다. 잦은 실수도 있었지만, 청소년들은 서로 뜨거운 함성으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박수를 보냈다. 부산 파라미타가 20주년 기념해 연 청소년 예술제에서다.

부산 파라미타(협회장 백명숙)는 12월 17일 부산정보고 강당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예술제를 개최했다. 청소년에게 참된 행복을 제시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꿈을 찾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예술제는 1부 개회식으로 문을 열었다. 개회식에서는 백명숙 부산 파라미타 협회장의 인사말과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 심산 스님의 축사, 부총재 범수 스님의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다.

백명숙 부산 파라미타 협회장은 20년을 돌아보며 그동안 함께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백 협회장은 "파라미타가 창립된 지 20년이다. 사람의 나이로 말하자면 성년을 의미한다. 청소년들도 부모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었듯 파라미타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며 "역대 총재 스님들과 부총재 스님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운영위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12월 17일 20주년 기념해
파라미타 청소년 예술제 개최
연극·사물놀이 등 무대 펼쳐
자전거·경품 선물도 마련

심산 스님은 "부산 파라미타는 중앙본부와 창립년도를 같이하고 청소년의 문화 활동 교육에 이바지해 왔다. 또한 10년 가까이 전국 청소년 합창제를 열어 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모든 활동의 저력은 총재 스님과 임직원의 공덕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그동안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이밖에 파라미타의 20년 활동에 동참하며 힘을 보태준 공로에 감사하며 김석조 前 부산파라미타협회장에게 감사패를, 이욱태·하갑봉·배한욱·김재근·최낙현·김진화 역대 사무처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2부 예술제는 부산 정보고 음악밴드 '레디메이드'의 무대로 문을 열어 학산 여중의 치어리딩, 금정중 해오름 극단의 연극 별주부전, 해동중 해동공자의 사물놀이 등 9개 팀의 공연이 이어졌다. 공연 중간에는 부총재 스님들이 직접 후원한 자전거와 경품을 학생들에게 이벤트로 선물하기도 했다.

참가한 청소년들은 이번 예술제를 준비하며 친구들과 우정을 쌓고, 결과보단 과정서 더 큰 배움을 얻었단 후문이다.

이지은(성심보건고2) 학생은 "3주 정도 연습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즐거웠다. 특히 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취미도 함께할 수 있고 에너지도 발산할 수 있어 즐거웠다"며 "오늘 무대서 우리가 연습한 춤을 보여주고 서로를 격려하니 더 행복하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운문사 '제1회 법계문학상'… 대상 신이산

12월 15일 시상식 대상 상금 2000만원



운문사(주지 진광)는 12월 15일 경내 선열당서 '제1회 법계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비구니 전문 교육도량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문학을 통해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제정한 '제1회 법계문학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운문사(주지 진광)는 12월 15일 경내 선열당서 '제1회 법계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주지 진광 스님, 운문승가대학장 일진 스님, 남지심 법계문학상 운영위원장, 장영우 동국대 교수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진광 스님은 "법계문학상은 운문사 회주 법계 명성 스님의 포교 원력을 계승, 우수한 불교문학 작가를 양성하고 문학작품을 통한 문서 포교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제1회 대상 수상의 영예는 장편소설 '푼다리카'의 신이산 작가에게 돌아갔다. 소설 푼다리카는 청각 장애를 안고 절에서 자란 주인공이 불화를 배우며 '아미타내영도'를 완성해가는 과정을 그려낸 작품이다. 신이산 수상자는 "독자에게 감회를 줄 수 있는 좋은 작품을 써서 문서포교 원력을 세우신 명성 스님의 뜻에 보답할 것"이라 소감을 전했다.

이밖에 김민혁 작가의 장편소설 '49일'과 엄현주 작가의 장편동화 '산을 품은 아이들'은 각각 가작으로 선정됐다. 엄현주 씨는 "어린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널리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을 열심히 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상은 2,000만원, 가장 수상자는 500만원 상금을 받았다.

장영우 법계문학상 심사위원장은 "'만해문학상'은 문학계에서 중진 원로에 해당하는 문학으로, 많은 업적을 쌓은 분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라면, 이번에 새로 마련된 법계문학상은 불교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신인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라 설명했다.

운문사 회주이자 법계문학상 이사장 명성 스님은 "포교는 등단 법문을 통한 포교, 음악·미술 등을 통한 포교 등 여러 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도 문서포교는 시간을 초월한 영구적인 포교라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1회 법계문학상 당선작은 내년 봄 책으로 출간돼 일반 독자들도 만나볼 수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천태종 해영사, "자비 나눔 사찰로…" 천명

고아원 미애원에 장학금 전달



부산 해운대에 새롭게 불사 중인 천태종 해영사(주지 무원)가 12월 17일 불사 현장서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미애원에 장학금 35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미애원은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아동양육시설로, 한국 전쟁 때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보살피기 위해 1953년 9월에 세워졌다. 창립 당시부터 수백 명 고아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준 미애원은 2009년 철도청 조사 결과 미애원 부지가 국유지로 밝혀지면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특히 철도청은 무단으로 점유한 미애원에 변상금과 연체료로 10억 원을 요구하고 미애원 건물을 압류한 상황이다.

미애원 소식을 들은 주지 무원 스님은 지난 9월 8일 사회복지법인 미애원(대표이사 한희수)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주지 무원 스님은 신도들에게 "불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불사는 바로 인재 불사다. 좋은 일을 해야 좋은 일이 생긴다"며 함께 관심을 가지고 자비행을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해영사는 2017년 12월을 완공 목표로 매주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정기법회를 봉행중이다. 하성미 기자

조계종 10대 종정 성관 스님 15주기 추모재

12월 15일 해인사 대적광전서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당 성관 스님의 15주기 추모재가 12월 15일 해인사 대적광전서 열렸다.〈사진〉 이날 추모재에는 방장 원각 스님을 비롯해 주지 향적 스님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성관 스님의 "열반과 생사가 둘이 아니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는 육성법문이 진행됐다.

성관 스님은 1920년 3월 22일 전남 장성서 출생해 17세에 일본으로 유학, 동양철학을 공부하던 중 '조사어록'을 보고 출가를 결심했다. 1946년 해인사에 입산해 인곡 스님을 은사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계를 받았다. 1994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1999년 조계종 제10대 종정으로 추대된 바 있다. 법납 56세, 세수 82세로 지난 2001년 12월 31일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에서 "인과가 역연하니, 오로지 목숨을 걸고 참선수행 잘 하라"는 당부를 남기고 입적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구 대성사, 서문시장 조속복구 기원법회

피해 신도에 복구성금 전달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화산)가 11월 30일 큰 화재가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의 조속한 복구를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대성사는 12월 18일 일요정기법회를 맞아 경내 서원당 3층 법당서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 입은 신도와 가족들을 위로하는 '서문시장 화재상가 조속복구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대성사는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 입은 신도 15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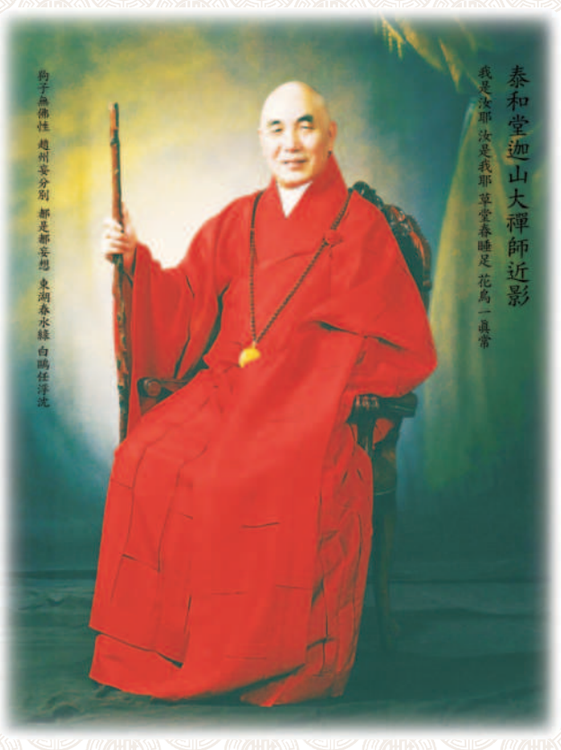
문성 스님은 "어려운 때일수록 마주보고 웃어야한다. 탐욕을 버리고, 오계를 지키며 아픈 이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공덕을 지어가는 것이야 말로 부처님 법을 생활서 실천하는 길"이라며 "꿈과 희망, 용기를 잃지 않는 천태불자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산 스님은 시장서 피해당한 신도들에게 "꿈과 신념을 버리지 말고 건강한 신심으로 부처님 전에 기도염원하며, 건전한 천태불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대성사는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재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성금 모금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석가산 대장로 경전결집 대작불사 발원

(화엄경 원만회향 신년하례회)

세계 최초로 석가산 대장로께서 경전결집의 대원을 발하고 무문관 묵언 대방광불화엄경 나무아미타불 화엄성중 칭념, 1자 1배로 제 1차 원융결사 345일에 대방광불화엄경사경을 乙亥年에 원만히 회향하셨습니다. 사경 중에는 수 없는 마장을 극복하시고 또 부사의한 기적과 상서로움이 나타나는 무량의 공덕장이었으며, 매 권마다 회향게와 발원문을 남기십니다. 금번 가산문도회에서 정유년 새해를 맞아 용맹정진하시는 큰스님의 수행을 추앙하고자 제2차 대방광불화엄경 사경 214일 58권 회향을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제방의 대덕스님과 사부대중에게 고하오니 경전 결집 대작불사의 인연에 일조하시어 복혜가 충만하시길 앙망합니다.



아 래

■ 일 시 : 불기 2561(2017)년 1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두타산 호국원융사 (충북 진천군 초평면 황골길 74-29)
■ 문 의 : ☎ 043)532-1875
■ 주 최 : 대각교단 ■ 주 관 : 가산문도회

가산문도회 회장 석운암 합장



광주불교연합회는 지산동 일대서 저소득 가구 50곳에 연탄 1만장과 쌀 2천kg을 배분했다.

1만장 연탄 훈풍, 복지 사각지대에

광주불교연합회, 지역에 자비의 연탄·쌀 전달

칼바람이 살갗을 스치는 겨울철, 난방의 어려움을 겪는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자비의 연탄'이 전달됐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와 빛고을나눔나무는 12월 16일 광주 동구 지산동 일대에서 '2016자비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열고 연탄 1만장과 쌀 2,000kg을 배분했다.

이날 나누기 행사에는 연광 스님, 보응 스님(세심정사 주지), 명신 스님(연화사 주지)을 비롯해 광주불교연합회 회원사찰 스님들과 광주불교산우회,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포교사들이 참여해 저소득 가구 50곳에 물품을 전달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은 쌀쌀한 날씨임에도 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자들을 대표해 "올 겨울은 여느 해보다 추울 것이라는 예보가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큰 무리 없이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추운 겨울이 하나의 장벽이 될 수 있다. 주변 이웃들을 살펴 건강한 겨울나기를 도와 자비의 온정을 전달했으면 한다"고 행사 의의를 설명했다.

이날 전달한 자비의 연탄은 광주 지산동 연화사를 비롯한 광주불교연합회 회원사찰들의 기금을 모아 만들어졌으며, 쌀 2,000kg은 소원정사(주지 도계)에서 기부했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김등수 불교산우회장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함께 참여해 기쁘다.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결식아동 위한 동지팥죽 보시행

(사)착한벗들, 요양원·아동센터 등에

전라북도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이주민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착한벗들(대표 회일, 참좋은우리절 주지)은 동지와 연말을 맞아 진행하고 있는 자비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복지단체를 찾아 동지팥죽을 전달했다.


빈센치오 요양원서 팥죽나눔 후 배식봉사하고 있는 봉사자들.

착한벗들은 12월 14일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국제서포터즈와 함께 진행한 동지팥죽 나눔행사에서 전주지역 결식아동 도시락 나눔사업을 하고 있는 '엄마의 밥상'에 300인분의 팥죽을 전달했다. 이어 17일에는 완주군 빈첸시오 요양원과 해님지역아동센터 등 7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400인분의 팥죽을 전달했다.

전북지역에서는 2013년부터 전북불교계가 주최하는 '작은나눔 큰 행복 동지팥죽나눔' 행사가 진행돼 왔으나 올해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자는 의견에 따라 지역 복지기관에 팥죽을 전달하게 됐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착한벗들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올해 동지팥죽나눔 행사를 예년과 달리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火魔 지나간 곳에 나투신 삼존불

정읍 내장사, 대웅보전서 삼존불·후불탱화 점안법회


내장사 대웅보전에 새롭게 점안된 삼존불 앞에서 사부대중이 삼귀의를 올리고 있다.

지난 2012년 전기난로 주변 아크현상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대웅보전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은 정읍 내장사. 복원불사를 통해 법당은 완공됐지만 아미타불과 약사여래불이 조성되지 않았던 이곳에 마침내 삼존불이 나투었다.

내장사(주지 도완)는 12월 17일 대웅보전에서 삼존불 및 후불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점안법회는 선운사 원로 재곤 스님을 증명법사로 진행됐다. 대우·법현·범여 스님을 비롯한 원로스님들과 정읍사암연합회장 원공 스님, 벽련암 주지 진공 스님, 고창사회복지관장 대원 스님, 선운사 총무국장 심학 스님, 유성엽 국회의원, 김생기 정읍시장, 유진섭 정읍시의장, 불자 500여 명이 동참해 새롭게 조성된 삼존불에 찬탄을 보냈다.

이날 법회는 불교전통방식으로 진행된 점안식에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독송, 경과보고, 인사말, 격려사, 축사, 음성공양, 발원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도완 스님은 인사말은 통해 "내장사는 최근 수년간 어려움을 겪었지만 신도님들의 도움으로 삼존불과 후불탱화를 조성할 수 있었다"며 "오늘 점안법회를 계기로 지역불자들은 물론 전국의 불자들을 위한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로 재곤 스님은 격려사서 "점안식은 부처님을 형상화한 불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매우 뜻 깊은 의식"이라며 "새롭게 조성된 삼존불과 이 인연공덕으로 많은 분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크고 작은 일들이 원만히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내장사는 점안법회에 앞서 12월 15일 내장상동 주민센터에 이웃돕기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도완 스님은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웃을 보살피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장사는 백제 무왕(600~640) 37년 영은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된 후 전각만 50여 동에 이르는 대가람이었으나 임진왜란, 6.25전쟁 등 5화 7건에 이르는 전란으로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다. 2012년 화재로 대웅전이 소실된 후에는 3년에 걸친 복원불사를 통해 정면 5칸, 측면 3칸 150㎡ 규모로 완공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스님은 불자장병들의 친구"

탑사·혜인정사·황방사, 성탄절 앞서 불자장병 위문


마이산 탑사와 혜인정사, 황방사 스님과 불자장병들이 송년 위문법회서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있다.

병신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법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자장병들만을 위한 송년법회가 열렸다.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와 대구 혜인정사(주지 진송), 전주 황방사(주지 지호)는 12월 18일 전북 임실 제6탄약창(창장 배희관 대령) 호국 장영사에서 불자장병들을 위한 송년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진성·진송·지호 스님 등 각 사찰 주지스님과 이성강 호국장영사 지도법사, 이정규 금강회장, 전북지역 포교사와 불자장병 등 200여 명이 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이원일 금산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자리서 마이산 탑사 난타봉사단은 신나는 최신 음악에 맞춰 신명나는 난타공연으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고, 최근 창단한 혜인정사 색소폰 봉사단은 능숙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한 연주를 선보였다. 진성 스님과 진송 스님은 수준 높은 색소폰 연주 실력을 선보여 장병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진성 스님은 장병들이 군생활동안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적용할 수 있는 명상방법을 지도한 후 송년법어를 통해 "스님들과 불자들은 항상 불자장병들의 따뜻한 이웃이자 친구, 가족으로 장병들 곁을 지킬 것"이라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 힘들겠지만 지금의 군생활이 전역 후 소중한 자산이 되리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이성강 지도법사는 "연말과 성탄절을 맞아 불자장병들이 소외될 것 같아 송년법회를 마련했다"며 "흔쾌히 불자장병들을 위해 마음을 내어준 스님들과 불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법회 후에는 각 중대별 12개팀이 참가한 장병 장기자랑 대회가 열렸다. 이날 장기자랑에서 수상한 오현석, 김상록 상병 등 3팀에는 4박5일의 휴가증과 상금이 전달됐다. 또 각 사찰에서 마련한 피자와 통닭, 빵, 음료수 등이 간식으로 제공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 해 정리한 전북불교 송년법회서 새해 다짐

전북지역의 불자들이 한 해를 정리하고 정유년 새해 전북불교발전을 다짐하는 송년법회가 열렸다.

조계종 17교구 금산사(주지 성우)는 12월 17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 웨딩홀에서 '2016 전북불교인의 밤'을 개최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전북사암승가회 스님들과 정동영·김광수 국회의원,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성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불자로서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서 참회하고 경건하게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홍 스님은 송년법어에서 "부처님 가르침 배우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지혜롭고 자비로운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 앞서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신도회는 2016 권역별 교구신도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호남권 교구신도회 임원들이 참석한 간담회는 포교원의 7대 종책을 공유하고 신도조직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종단신도등록사업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생명나눔본부 활동 우수자 시상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는 12월 15일 광주 수자타에서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6나눔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사진〉

1부 기념식과 2부 축하공연, 저녁식사로 이어진 행사에는 현지 스님, 지각 스님(동원사 회주), 명신 스님을 비롯해 이사 스님들과 회원들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1년간의 활동을 평가하는 시상식에서는 광주광역시장상은 김은희 후원회장, 교육감상은 정광중학교 양진희 학생이 수상했다. 이어 김명선 광주운전불자회원이 공로패, 비전사 '자비의 밭' 후원모임, 정종신 광주불교방송 기자, 이준엽 불교신문 기자, 조혜영 공예작가가 감사패를 수상했다. 시상식 후에는 조선대학교병원에 환우 치료비 200만원을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세계불교법왕청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世界佛教 法王廳

세계불교 지도자 합동금강계단 대합동 대설법전

(미얀마 삼사 아사리 주석사찰 친견 대설법전)

불조의 법맥을 전해 받은 수법제자로서 스승의 법통을 이어받아 四種教授의 가르침을 받고 四種鉤印하여 지구촌 모든 중생의 스승이 되길 기원하는 대설법전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계대화상과 3師7尊證阿闍梨께서 법을 가르치고 바른 길을 전수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는 법왕님과 법상자간에 因緣에 의해서 성립되었고 서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얽혀있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三師七尊證 阿闍梨 큰스님들을 찾아 뵙고 예를 올리는 것이 도리인지라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합니다.


世界佛教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大法會 2016.10.5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 일 정 : 2017년 丁酉年 3월 1일 출발 (6박 7일)

■ 대설법전 : 양곤 사사나 승가대학 대설법전,
미얀마 삼장법사 주석사찰 대설법전,
양곤 불교회장 주석사찰 대설법전,
짜익티오 성 파고다 대설법전

■ 참가자격
- 5회에 걸친 세계불교지도자 합도 금강계단 수계자 전원
- 수계 희망자 사부대중 누구나

■ 참가신청 (미리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02)737-5665, 010-3618-6061
봉행위원장 010-8930-1785 / 기획실장 010-4467-9600

관리본부장 : 성각 대종사 합장
존증아사리 : 혜정. 남륜. 인경. 혜담. 제성. 현담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법왕 비서실장 대승정 목탁 / 봉행위원장 대종사 대공 법혜 합장

불국토 향하는 우리 모두의 서유기는 계속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㉘ 서유기 연재를 마치며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손오공이 기가 막혀'는 서유기에 담긴 의미를 자유분방하게 이야기하듯 써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야기를 듣는 느낌으로…. 제가 이야기꾼이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어릴 적부터 동생들 모아 놓고 이야기로 울리고 웃기고 하던 것부터 시작하여, 대학 강단에 서서 '헤매니즘'으로 학생들을 좀 헷갈리게 하는데 이르기까지…. 가만 생각해보면 모두 이야기꾼 체질이 그 바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꾼으로서, 너무 무게 잡지 않고, 그냥 쉽고 즐겁게 들으면서 서유기에 담긴 의미를 새겨보는 시간이 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손오공이 기가 막혀'였습니다.

쭉 읽어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손오공이 기가 막혀'에서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니 뭐니 해도 불교수행의 방법과 의미에 관한 이야기지요. 서유기 자체가 수행기라는 말씀 계속 드렸지요? 그 수행기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쓰다 보니 수박 겉핥기로 읽으면 그냥 손오공이 여의봉 휘두르고 근두운 타고 나르는 이야기밖에 남지 않지요. 그렇게 서유기를 읽지 않고 불교 및 도교 수행의 이야기로 읽게 하는 것이 기본 목표라고 할까요? 그렇게 읽으면 서유기의 주된 배역들의 역할과 의미가 분명 드러나지요. 탐진치(貪嗔痴)의 삼독(三毒心)과 그것을 돌이켜 이루어내는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 불도를 이루어가는 다섯 가지 힘(五力)의 관계 속에서 서유기를 읽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수행과정상의 장애로 요괴가 등장하는 경우,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며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풀어내는 것…. 그런 일들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잘못된 수행, 불교의 허울을 쓴 비불교적 수행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았지요. 지금의 불교가 이런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고,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불교의 근본을 세우는 것이라 생각해서입니다. 좀 주제넘은 비판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 불교에 대한 애정에서 나온 것이라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요.

다음으로 많이 나온 이야기는 수행을 넘어서 현실의 불교 자체에 대한 비판, 그것을 넘어 종교계의 부정적인 모습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아직도 피가 뜨거운 삼쾌선생의 생각에는 우리 지금의 불자들은 부처님에게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 생각합니다. 기복 일변도의 양상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역할도 아직 매우 미흡합니다. 불국토를 건설한다는 구호는 거창하지만, 참으로 이 현실을 바꾸어 불국토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수행 따로 삶 따로라서 삶의 현장이 수행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수행! 수행!" 하면서, 깨닫기 전에는 전혀 아무 일도 안할 것처럼 구는 수행병 환자들인 것 같습니다. 또 일부는 그저 부처님 다리 잡고 늘어져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하며 부처님을 만능의 종처럼 부리려는 군상들입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부처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힘쓸 일은 무엇인가를 살펴 그러한 일들을 찾아 하는 불자들이 드뭅니다. 이런 현실 불교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이 글에 많이 드러났고, 가끔은 가장 전형적인 비불교, 사이비불교에 대한 희롱적인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종교로서 잘못된 양상은 꼭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 종교가 갖는 전반적인 문제점인 경우가 많았지요. 그러다 보니 타 종교를 겨냥한 듯한 좀 거친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애정입니다. 모든 종교가 올바르게, 그러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그것이 삼쾌선생이 바라는 세상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라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강한 비판은 해 줘야 되고, 또 반대로 비판도 받아야지요. 그런 애정과 관심의 결과이니 또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또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 이야기들의 바탕에 놓여있는 근본적인 시각이면서 또 많은 지면을 할애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불교를 세상을 건설하는 적극적인 가르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소극적이고 퇴영적인 모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삼쾌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힘주어 할 수 밖에 없는 까닭이 있지요. 삼쾌선생은 줄곧 재가불자운동에 힘을 기울여 온 전력이 있습니다. 재가불자운동이 뭐냐구요? 올바른 재가불자가 되자는 것이지요. 불교는 사부대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크게 나누면 출가자와 재가자로 나눌 수 있지요. 그런데 불교가 오랫 동안 출가자 중심으로 이어져 오다 보니, 재가자가 재가자로서의 자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출가자 흉내만 내 온 것이 천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대기설(對機說), 즉 어떤 조건에 맞게 주어진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출가와 재가의 조건이 얼마나 다른가요? 그런 다른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중심이 되고 존경을 받는 출가자의 방식을 그대로 흉내내면 어찌될까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가라는 조건에 맞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이 삶의 세계를 건설하는 주체인 재가자에 맞는 불교를 펼쳐 나가자는 것이 바로 재가불교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랄까? 그게 바로 "삶의 현장이 수행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수행을 위한 시간으로 쓸 수 있는 출가자와 달리, 현실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재가불자는 수행 자체만을 위한 시간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재가불자들이 "역시 우리는 안돼! 이번 생에서는 복을 많이 짓고 다음 생에 출가하여 수행하자!"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부처 종자를 끊는 것일 수 있다고 제가 힘주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미루면 안되죠. 바로 여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부처되는 길을 걷기로 다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미루면 그 미룬 것이 업이 되어 계속 미루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현장을 수행의 장으로 삼는 방편을 개발하고, 이 세계에 불국토를 건설하는 것을 우리의 수행으로 삼는 힘찬 움직임을 일으켜야 합니다. 삼쾌선생은 늘 이런 생각을 지니고 있답니다. 그러나 보니 불교 수행을 말하는 대목에서도, 현실의 불교나 종교 일반을 비판하는 대목에서도 이런 관점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서유기는 출가자인 현장법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모두 출가자입니다. 당연히 출가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를 재가자의 눈으로 해석하다 보니 좀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는 서유기 원래의 이야기를 비판하고 다른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비판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만, 삼쾌선생은 입장이 분명합니다. 오승은이라는 작가의 눈에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작가로서의 역량이야 삼쾌선생이 감히 명함을 내밀 수 없겠지만, 불교에 대한 이해, 종교 전반에 대한 이해, 수행에 대한 이해까지 무조건 따를 이유가 없지요. 그런 점에서는 삼쾌선생이 부적을 몰라보는 무식한 도깨비 역할을 했지요. 가끔은 이 눈치 저 눈치 안보고 무식하게 질러대는 것이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질러놓고 혹 오승은이라는 뛰어난 작가의 역량이 작동하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에고…. 마지막 이야기가 좀 재미없게 흐르는 군요. 너무 심각하군요. 그래서야 지금까지 애써 왔던 것이 아깝지요. 그러니 서유기의 주인공들 이야기 듣는 것으로 편한 마무리를 해 보기로 하지요.



그림 · 최주현

불교 수행 바로잡고,
평화 · 공존세상 만들기
욕망 돌이켜 서원 세워
지혜 · 자비길에서 봅시다!

현장법사 : **독자 여러분! 가끔은 너무 고지식하기만 한 저 때문에 갑갑한 적도 많으셨지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의 믿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원동력이라는 것에도 동의하시지요? 저는 그것 빼면 시체입니다만, 마지막 제 시체 떠내려 오던 대목 기억하시죠? 그 시체마저 버렸으니 이제는 좀 화통하고 융통성 있는 현장법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영원히 여러분의 벗이라는 점에서는 융통성 없고 완고하고 싶은 저 현장법사! 언제나 수행의 길에서 함께 해요!**

손오공 : **저는 서유기를 원숭이 사람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부처되는 것이나 원숭이 손오공이 사람 되는 것이나 같은 이야기!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 아니거든요. 참사람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원숭이 사람 되기', 서유기를 통해 성공했지요. 아니 원숭이가 부처 되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참사람 되기', 꼭 성공하세요!**

저팔계 : **저의 미욱하고 욕심많은 모습에서 여러분들 많이 위안 받으셨지유? 그렇지만 제가 사오정보다 형님이고, 힘도 더 쎄다는 것은 아시지유? 올바르게 작동만하면 누구보다 큰 힘을 낼 수 있을게 저랍니다. 마지막에 삼쾌선생이 저에게도 부처자리를 주고 싶다 하셔서 정말 힘나네유. 그렇지만 역시 정단사자 겸직으로 해서 늘 배불리 먹는 부처 되고 싶은 저팔계~ 히히. 여러분 사랑해요!**

사오정 : **저 말귀 어둡지 않다는 것은 삼쾌선생이 밝혀 주셔서 모두 아실 거구요. 그렇지만 가장 말없는 사내가 저라는 것도 새롭게 밝혀진 것 같네요. 침잠된 마음, 가라앉은 마음에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저 묵묵한 가운데 서로 통할 뿐이지요. 말없는 사나이 사오정을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조용히 감사!**

용마 : **저 잊지는 않으셨지요? 딱 한번 요괴한테 덤벼들었던 기억이 있지만, 역시 저의 역할은 불퇴전의 정진! 오로지 앞을 보고 묵묵히 나가는 저, 모든 짐 지고 가는 저, 그런 제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안되지요. 정진, 정진! 올바른 정진만이 모든 것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도 향상일로(向上一路)! 언제나 그 길 위에 있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삼쾌선생도 한마디 해야 하겠지요? 여기서 어쭙잖게 유마일묵(維摩一默) 흉내를 냈다가는 돌팔매 날아오겠지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한마디 합니다.

삼쾌선생 : **이야기꾼 삼쾌선생이 말이 막히네요.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이 새삼스럽네요. 모두 부처님 계신 땅, 우리가 그리는 그 땅으로 함께 나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 도반되어 지혜와 자비의 길로 나가는 여정, 서유기의 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그 길 위에 함께 하기를!** 〈끝〉

연등전문기업 대광연등

대광 연등은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 연등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황상권 합장

지혜의 등 · 자비의 등
연등을 밝히세요!!


연화등


권단등





만월등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6-7270 | 031)766-7271


중국 서안 구마라집 부도탑 앞에서 중국 학인 스님들이 예를 올리고 있다.


중국 서안 법문사 입구 전경. 부처님 지골사리가 봉안된 것으로 유명하다.

1천년 前 선지식들 '위법망구' 정신을 만나다

중국 선종사찰 순례
⑥ 초당사·법문사

중국 서안(西安)의 옛 명칭은 장안(長安)으로, 일반적으로 실크로드 시작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중국의 특산품이 이곳을 기점으로 서양에 전해졌고, 불교 구법의 통로이기도 했다.

서안에서 시작된 실크로드를 수많은 중국과 한반도의 동북아 구법승들은 인도로 가는 길로 활용했다. 지금은 키르기스스탄까지 5500km의 고속도로가 놓였지만 옛 구법의 길은 험난했을 것이 분명하다.

구법 루트로 실크로드가 활용되는 시대의 서안과 그 인근 지역은 불교 발전을 위한 교류의 현장이었다. 교류의 결실 중 하나는 역경이었다. 당시 역경사를 대표하는 인물은 현장(玄), 구마라집(鳩摩羅什), 구라나타(拘羅那陀) 스님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구마라집은 인도 대승불교 반야류 경전을 완전히 번역한 역경승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역경의 역사가 숨쉬는 곳

구마라집은 요즘 말로 하면, '언어학의 천재' 정도로 생각된다. 일단 아버지는 인도 출신 승려 구마라염이며, 어머니는 구자국왕의 누이 지바였다. 어머니 지바는 한번 들은 것을 모두 기억했을 정도로 영민했다고 한다.

그런 재능을 진하게 물려받은 구마라집은 7세 때 어머니와 함께 출가하고 함께 불교를 배우고 수행했다. 계빈국 등에서 초기 경전과 아비달마의 여러 논서 등을 배운 구마라집은 20세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여러 대승경론을 연구했다. 이런 그의 명성이 중국 본토에까지 알려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다. 당시 최첨단 학문이자 종교였던 불교의 고승을 모시기 위한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이다. 382년 전진왕 부견이 자신의 장수 여광에게 구자국을 정벌하고 구마라집을 데려오게 했고, 여광은 구자국왕을 죽이고 왕명대로 구마라집을 데리고 전진으로 향했다. 하지만, 양주에 이르렀을 때 부견이 요장에게 피살돼 전진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에 여광은 양주를 평정하고 후량이라는 나라를 건국한다. 구마라집도 양주에서 16년 가량을 머문다.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오기 위해 전쟁을 벌였고, 이로 인해 자신의 나라가 멸망했다는 원망 때문일까. 여광은 구마라집을 매우 홀대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비구승에게 "천재의 씨를 받아둬야 한다"며 파계를 강요하기도 했다. 결국, 통치 사상도 기반도 없던 불안정한 나라 후량은 20년만에 후진에 의해 평정된다. 후진의 왕 요흥은 정중히 예를 갖춰 구마라집을 서안으로 모셨다.

요흥은 구마라집을 국사(國師)로 예우하고 서명각과 소요원에서 경전을 번역하게 했다. 구마라집의 역경처인 소요원 일부가 현재의 초당사다.

초당사는 서안 외각 규봉산(圭峰山) 북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삼론종 발원지다. 현재는 중국 한족지역 불교 전국 중점사원이자, 섬서성의 중점 문물보호단위로 지정돼 있다.

구마라집은 초당사에서 〈대품반야경〉·〈법화경〉·〈금강경〉·〈유마경〉·〈아미타경〉·〈미륵하생성불경〉·〈대지도론〉·〈중론〉 등 94부 425권을 번역했다. 그의 번역은 지금까지도 남아 많은 불자들이 구마라집본의 경전을 공부하고 독송하고 있다.

초당사에서 가장 주의깊게 봐야 하는 성보는 구마라집의 사리를 봉안한 부도탑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혀(舌)사리'를 모신 부도다.

구마라집은 자신의 번역에 절대적인 자신감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입적하기 전 유언으로 "내가 한 번역이 잘못돼 있지 않다면, 다비 후에도 내 혀는 불타지 않을 것이다(若所傳無謬者 當使焚身之後 舌不焦爛)"라는 말을 남겼다. 실제 다비식 후 수습하니 오직 혀만이 남았다고 전해진다.

구마라집의 부도탑은 조형미가 매우 아름답다.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은 탑의 재질이다. 구마라집탑은 속칭 '팔보옥석탑(八寶玉石塔)'이라고 불리는 데 옥백·천정·묵흑·유황·담흥·천람·자·심회 등 8색의 옥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구마라집이 얼마나 귀중한 인재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법문사 지하궁전에서 나온 유물들. 법문사의 위상을 알게 한다.

초당사, 역경승 구마라집 주석처
12년동안 94부 425권 불경 역경
'혀사리' 부도탑서 역경 원력 느껴

부처님 손가락 사리 봉안된 법문사
탑 아래 지하궁전, 사찰 위상 짐작
현대 강원 건립… 中불교 굴기 목도

조계종 교육원 순례단이 찾았을 당시에는 많은 비가 왔음에도 구마라집 부도탑에 예경을 드리기 위한 중국 학인 스님 순례팀들이 왕왕 눈에 띄었다. 그들도 삼론종의 시조이자 천재 역경가였던 1천여 년 전 선지식을 기리는 마음으로 초당사를 찾았을 것이 분명했다.

동서 교류의 상징, 법문사

서안에서 동서 교류의 상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찰은 법문사다. 당대(唐代)부터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했던 곳으로 유명한 법문사는 현재 매우 크게 중창돼 있다. 본래 사찰 규모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기 위한 현대적 보궁이 별도로 마련됐으며, 그 규모는 매우 웅대하다. 법문사 주차장에서 내려서 법문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운행하는 차량으로 이동해야 할 정도다.

법문사의 최고 전성기는 당나라 때다. 당시에는 5000명의 승려가 수행을 했으며 30년에 한번씩 부처님 진신사리탑을 개방했는데 그 때마다 풍년이 들고 사람들은 화목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법문사에서 황제가 있는 시안으로 지골사리를 이운할 때면 그 길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심지어 황제도 엎드려 절을 올렸다고 한다.

하지만 당나라가 패망하면서 법문사는 쇄락의 길을 걷는다. 또한 1568년 지진으로 인해 진신사리탑은 무너졌다. 1579년에 이르러서야 현지 사람들의 불심으로 성금이 모연돼 탑이 중건됐다. 이때 건축된 것이 8각 9층 전탑(벽돌탑)이다.

최고 전성기 시절 법문사의 사리공양은 유명했다. 북위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황제의 부처님 지골사리의 영봉은 9번 이뤄졌으며, 그 중 7차례가 당나라 시기 법문사에서 봉행됐다. 그만큼 지골사리 참배는 일반인들에게는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귀중한 행사였다.

하지만 당나라 황제 의종은 법문사 진신사리탑 지하에 지하궁전을 만들고 그 안에 지골사리를 봉안하고 지하궁전은 밀봉해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다. 그 후 부처님 지골사리는 전설로 전해져 중국인들에게 내려왔다.

지하궁전의 존재가 드러난 것은 최근에 와서다. 1976년 장마에 조금씩 붕괴되던 진신사리 전탑은 1981년 8월 폭우로 한쪽이 무너져 내렸고, 결국 중국 정부는 1986년 탑을 완전 해체하게 된다.

해체와 함께 발굴을 시작한 중국 정부는 탑 아래 지하궁전을 발견한다. 이곳에서는 전설로 내려 온 지골사리 4과와 함께 백옥으로 정교하게 만든 아육왕탑, 금으로 만든 봉진신보살(捧眞身菩薩), 중국 여황제 측천무후의 자수치마, 온갖 금관과 은곽, 비취색 자기, 금으로 만든 석장(錫杖) 등 300여 점의 문화재가 쏟아졌다.

중국은 이곳을 1급 문화재로 지정하고 대대적 보수를 거쳐 1988년 진신사리탑을 중건하고 박물관 등을 새로 지어 일반에 공개했다.

사격을 대대적으로 일신한 법문사는 현재 포교와 승가 교육에도 매진하고 있다. 순례단은 법문사의 승가교육 현장도 탐방했다. 2007년 개원한 법문사 불학원은 전통 수행 공간 이외에도 인터넷 강의를 듣는 학습실 등 현대식 시설이 구비돼 있다. 현재 비구 학인 60명, 비구니 학인 80명이 수학하고 있다. 순례단이 찾았던 당시에는 방학 중이었지만, 일부 학인 스님들은 인터넷 강의 등을 들으며 공부에 여념이 없었다.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740명의 구법승들이 불법을 구하기 위해 인도로 떠났고, 생환해 돌아온 구법승은 63명이었다. 이는 전체의 8.5%에 불과했다. 공부를 마치고 나이가 들어 돌아오지 못한 구법승들을 감안해도 구법 여정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선종 순례를 통해 만난 대자은사, 흥교사, 소림사 등은 구법과 전법이 교차하는 역동적인 동아시아 불교 발전의 현장이었다. 동으로 서로 다녔던 선지식들은 동아시아 불교를 변화시켰다. '법을 위해 자신의 몸을 잊는다'는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정신을 선지식들은 그대로 보여줬다. 현대의 한국불교는 천년 뒤 후배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곰곰이 되짚어볼 일이다. 〈끝〉

중국 서안=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소원을 이루는 크리스탈 칼라 테라피

소원이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①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실하지 못한 동기(부족함 때문)
② 타이밍이 맞지 않아

'무엇을 바라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은 달라진다.

8주완성

(색) 칼라의 힘

■ 1교시 :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칼라공부
붉은색 : 뇌하수체를 자극하여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킨다.
노랑색 : 예전의 두려움, 전생부터 짐져온 불안 초조(내면에 숨어있다)
■ 2교시 : 정확하고 재미있는 아주 쉬운 숫자로 보는 사주
■ 3교시 : 다가올 건강을 지적해주고 성형을 지적, 상담해 줄 수 있는 관상학

자기 자신을 먼저알고 자신의 기운을 먼저 바꾸고
상담해 주는 당신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상담문의 : 010-5658-2657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전류가 흐르며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불교 숭앙한 인도 대표하는 詩聖

'불교로 읽는 古典' 시즌 2 – ⑬ 타고르의 저서

1913년,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인도의 시성(詩聖) 라빈드라나드 타고르(1861~1941)는 그의 마지막 생일날, 병상에서 부처님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석가모니 부처님 생각이 났다. 이는 내 마음 속에서 스스로 감지할 수 있었다. 80년 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자신 또한 이처럼 위대한 분의 아름다움과 큰 덕을 공유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타고르의 삶의 중심이 된 그의 철학, 종교사상과 문학, 음악 그리고 미술세계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인도의 근대문화가 창조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타고르는 마하뜨마 간디와 더불어 '현대인도의 아버지'로 불린다.

타고르는 원래 힌두교도 집안에 태어나 성장하면서 종교적인 이념의 차이는 있으나 불교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접하면서 2500여 년 동안 그 땅에 전래되어온 광범위한 불교문화의 영향이 깊이 잠재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타고르가 태어날 당시, 벵갈 지방인들의 의식 가운데는 힌두교에 밀렸던 불교 부활에 대한 기운이 차츰 싹터나던 전환기였음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세류와 사상의 흐름 속에서 감수성이 풍부했던 소년에서 청년에 이르는 타고르의 성장기는 광범위한 종교적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당시 타고르 집안 내에서의 〈불전연구〉가 벵갈인 학자들과의 교류와 아세아 불교국가들로의 순방 등에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이었을 것이다.

또한 광활한 인도 땅에 산재되어있는 무수한 불교성지 중에서도 특히 녹야원과 붓다가야를 찾아갔을 때의 깊은 감동을 타고르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나는 부처님의 한 평신도이기도 합니다. 나는 부처님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치아'가 보존되어 있는 성지에 가서, 또한 부처님의 발자국이 돌에 조각되어져 있음을 대했을 때, 나는 얼마나 가깝게 부처님의 존재를 감지하였는지 모릅니다."

타고르는 만년에 이르러서도 계속 부처님을 성인으로서 칭송해 마지않았다. 1901년, 타고르는 인가 한 채도 없는 황무지에 자신이 꿈꾸어오던 교육의 터전을 잡고 '숲속의 배움터'라 이름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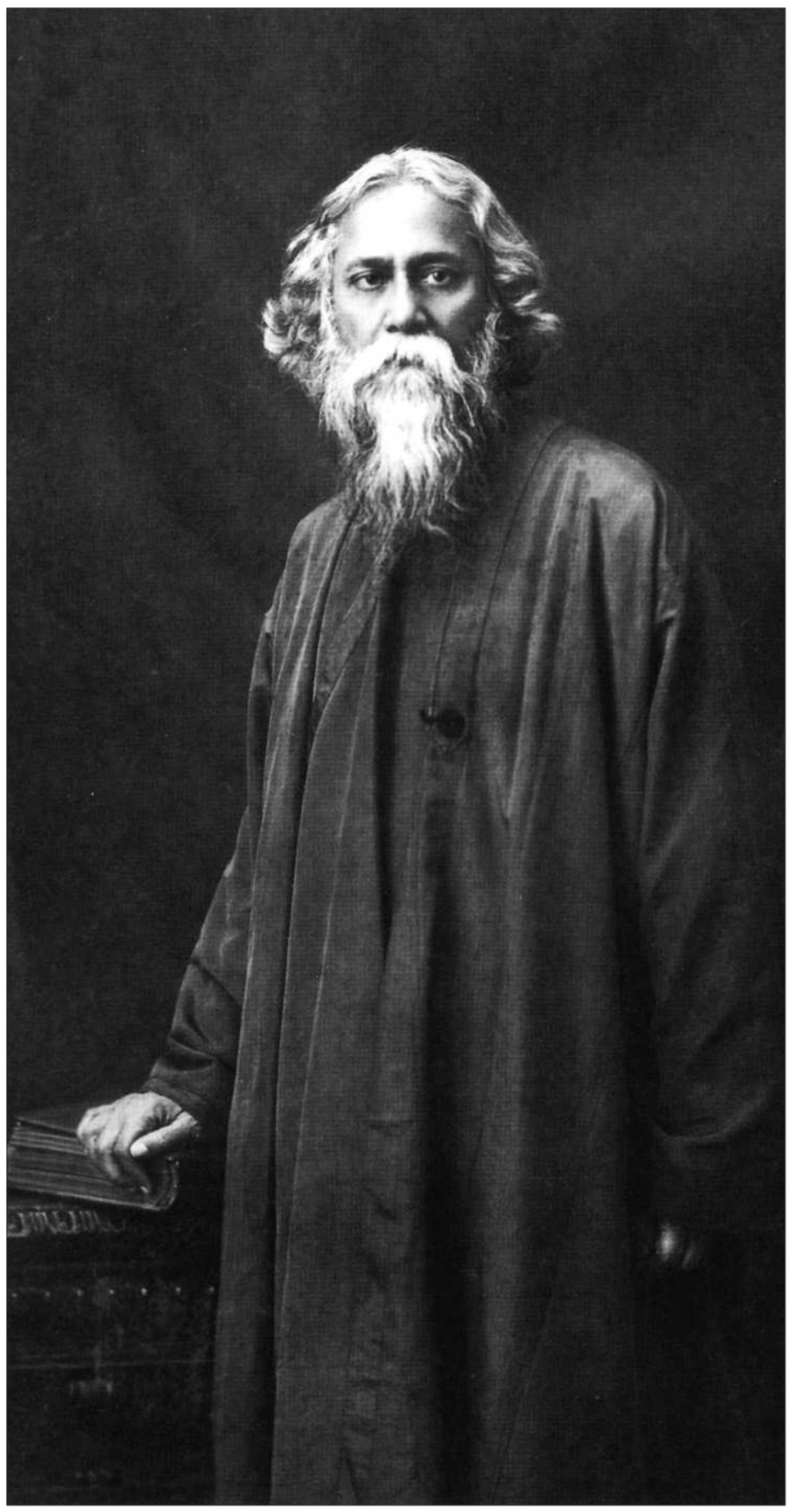
마냥 자란 풀숲 속에 짙은 초록의 잡목들이 즐비한 그 황무지는 타고르 눈에는 바로 성지로 보였던 것이며, 끝내 그의 교육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성스러운 터전으로 자리 잡았다.

타고르는 어려서 학교에 보내졌을 때, 어린이들에게 학교 교실은 감옥과 같다고 하며 등교를 거부했다. 부모님은 아들의 뜻도 모르고 계속 등교하기를 원했으나 아들은 끝내 거부했다. 타고르의 부친은 가정교사를 청하여 아들의 교육을 부탁하는 한편 자신도 아들에게 힌두경전과 종교철학을 지도했다. 이런 연유로 타고르에게는 학교 졸업장이 없다. 청년시절 영국 유학도 청강생으로만 머물렀다.

힌두의 성자들도, 또한 불교의 성자들도 그들의 교의는 언제나 무릎 밑 가까이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비밀스레 전수했듯이, 타고르의 교육이념과 방침 역시 옛 성자들의 가르침의 방침을 따르고자 하였다. 이러한 가르침이 진정한 인간교육이라는 확고한 타고르의 교육이념이었다.

지금도 타고르 대학 '뷔슈봐 바라띠-숲속의 배움터'에서는 거목이 된 맹고나무들이 울창한 교정 나무그늘 아래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원 학생들의 강의까지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뭇가지에 칠판 하나 걸어놓고 그 밑에 스승은 매우 간단히 만들어진 나무의자에 앉아 강의한다. 학생들은 모두 잔디 풀도 고르지 않은 땅위에 모여 앉아 스승의 말씀을 듣는다.

해묵은 맹고나무 가지 위에서는 가끔 심심치 않게 원숭이들이 이리저리 가지에서 가지로 옮겨 다니며 놀고 있건만 아이들은 눈길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은 항상 모든 자연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기에 별 신경들을 쓰지 않는다. 거기에 꽃이 피고 지고 새들과 나비들이 날고 있어도 그것들은 모두 당연히 우리와 더불어 존재하는 아름답고 고마운 벗들이라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그 속에서 호흡하며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보였다. 이 역시 범주(梵住)의 숭고한 정신의 경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타고르(1861~1941)의 생전 사진. 인도의 시인이자 사상가로 한국에도 친숙한 인물이다. 그는 서정시 〈기탄잘리〉(1912)로 1913년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나는 부처님의 평신도"… 저서 곳곳에 부처 숭배

자신이 건립한 '숲속의 배움터'엔 불교학과 개설

선지식들 보인 길을 묵묵히 작품과 저서에 투영

타고르는 그의 저서 〈고행자의 숲〉에서도 다음과 같이 자신의 교육이념을 피력하고 있어 독자들인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다.

"베다의 성인들만이 아니라, 부처도 수없는 맹고나무 숲에서 또는 수없는 죽림(竹林)에서 많은 설법을 하셨다. 부처에게 왕궁은 부처님의 설법 자리로는 타당치 않았다. 풀들이 가득히 우거진 자리만이 가장 어울렸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안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타고르가 위에 남긴 저술대로 공들여 세운 국제대학 '뷔슈봐 바라띠-숲속의 배움터'는 교육과목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목의 하나로 '불교학과'를 개설하여 불교연구의 대학이라는 면모를 확실히 구축해나갔다. 이렇게 하여 타고르는 다만 인도의 고대 우빠니샤드 시대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수행의 자리라든가 장인교육의 숲이란 이상만을 추구한 것만은 아니었다. 타고르는 그의 인생론에서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분명히 나는 활동을 피하고 있다. 그럼에도 말과 생각과 행위에 있어서 악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활동에 대하여만 말하는 것이다. 제자여, 나는 분명히 〈멸한다〉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거만함의 '멸', 음탕함의 '멸', 사악함의 '멸', 무지의 '멸'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타인을 용서하는 것과 사랑과 자비와 진리 등은 결코 말하여 없어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또한 부처님이 설하신 해탈의 교의는 무명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들의 의식을 어둡게 하여 우리들 자신의 자아의 한계 가운데서 의식의 출입문을 닫아버리고 마는 무지함이다. 이와 같은 무지, 즉 이와 같은 의식의 제한이 자아의 과도한 고립을 만들어내고 또한 이렇게 해서 모든 쓸데없는 오만함이나 탐욕이나 자기본위적인 인간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잔악행위 등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인간은 잠자고 있는 동안은 육체의 비좁은 활동만이 허락되는 좁은 공간 속에 갇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인간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환경과의 다양한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명의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자아라고 하는 속에 갇혀있는 것이다. 의식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지고의 실제로써는 충분히 눈떠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의 실체를 알 수 없는 것이다."

타고르는 어느 날, 벵갈 지방의 시골마을에서 길을 걷는데 우연치 않게 어느 종파엔가 속한 듯한 고행자 두 사람을 만났다. 그는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느 종파에 속해 있나요? 그리고 그 종파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겠습니까?"

그중 한 사람이 좀 주저하고 있다가, "그것은 간단히 한 마디로 설명할 수 없다"며 사양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달랐다. "아니죠,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우리들 종교상의 스승님의 지도하에 자신의 영혼을 알 수 있는 길을 먼저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우리들 자신 혹은 정신 속에서 '지고의 혼'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고르는 "그렇다면 어찌 세계 모든 곳에서 설하지 않는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목이 마른 사람들이 혼자서도 강가를 찾아가겠지요"라고 답하자 타고르는 다시 또 질문했다.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그러자 그는 부드럽고 선한 미소를 지으며 불안이나 성급함, 조급함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자신 있게 답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확실히 찾아올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 우리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길은 침묵 가운데서도 성인들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자신의 정신세계를 곧게 정화시켜나가는 길이 바로 자신이 진정으로 희구하고 기원하고 염원하는, 진정 밝고 맑은 열반으로 이어져가는 길(道)이라고 타고르는 스스로 설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도 성불하신 석가모니의 한 신도라고 감히 설파하며 부처님 말씀에 동의하고 위안을 받았다는 기록은 우리 가슴에 긴 여운을 남기고 있다.



〈끝〉

김양식(시인 · 인도박물관장)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청견스님의 천만배 완결

깨달은 절수행이란?

다르마킹칼리지 (절수행교육)

◎ 완벽한 : 표정, 자세, 동작, 호흡법, 동작알아차림, 감사염송법 텅빈 고요 삼매체험
◎ 순간 찰라 번뇌 망상, 잡생각 싹 끊는 비전
◎ 순간 찰라 마음이 크고 넓고 높게 큰마음 되는 비전
◎ 저절로 자동단전복식호흡의 비전
◎ 우주 태양+지구 땅의 기운 초고속 충전 비전
◎ 순수의식 참마음 참나 불성 초견성 비전

※ 상기 교육 마스터한 수행자에겐
◎ 스트레스와 부정적 맘으로 자율신경 무너져 심장 쿵쿵 뛰고 숨은 거칠고 공격홀몬 쏟아져 온몸 지배하는 병불행지옥 순간을 극복하는 지혜의 비전(10초~20초)
◎ 신명나는 인류최고의 가장 쉽고 온전한 빠른 요지부동 와선명상삼매를 체험케 함

절교육일정 :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 ~ 3시30분 (1일 3명 예약)
(깨달은 절수행이란? 책 읽고 홈페이지 참고하고 동참 요망)
절교육대상 : 상위 1% 수험생, 고시생, 명문대생, 한의사, 연구원, 벤처 CEO, IT연구원 예술인, 특별 우선 교육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신지2리 1101-1)
문 의 : 010-3487-0035 www.법왕정사.net

깨달은공동체 법왕정사 한불수행문화연구소

그대는 자비보살

대구 영산합창단

하모니에 자비와 나눔을 담다…



영산합창단은…2008년 6월에 창단됐다. 이후 합창단이 없는 영세한 사찰의 개원법회, 수계법회, 수륙재, 봉축 점등 법회, 기공식 등 다양한 불교행사에서 음성공양으로 봉사하며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대구 지하철 참사 추모제에서 유가족을 위로하는 등 사회적 아픔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대구교도소에서는 찬불가 교리 시간을 진행하고, 혼성중창단을 조직해 교도소 법회에 활력을 심어주고 있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별을 노래하고 아픔을 호소하고 여러 장르에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한다 해도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다. 참된 사랑에 갈증을 느끼는 중생들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음성공양은 그래서 더 따뜻하다. 찬불가는 부처님의 자비심을 음절 마디마디에 넣어 아픔을 간직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는다. 그렇기에 '음성으로 공양을 올린다' 고 표현하는 것일 게다.

대구시에는 독특한 합창단이 있다. 바로 영산합창단(단장 최흥철)이다. 40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30여 명의 여성불자들이 모였다. 그런데 이 중 성악전공자는 없다. 이들은 '일반 주부' 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하지만 영산합창단은 교도소 수용자들과 혼성합창단을 만들고 400여 명의 재소자불자를 700명까지 늘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것도 고작 5년 만에 이룬 성과다. 대구 교도소 내에서 대통령이라 불린다는 최흥철 단장은 그 비법을 '진심' 이라고 강조했다. 진심을 담은 음악이 마음의 빗장을 열어 환하게 했다. 그 진심을 듣기 위해 12월 20일 대구 통섭불교원 법당을 찾았다.

음악으로 짓는 불국토 발원

검은 벨벳드레스를 입은 20여 명의 여성불자들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다. 지휘자의 손짓에 맞춰 연습하는 곡은 '오늘은 기쁜 날' 이다. '가이없는 시방국토 장엄하오며 도솔천 내원궁 천동천녀가 꽃비 내려' 라는 가사와 함께 그들의 얼굴이 벌써부터 밝다. 다음 날 있을 인근 사찰 주지 스님의 취임법회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부를 곡이라고 했다. 이어 찬불가 '목탁' 과 '아름다운 인연' 을 부르며 연습을 마무리했다.

영산합창단이 여타 합창단과 다른 점은 재적사찰이 없다는 것이다. 재가자들이 모여 만든 합창단으로 합창단이 없는 영세한 사찰을 찾아 무료로 음성공양 봉사를 올리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래서 주지 취임법회뿐 아니라 49재, 개원법회, 수계법회, 송년법회, 수륙재 등 크고 작은 행사와 법회에 맞춰 전국 곳곳의 사찰을 찾는다. 대부분의 대형사찰은 소속 합창단이 구성돼 있기 마련이지만 작은 말사는 합창단 하나 꾸리기가 버거워 영산합창단의 봉사가 더욱 값지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자립·봉사로 세상 맑혀

2008년 6월, 15명 모여 창단

영세한 사찰서 무료 음성공양

재적사찰 없이 후원·회비 운영

봉사로 삶의 행복 찾은 단원들

그렇게 방문한 사찰에는 영산합창단 단원 수보다 법당 안 불자들이 오히려 더 적은 경우도 허다했다. 하지만 영산합창단은 대중의 많고 적음에 얽매이거나 이를 구별하지 않았다. 오직 1명이라 할지라도 1천명의 사람을 만난 듯 인연을 지중하게 여긴다고 최흥철 단장은 말했다.

"대부분의 사찰에서 직접 합창단을 운영하고 싶어 하지만 생각보다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가서 법회에 참석하고 가장 어울리는 곡으로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눕니다. 부모님을 잃은 불자를 위해 49재에 참석해 음성공양을 올리면 참석자도 울고 단원들도 눈물 흘릴 때가 많아요. 노래를 잇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죠. 하지만 저희 노래를 듣고 정말 감사해 합니다. 정성을 다해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이 잘 전달된 거죠. 이렇게 법회를 장엄하고 부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명 남짓한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 첫발을 내딛은 영산합창단은 2008년 6월 창단됐다. 최 단장은 자신의 소속 원찰이 대구 남구 대명동의 불광사라고 소개했다. 그곳에서 합창단장을 8년 동안 맡아 역량을 키웠다. 그리고 대구불교방송 합창단에서 활동하다 예기치 못하게 해체의 아픔을 겪었다. 그 가운데 만난 불자들과 의기투합해서 영산합창단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 고향이 충청도 부여입니다. 정말 시골이지요. 하지만 부모님 덕분에 첼로를 전공할 수 있



음성공양 봉사로 세상을 '환하게'

法音으로 알린 부처님 가르침
대구 교도소서 정기봉사 펼쳐
찬불가로 교리 전하며 포교해
재소자 불자 확대에도 큰 기여
"진심 담아 佛法 전파에 주력"

었어요. 농사를 힘들게 지어 시골에서 음악을 시켜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의 은덕이 더욱 깊이 느껴졌지요. 그래서 사회에 회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구불교방송 합창단이 사라지면서 음성 포교로 봉사할 방법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의기투합해 만들게 된 것이 지금 영산합창단입니다."

합창단 구성 소식에 최 단장과 인연이 있던 불자들이 하나 둘 모여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작 단원은 모였지만 지도를 해줄 지휘자와 연습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런 사정을 알고 주위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최 단장은 쉽지 않았던 영산합창단 창단 과정을 부처님 가피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처음엔 지휘자와 반주자가 오셔도 차비 외엔 드릴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피아노가 있는 공간도, 연습할 장소조차도 없었어요. 하지만 대구시립합창단의 임소연 지휘자님이 흔쾌히 지도에 응해주셨어요. 처음 시작하는 저희에게 무상보시로 봉사해주셨지요. 그리고 경산시립합창단 임제진 지휘자님을 비롯해 지금은 전재은 지휘자님까지 이분들의 도움 없이는 성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 피아노를 맡고 있는 김지영 반주자도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온 인재에요. 연습장소가 없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방황하고 있을 때도 통섭불교원 법당을 김성규 원장님이 빌려주셔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 과정을 부처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합창단 봉사활동을 '회향'이라고 말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회향할 것이 더욱 많아진다는 최 단장이다.


영산합창단을 이끄는 최흥철 단장.


지난 10월 동국대 서울캠퍼스 본관 중강당서 열린 제1회 도솔전국불교합창대회에 참가한 영산합창단. 이 대회서 장려상을 수상해 실력을 인정받았다.



지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대구교도소 광명사에서 음성공양을 올린 영산합창단.

아픔을 위로하고 노래하며

영산합창단 단원들은 대부분 서로 다른 소속 사찰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영산합창단을 통해서 사찰을 벗어나 다양한 봉사 기회를 갖고 더 널리 펼칠 수 있음에 감사했다. 물론 음성공양을 통한 봉사는 늘 기쁨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입술을 떼기조차 힘든 아픔의 순간을 겪은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맞잡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2003년 2월 18일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은 대구 지하철 참사는 사망자 192명 등 340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였다. 우울증을 앓던 50대 남성의 방화로 시작됐지만 무책임한 지하철 공사의 서툰 위기 대응능력과 전동차 내장재 불량 등 전반적인 안전망 문제가 낳은 인재(人災)였다. 아직도 사망자의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산합창단은 2010년부터 대구 지하철 참사 추모제를 찾는다. 그리고 유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들의 아픔을 살피고 추모곡을 부르며 함께 눈물 흘린다. 최 단장은 유가족이 느끼는 상실감에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처음 저희를 지도하셨던 임소연 지휘자님의 조카 분도 참사 희생자였습니다. 추모제에서 유가족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신지 느껴져요. 저도 아이가 있는 부모인데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 노래 부르면 사실 끝까지 곡을 이어 갈 수 없습니다. 모두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 흘리기 때문이죠. 그래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에 최선을 다해 매년 추모제를 찾고 있습니다."

영산합창단의 또 다른 활동으로 눈길을 끄는 것은 대구 교도소 봉사. 2011년 봉사할 곳을 찾던 합창단은 교도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할 것을 제안받았다. 당시 교도소에 대한 선입견으로 선뜻 나서지 못했지만 단원들은 함께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대구 교도소 내에 있는 광명사 법당을 방문해 찬불가로 교리 수업을 진행했다. 교리를 찬불가로 설명한 것은 대성공이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을 음악에 담아 전하자 재소자들은 편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후 지금까지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교도소를 찾아 찬불가 교리 수업을 진행한다. 2012년에는 재소자 20명을 더해 혼성합창단도 만들었다. 교도소 내 광명사 행사에서 혼성 합창단은 음성공양을 담당하고 있다.

"타 종교와 비교했을 때 교도소 내 불교의 역할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단원들과 함께 불교를 조금이라도 더 잘 알리고자 노력했어요. 그런데 몇몇 분들은 교도소가 아닌 다른 곳에도 봉사할 일이 많은데 하필 교도소에서 봉사하느냐는 답답한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어두웠던 얼굴이 밝아지고, 환하게 웃으며 반기는 모습을 보면 그런 말은 아마 못할 겁니다. 한 번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지 않는다면 불교의 자비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매달 넷째 주 금요일 혼성 합창연습까지 한 달에 2번 정기적으로 교도소를 방문하는 영산합창단은 항상 떡과 우유, 각종 생필품까지 마련해간다. 봉축 때는 연등을 달고 연말에는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영치금으로 전달하고 있다. 행사에서 받은 후원금과 회원들이 내는 회비는 매달 80만원 넘게 드는 봉사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 단장은 교도소 봉사의 가장 큰 성과가 재소자들의 마음을 연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음과 달리 이제는 환한 미소로 단원들을 맞이해주는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다고 한다.

봉사로 얻은 삶의 활력

처음에는 노래하는 것이 좋아서 모인 단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곳에서는 얻지 못할 기쁨을 발견한다고 입을 모았다. 음성 포교를 위해 찾은 사찰에서 많은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며 삶의 난제를 푸는 열쇠를 발견하기도 했다.

주미숙(49 · 대구 동천동) 부단장은 "사찰을 찾아가 스님들의 법문을 듣다가 마음이 눈 녹듯 밝아진 적이 있었다. 1년 넘도록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법문에서 느낀 게 많았다"고 강조했다.

주 부단장은 7년 전 음성 포교를 하고자 찾은 영천 봉림사 주지 스님의 모친 49재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되새길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법문을 듣고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그 이후 지금까지 무척 잘 지내고 있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봉사에 뜻은 있었지만 불교가 어렵게만 느껴진 한 단원은 음성포교 봉사를 통해 부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했다.

소프라노를 맡고 있는 이현숙(43 · 대구 평리동) 단원은 "법당 향 냄새가 어색하고 절에 가면 무섭다고 느낄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절 행사를 찾고, 직장도 봉사 시간을 고려해 잡을 정도로 좋다"며 웃어보였다.

악보장 김수연(43 · 대구 본리동) 단원은 "이곳에서 뵙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상을 내지 않는 게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주시는 모습에서 지혜를 얻고, 참된 도반을 만나게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뿐 만이 아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밝아진 모습 덕에 가족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을 발견했다는 단원도 있었다.

우경숙(59 · 대구 이천동) 단원은 정신지체 3급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어 삶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불심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다. 근데 찬불가를 부르면서 환희심에 눈물이 나고 딸에게 가진 근심도 비워내기 시작했다"면서 "내가 밝아지니 남편이 간식까지 챙겨줄 정도로 가정 분위기가 달라졌다. 음성공양이 삶의 행복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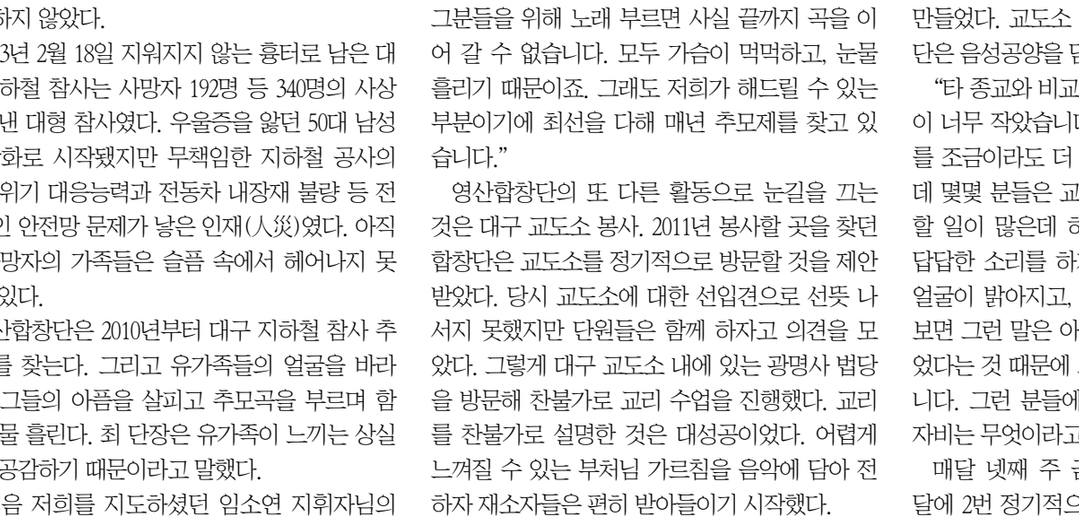
최 단장은 앞으로 음성 포교의 결과로 만들어진 수용자 합창단과 연주회를 갖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길 때마다 가질 수 있는 정화의 힘을 보여주고, 법음의 정수를 선보이고 싶다는 의지다. 또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마음을 다해 포교하고 불국토를 향해 도반들과 힘을 모으고 싶다고 했다.

"영산합창단에는 제 혼이 담겨 있습니다. 또 열정을 담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온통 도움을 주신 분만 계시더군요. 함께 해준 단원들과 저를 믿고 후원을 아끼지 않는 불광사 회주 묘허 스님, 주지 성법 스님, 제 가족들까지. 뿐만 아니라 고령 관음사 주지 심담 스님, 보림사 선주 스님, 대구 교도소 불교분과 회원 모두 든든한 기둥입니다."

한참동안 도움을 준 사람을 빠짐없이 호명하며 감사하고 싶다던 최 단장이 다시 말을 이었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전해야 한다면 나부터 바른 진심을 마음에 담아야겠죠. 저희는 진심을 모아 법음을 전달합니다. 그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곳곳에 전하는 데 진력할 것입니다." 최 단장은 지켜봐 달란 마지막 당부와 함께 두 손 모아 합장했다.

대구=하성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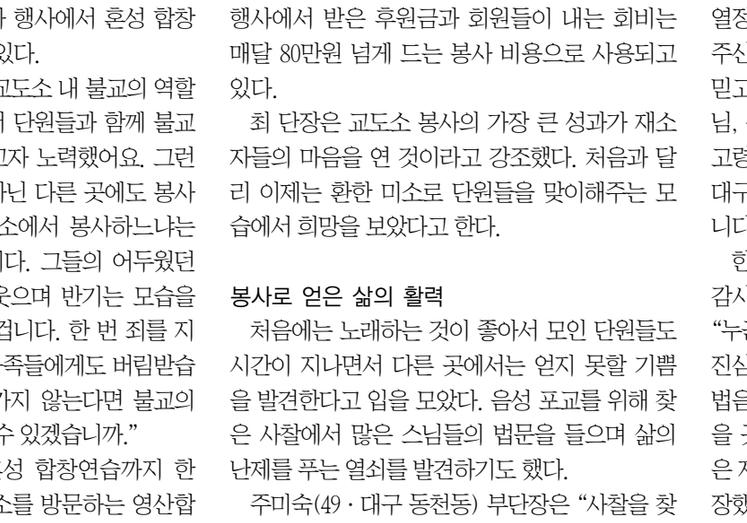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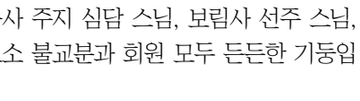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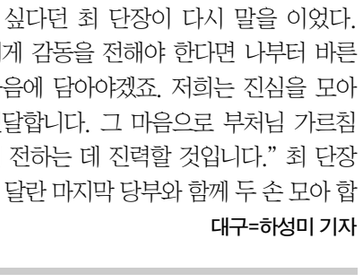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전선플러그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전 선 시 공

수행 시 찾아오는 魔章은 어떤 것일까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기신론에서 제시하는 수행의 실천덕목은 그 중심이 지관(止觀)에 있다. 이는 육바라밀 가운데 선정과 지혜를 하나로 묶어 하는 말이지만 대승경전의 중요 수행법으로 통용되는 말이기도 하다. 천태지의는 〈법화경〉을 의거하여 마하지관을 제시하였고, 〈능엄경〉의 수능엄삼매도 사마타 삼마발제의 지관이며 〈원각경〉의 삼관이십오륜(三觀二十五輪)도 지관을 응용하는 수행법이다.

기신론에서도 수행의 5문 가운데 가장 자세히 설명하는 대목이 지관에 관한 수행이다. 특히 지관을 닦을 때 나타나는 마군에 경계를 식별하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다. 이 대목을 흔히 '변마장(辨魔章)'이라 부른다. 〈능엄경〉에서 전체 10권 가운데 9권과 10권은 변마장이라 하여 수능엄정을 닦을 때 오음(五陰)이 차례로 녹아 없어진다는 내용이 설해져 있다. 색음(色陰)에서부터 시작하여 식음(識陰)이 녹아 없어진 때까지 한 음(陰)이 없어질 때마다 10가지씩의 마경(魔境)이 나타난다 하여 도합 50변 마장이라 한다.

원래 마(魔)란 범어 'mara'를 마라(魔羅)로 음사하여 줄인 말이다. 〈지도론〉에는 마에 대해 설명하기를 "지혜의 목숨(慧命)을 빼앗고 도법을 수행하고 공덕을 쌓고 선의 근본을 부수는 것을 마(魔)라 한다"고 하였다.

〈지도론〉에서는 마의 종류를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번뇌마(煩惱魔), 음마(陰魔), 사마(死魔)와 그리고 타화자재천마(他化自在天魔)라 하였다. 번뇌마와 음마는 인간에 깃들어 있는 백팔번뇌와 인간을 구성하는 오온(五蘊)을 마로 보는 것이다. 사마는 죽은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번뇌마 음마와 함께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이다. 다만 타화자재천마는 외적 세계를 지배하는 일종의 신류(神類)로서의 마이다. 타화자재천은 욕계의 가장 위에 있는 천상으로 여러 가지 쾌락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낙원으로 묘사되는 천상인데 이곳에 파순(波旬)이라는 마왕(魔王)과 그 무리가 있어 인간의 선한 일을 방해하고 성자의 법을 싫어하여 수행자를 타락시킨다 한다. 〈기신론〉에서의 변마(辨魔)의 이야기는 삼매(三昧)와 관련지어 설명되고 있다.

"삼매에 의하여 법계가 모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신이 중생들의 몸과 평등하여 둘이 없는 경지이다. 이를 일행삼매(一行三昧)라고 한다. 진여가 바로 이 삼매의 근본이다. 만약 사람이 진여를 닦으면 점점 한량없는 삼매가 생긴다.

선근 없어 나타나는 마군·외도들
마음서 기인됨 알면 경계 사라져

그러나 혹 어떤 중생은 선근의 힘이 없으면 마군과 외도 귀신들의 어지럽힘을 당하는 수가 있다. 이럴 때는 오직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타났던 경계가 곧 없어지고 더 이상 시달림을 당하지 않게 된다."

다시 선정을 닦는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마경을 설하고 있다. 천인의 모습이나 보살의 모습, 나아가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수도 있다.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 그럴듯한 법을 설한다. 육바라밀을 설하고 혹 평등하고, 텅 비고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도 없으며, 원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으며, 인과(因果)의 이치마저 벗으나 절대적으로 비워 고요하기만 한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열반이라 설하는 진짜 같은 그럴듯한 사이비성 장면이 나타나는 수가 있다고 하였다. 또 지나간 일이나 미래의 일을 알며, 남의 마음을 알기도 하며, 변재가 자유자재하고 그러한 것으로 세상의 명예와 이익을 얻으려 하며, 사람들을 화를 내다가 금방 웃게 하는 등 성격이 괴팍스러우며 무절제한 생활을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가 하면 인정이 너무 많거나 잠이 너무 많으며, 병이 자주 나며 그 마음이 게으르고 혹은 갑자기 정진을 시작하다가 이내 그만두고 신심을 잃어버려 의심과 걱정에 빠지는 수가 있다. 수행을 잘 하다가 그것을 버리고 잡된 일을 시작하여 세속적인 일에 집착하게 되어 온갖 일에 얽매여 삼매를 잃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참된 삼매가 아니라 한 것이 〈기신론〉의 변마의 내용이다. 〈끝〉

법보시는 중생의 마음 고통 없앤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⑤① 법보시란 무엇인가

法施品第十四(법시품제십사)

佛智處虛空 大悲為密雲
(불지처허공 대비위밀운)
法施如甘雨 充滿陰界池
(법시여감우 충만음계지)
四攝為方便 安樂解脫因
(사섭위방편 안락해탈인)
修治八正道 能得涅槃果
(수치팔정도 능득열반과)

…財施除眾生身苦。法施除眾生心苦。無量劫財施為得法施果。(재시제중생신고。법시제중생심고。무량겁재시위득법시과。)

번역

법보시에 대한 품 제 14.

부처님 지혜는 처처에 허공이라면 대비심은 비밀의 구름

법보시는 감로와 같아 오음(五陰) 18계(十八界) 연못 가득 채우누나.

사섭법(四攝法)을 방편으로 안락과 해탈의 인연 삼고 팔정도(八正道)를 닦으면 능히 열반과(涅槃果)를 얻는다네.

재물의 보시는 중생의 육신 고통을 제하며, 법보시는 중생의 마음 고통 제합니다.

해설

대장부론의 전체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다. 1부는 총 14품까지이며, 2부는 29품까지이다. 2부는 내용이 각 품마다 짧은 편이어서, 전체 내용은 1부가 양이 많은 편이다. 지면상 13품의 마지막 부분의 원문과 14품의 전체 내용을 싣지 못하였다. 다만 13품의 간략한 해설과 14품의 중심 내용인 게송 부분을 싣고 번역하였다.

13품의 후반부 내용은 보살은 부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또한 보살이 부처님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자비심이라고 하였다.

13품의 본문에는 보살이 자비심을 통해 '위없는 보리방편이 손에 있는 것과 같으며,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얻어 능히 다라니를 드러내고, 십지(十地)를 얻으니, 자유자재하여 응당 부처님 같은 줄 알 수 있다.(無上菩提便如在手中無異。得住無生忍者。能顯現陀羅尼得住十地。自在當知如佛)'고 하였다. 그러나 무생법인(無生法忍)이나, 다라니인 총지(摠持)나, 십지(十地)는 실체적으로 확증시킬 수 없는 내면의 경계라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내적 수행의 성취는 보살의 개인적 수행의 과위(果位)이고, 이 수행의 과위를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중요하다. 중생이 바라볼 때 부처와 다름 아닌 존재, 보살이 해답일 수밖에 없다. 부처는 바로 실천적 근간인 보살의 자비심임이 확증된 자리다.

이렇게 13품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법보시에 대한 설명으로 제바라 보살은 〈대장부론〉 1부를 끝맺는다.

지금까지의 보시는 재물보시가 중심이었다. 재물 보시는 중생의 육신의 고통을 제하는 자비심의 실천이라면 14품의 중심 내용인 법보시는 바로 중생의 마음고통을 제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중생구제가 어찌 법보시를 통한 마음의 고통을 제하는 일에 국한되겠는가 하는 강력한 반어법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의 수행자들이 법보시를 통해 중생의 마음 고통을 덜어주기는 해도 육신의 고통은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인색한 까닭이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재물 보시 없는 법보시란 새에게 있어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 것과 다름없음을.

이상으로 〈대장부론〉 1부를 마치며, 2부는 다음 기회를 기약하고자 한다. 〈끝〉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은 어머니
어머니를 불러보면 먹먹하니 울고싶다

幼年의 봄

강 건너
아지랑이
그리움처럼 아른거리고

뒤뜰의
살구꽃이
그림처럼 넉넉한데

개울가
버들피리는
배고픔으로 왜 들리는지

아이는
감나무 밑에서
허기진 봄을 줍습니다.

노랑나비가
싸리울 밖을
개나리꽃잎으로 떠다니고

뜰 가득
여린 햇살이
졸음처럼 누웠어도

토담집
긴긴 하루는
끼니 기다리는 맘처럼 왜 더딘지

아이는
빈 솥 인줄 알면서도
솥뚜껑을 다시 만집니다.

인도에 머물었을 때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쓴 글이다. 그 당시 나는 어찌나 한국이 그립고 고향 산천이 그리운지 비실비실 울먹이며 즐겨 부른 노래가 있다.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하늘 끝닿은 저기가 거긴가. 아카시아 흰 꽃이 바람에 날리니 고향에도 지금쯤 뻐꾹새 울겠네." 아마도 〈반야심경〉의 염불만큼이나 자주 "고향땅"을 그리며 울먹이던 노래였다.

해외에 머문 15년이 내 인생에 있어 반듯하게 넉넉하게 열린 세상을 안겨주었지만 눈물도, 아픔도, 쓸쓸함도, 타는 목마름도 널려 있었음을 밝혀둔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도둑을 만나고 함께 여행하던 노인 둘이 침대 밑에 삽과 곡괭이를 숨겨 나를 죽이려 했던 끔찍한 일도 겪게 된다. 말라리아에 쓰러져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설사와 심한 거식증세로 의식을 잃은 적도 있으며 티베트에서는 고산증세로 고통의 늪에 빠져 삶에 마침표를 남길법한 일도 겪는다. 그럴 때마다 절대 고독의 지친 구도자에게 힘이 되고 의지처가 되었던 것은 간절심으로 모으는 '무(無)자 화두'였고 어린 시절 어머님의 교훈적인 사랑이었다. 어린 시절, 형과 나는 남의 집 옥수수 밭에서 옥수수 두 개를 따 아궁이 불에 구워 달라며 어머니에게 내밀었던 것이다.

그때 어머니는 누가 언제 왜 옥수수를 두 개나 주었는지 따져 물었고 형과 나는 당황하여 남의 밭에서 주인의 허락없이 훔쳐 온 것이라며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단호하게 분명하게 아무리 배가 고파도 구운 옥수수가 먹고 싶어도 훔친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옥수수 따온 곳에 가져다놓고 주인을 찾아가 용서를 빌라는 회초리 같은 말씀을 남기셨다.

형과 나는 따온 옥수수 대궁이(심)에 긴 잎으로 따온 옥수수를 겨우 묶어두고 옆집의 옥수수 주인집을 찾아 눈물을 찔끔거리며 용서를 빌었던 것이다. 그때 집안으로 들어서며 우리 형제는 분명히 보았다. 부엌문에 반쯤 몸을 가린 채 흐느끼는 어머니의 모습을.

형과 나를 번갈아 안아주며 어머니는 띠엄띠엄 조용히 타이르는, 그러나 힘이 실린 삶의 좌표가 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다. "훔치지 말 것, 거짓말로 꾸미지 말 것, 배고프고 힘들어도 노력으로 이겨낼 것."

하여, 나는 옥수수의 교훈으로 훔치는 일, 거짓으로 꾸미는 일, 힘들어도 노력으로 이겨내는 일을 실천해 왔다. 완벽할 수는 없겠으나 비교적 옥수수의 교훈을 삶의 좌표로 삼아 부끄러운 흥정이나 타협을 멀리하며 고집스럽게 원칙과 기본을 지키려 노력해 왔다.

유년시절의 교육은 평생의 성공을 좌우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은 어머니이다. 어머니는 살아 움직이는 교과서이자 어둠을 밝히는 등대 같은 길잡이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이미 떠나가셨지만 부처님처럼 내 마음속에 빛으로 연꽃으로 자리한다. 어머니! 어머니를 길게 불러보면 가슴이 먹먹해 울고싶다.

심우선원 選佛場

「선불장이란」 부처를 뽑는 장소란 뜻으로 禪門의 宗主일 마조선사로부터 비롯된 말로 본 도량은 20여 년간 "돈오견성" 체험을 바탕으로 수행자를 독려, 견성해탈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벼락치듯 돈오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동정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 오매일여"**인 깊은 선정삼매를 통해 의정이 독로될 때 비로소 확철대오의 기연이 도래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법의 근원은 텅빈(空)의 자리에 있고 현대인의 모든 고통과 혼란은 공도리의 무지에서 오는 것으로... 마음이 밝아질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침이란 "여실지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으로**(단지 중생의 눈으로 實相을 경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뿐) 그것은 어떤 신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계종의 존경받는 큰 스님으로 고우스님이나 암도스님 같은 분들은 법문중에 자신의 경계를 꼭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으나 시간이 흘러가며 그분들의 진정성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전에 성철스님은 지해종사(해오자)는 간판을 내려라 하고 경책하였습니다. 깨침이란 자기가 자기를 바로 보는 것으로 올바로 깨치면 그 즉시 열반을 증득, 자기인가(證悟)를 체득하는 것이므로 최상승법을 다루는 일은 절대적 양심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여기 선지로 함께 동행하는 깨달음(돈오견성, 해탈열반)으로의 여행에 수행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031-255-0066 | 010-3045-0085

부설 태극기 안에 담긴 행복한 삶의 지혜

동양사상의 꽃인 天, 地, 人 삼재사상(명리학, 풍수학, 한의학) 醫聖 이제마의 사상의학과 사암도인의 오행침법 전수 동,서양 철학과 현대물리학을 근본도리에 회통 강의

무문관 傳法講主 釋 眞 性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능각정사
- 법 명 : 도천(황경목)
- 주 소 : 부산 서구 시약로 61-19 (서대신동 3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2자



태징



대북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17세기 중반 활동한 新발견 불모



최선일 위원의 佛母列傳

㉔ 계찬(戒贊) 스님







계찬 스님이 조성한 순천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의 개별 모습. 사진 왼쪽부터 석가불, 약사불, 아미타불.

사진 일괄 제공=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목조석가불좌상 대좌 적힌 조성묵서 일부.



계찬 스님이 만든 순천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 전체 모습.

1640~70년대 불상 조성 불사 참여

승일·응혜 계보… 전국 무대로 활동

순천 동화사 삼세불상 現 유일 작품

2011년 정밀조사하며 조성기 확인돼

17세기 중반은 시군(市郡)을 대표하는 사찰에 전각 건립과 더불어 불상이 제작되면서 수백 명의 조각승이 활동한다. 조각승들은 특정 사찰에 거주하면서 선맥(禪脈)을 따라 전국을 무대로 활동한다. 특히 1650~80년 전국에 걸쳐 많은 불상들이 제작되는데, 불상은 전각에 맞게 100cm 정도의 중형이 가장 많이 제작되었다. 이 불상 조성은 하나의 계보에 속하는 6~7명의 조각승이 참여한다.

앞으로 이 시기에 제작된 불상이 계속 조사된다면 여러 명의 조각승의 삶과 작품 세계가 밝혀질 것이다. 그 가운데 계찬 스님은 최근 기년명 불상이 발견되어 불상 양식이 밝혀진 조각승이다. 계찬 스님의 생애와 조각승이 된 과정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과 사적기(寺蹟記)를 통해 활동 시기와 조각승 계보 등을 알 수 있다.

계찬 스님이 불상 제작에 참여한 가장 빠른 유물은 1643년에 응혜(應慧) 스님과 제작한 대구 달성 용연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이다. 이 명부전 불상은 응혜 스님, 희장(熙莊) 스님, 선홍(善弘) 스님 등이 제작하였다.

그 후 계찬 스님은 1646년에 승일(勝日) 스님과 전남 구례 천은사 수도암 목조아미타불좌상과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을 조성하는데, 계찬 스님은 불상을 제작한 7명 가운데 5번째로 언급되어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스님은 1647년에 응혜(應惠) 스님과 전북 군산 불지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제작할 때, 부화승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아 1640년대에 나이가 30대 후반일 가능성이 있다.

계찬 스님은 1648년에 승일 스님이 만든 전남 강진 정수사 목조삼세불좌상에 보조화승으로, 1651년에 응혜 스님과 경남 진주 은정대 불상을 제작할 때 두 번째로 언급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1657년에 수화승으로 전남 순천 동화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을 만들고, 1671년에 응혜 스님과 전남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보살상 1구는 제주 심광사 봉안)을 조성하였다.

따라서 현재까지 밝혀진 계찬 스님의 활동 시기는 1643년부터 1671년까지이다. 계찬 스님이 1650년대 수화승으로 활동한 것을 보면, 1610년을 전후하여 태어나 1630년대에 불상 제작에 보조화승으로 참여한 후, 1640년대에 승일 스님과 응혜 스님 등과 불상을 제작하면서 재능을 인정받아 부화승으로 활동하다가 1650년대에 수화승으로 불상 제작을 주도한다. 계찬 스님은 1650년대부터 1670년대까지 경남 진주, 전남 순천, 전남 장성 등의 사찰 내 불상 제작을 주도한 것을 보면, 1660년을 전후한 시기에 주도적으로 만든 불상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계찬 스님의 스승이나 선배로 추정되는 응혜 스님은 17세기 중반에서 후반까지 활동한 조각승이다. 응혜 스님은 1639년에 청헌 스님과 경남 하동 쌍계사 목조삼세불좌상을, 수화승으로 1643년에 달성 용연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을, 1647년에 전북 군산 불지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을, 1660년에 전남 담양 호국사 목조아미타불좌상(장성 백양사 성보박물관 소장)을, 1678년에 지리산 소은난야 목조대세지보살좌상(광양 무등암 봉안)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동화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 제작에 부화승으로 참여한 인계(印戒) 스님은 1678년에 응혜 스님과 지리산 소은난야 목조대세지보살좌상(광양 무등암 봉안)을, 1689년에 수화승으로 전남 여수 흥국사 53불좌상을 제작하였다. 이외에도 사민(思敏) 스님은 1689년에 인계 스님과 여수 흥국사 53불좌상을 조성하였다.

계찬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현진(-1612-1637-)→ 승일(-1622-1670-)→ 응혜(-1639-1678-), 계찬(-1643-1671-)→ 인계(-1651-1714-), 사민(-1657-1689-)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계찬 스님은 17세기를 대표하는 조각승 현진 스님의 계보로, 승일 스님과 응혜 스님을 이은 조각승이다.

계찬 스님이 수화승으로 만든 유일한 불상은 전남 순천시 별양면 개운산에 자리 잡은 동화사(桐華寺)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다. 동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 19교구 화엄사(華嚴寺)의 말사로,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창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혁을 알 수 있는 문헌이 남아있지 않다. 동화사는 정유재란 기간에 파괴되어 1601년에 신총(信聰) 스님이 대웅전을 건립한 후, 1630년에 계환(戒環) 스님이 중창하였으며, 1662년에 희안(熙安) 스님과 법홍(法弘) 스님 등이 호선루 건립과 기와 불사를 하였다.

대웅전 내 수미단(須彌壇) 위에 봉안된 목조불상은 석가불을 중심으로 아미타불과 약사불로 이루어진 삼세불(三世佛)이다. 이 불상은 2011년 8월 9일에 사찰 측의 의뢰로 충북대학교 목재연륜소재은행과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의 정밀조사를 계기로 목조불상을 만든 수종(樹種)과 연륜분석(年輪分析) 및 복장 조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불상 내에서 조성발원문과 대좌에 적힌 조성묵서가 발견되었다.

목조석가불좌상은 높이가 115cm 무릎 너비가 78cm인 중대형이다. 불상은 상체를 앞으로 조금 내밀어 자세가 구부정하다. 머리에는 뾰족한 나발과 경계가 불분명한 육계가 있고, 이마 위에 반원형의 중앙계주와 정수리에 윗부분이 둥글고 낮은 원통형의 정상계주가 있다. 타원형의 얼굴에 가늘게 뜬 눈은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갔고, 코는 원통형으로 단순하며, 입은 살짝 미소를 띠고 있다. 목에는 거의 직선에 가까운 삼도(三道)를 표현하였다.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자락은 목 밑에서 팔꿈치까지 완만한 곡선으로 늘어지고, 팔꿈치와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간다.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은 배 밑에서 한 가닥이 완만하게 펼쳐지면서 옆으로 두 가닥이 오른쪽 바닥으로 접혀 있고, 반대쪽 대의자락도 대칭을 이루듯 세 가닥의 옷주름이 늘어져 있다. 측면에 늘어진 대의자락은 어깨선을 따라 두 가닥의 옷 주름이 팔(八)자형으로 완만하게 펼쳐져 내려오다가 앞 주름은 손목으로, 뒤 주름은 엉덩이 방향으로 접혀 있다. 가슴에 입은 승각기는 상단을 수평으로 접고 앞으로 둥글게 처리하였다.

석가불은 오른손을 무릎 밑으로 내려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하고, 왼손을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인(手印)은 조선후기 기년명 불상 가운데 석가불이 주로 취한 자세이다. 협시불인 아미타불과 약사불은 본존인 석가불과 같이 조선 후기 전형적인 불상 양식을 취하고 있다. 석가와 약사불은 이목구비에서 풍기는 인상이 비슷하지만, 아미타불은 둥근 얼굴형과 인상에서 앞에서 언급한 불상과 차이가 있다.

또한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자락은 석가불과 약사불이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완만한 곡선으로 처리하였지만, 아미타불은 가슴까지 내려와 물방울 같은 U자형으로 마무리하였다. 왼쪽 무릎을 감싸고 있는 소매 자락은 석가와 약사불이 조각되지 않은 반면, 아미타불은 끝자락이 날카롭게 처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아미타와 약사불의 배 부분에서 편삼과 대의자락이 접히는 표현이 나타나야 하는데, 약사불 같이 거의 수평으로 단(段)을 이루며 접힌 형태는 조선후기 기년명 불상에서 볼 수 없는 요소이다.

특히, 협시불이 좌우대칭을 이루지 않고, 오른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엄지와 중지를 맞댄 자세와 방향도 같아 기존의 삼존불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요소이다. 따라서 목조삼세불좌상은 신체에서 얼굴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착의법이 약간 달라 석가와 약사불은 같은 수화승이 만들었지만, 아미타불은 조형 감각이 다른 작가가 주도적으로 만든 불상일 가능성이 높다.

동화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은 각각의 불상에서 조성발원문과 대좌 묵서가 남아있는데, 석가와 약사불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은 연화질(緣化秩)과 시주질(施主秩)이 각각 1명씩 다르지만, 아미타불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과 비교해 보면 재목(材木), 복장(腹藏), 개안(開眼), 칠보(七寶), 공양(供養), 면금(面金), 이면(裏綿), 오향(五香), 체금시주 등이 다르다. 또한 대좌에 적힌 묵서는 세 구가 모두 동일한 내용인데, 조성발원문과 비교해보면 화원(畵員) 마지막에 해원(海元) 스님, 별좌(別座) 마지막에 해견(海堅) 스님이 더 언급되어 대좌 조성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목조삼세불좌상의 조성발원문에 언급된 인명은 총 57명으로, 석가불(42명), 아미타불(39명), 약사불(42명)이 언급되어 있다. 불상 조성에 참여한 스님은 26명으로 재가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불상 제작의 대화사 법홍(法弘) 스님은 현판 '낙안군개운산동화사중창기(樂安郡開雲山桐華寺重 記)'에 의하면 전남 영암 출신으로 영암 도갑사, 장흥 보림사와 천관사, 광주 서석사 등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만년에 동화사에서 복원에 주력한 스님이다. 재가자 중에는 이순형(李舜亨)이 조선 시대 각 아문의 문서와 부적(符籍)을 주관하던 종육품 관직인 주부(主簿)로, 안지윤(安之尹)이 생원으로 언급되었을 뿐, 대부분 지역 주민이 불상 조성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끝〉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희소식



뱃살로 고민하십니까?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두통으로 고통받습니까?

뱃살 → 일주일 무료치료

효과 없으면 사례비 받지 않습니다.

많은 대중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두통으로 1년에 몇 번씩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 이상은 빙의에 접신되어 시달리는 것입니다. 전화만 하셔도 2분내로 고쳐드립니다. 단, 몸 자체에서 일어난 두통은 침으로 무료치료 해드립니다.

소납은 마음 먹으면 영의세계인 사차원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의 수행을 40여년간 노력하여 완공한 결과 하늘세계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는 능력의 도를 이루었고 우연히 달마대사를 가르치신 영적 스승인 사부님을 만나게 되어 특이한 신통 묘용을 전수 받았기에 모든 대중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원칙과 진리의 정법 도량입니다. (인간의 영이 하늘을 마음대로 날을 수 있는 도의 영적제자가 되고 싶은 분은 분은 연락 주십시오) (절대로 사이비가 아닙니다)

청주본산 청 심 사
청주시 상당구 당산로 83-4 Tel. 043)252-6771

서 울 법 당 주 연 정 사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143-41 Tel. 02)3392-2489

상담전화 010-3176-3458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경계에 선 인간의 고뇌들

박선하 · 이정서 작가, 스페이선+서 2인展

내년 1월 3일까지 개최

서울 삼청동 스페이스 선+은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박선하 · 이정서 작가의 2인전 '언저리'를 개최한다.

박선하 · 이정서 작가는 공통적으로 언저리, 경계의 공간을 표현하는 작가이다. 박선하 작가는 주변인의 죽음에 대한 경험을 계기로 살아있는 식물과, 죽어 있지만 살아있는 듯한 박제라는 오브제를 병치한다. 또, 직접 박제를 하면서 존재에 대해 느끼는 상이한 감정을 두 화면의 비디오를 사용하여 그 자신의 손짓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그의 작품은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모든 작품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다.

이정서 작가의 부처와 자개 작업은 한과 연민, 죽음과 삶, 깨달음과 번뇌 등 인간이 가지는 서로 다른 감각들의 경계선, 그 언저리를 형상화한다. 부처의 형상을 통해 인간 내면의 끊임없는 깨달음과 번뇌를, 자개와 같이 표현한 페인팅 작품을 통해 한과 슬픔의 언저리를 표현했다. (02) 732-0732

신성민 기자



이정서 작가의 작품 '반가사유상'

발우공양 BI, 美 '굿 디자인' 선정

그래픽 디자인 · 창의성 부문 인정받아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수암)이 운영하는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의 BI(Brand Identity)가 미국 굿 디자인 어워드(Good Design Award)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로 66회째를 맞은 미국 굿 디자인은 시카고 아테네움 건축디자인 박물관과 유럽 건축 · 예술 · 디자인 · 도시 연구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계적인 행사로 알려져 있다. 디자인 · 혁신성 · 창의성 · 환경친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매년 각 부문별 수상작을 발표한다.

올해는 전 세계 46개국서 출품된 900여 점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중 발우공양 BI는 현대적이면서 전통불교 정신과 이미지를 잘 담고 있다는 평과 함께 그래픽 디자인, 창의성 부문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측은 "사찰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BI 디자인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한국 전통불교에 간직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발우공양을 통해 사찰음식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BBS,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방통위 의결… "종교방송 후원금 비중 확대해야"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이 정부로부터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2월 14일 제70차 회의를 열고 개최하고 12월 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재)BBS불교방송 등 33개 지상파사업자 13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 · 의결했다.

BBS는 지난 2013년 방통위로부터 '재정악화'라는 이유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으나 경영개선과 지속적인 영업 · 후원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확보했다.

이번에 재허가된 지상파사업자들은 평가결과 650점 이상의 평가 점수를 받은 곳들이다. 허가 유효기간은 BBS불교방송을 포함한 32개사는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도로교통공단 교통포항FM은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이다.

방통위는 종교방송에 대해 방송광고시장의 감소에 따라 포교활동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 후원금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권고했다.

또 재원구조의 변화와 함께 외부 감사기능 도입 등 경영에 대한 공적 감시기능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형 전시 '활발'… 창작 공연은 '어디에'

2016 문화 결산

韓日반가사유상 · 백제展 등
대형 전시는 잇달아 열려
불일미술관 신진 발굴 활력

스님 웹툰 작가 활동 눈길
음반 · 공연은 전반적 저조해
사찰음식점, 미슐랭 등재도





스님들이 창작한 카툰작품들. 사진위는 지찬 스님의 '어라 스님', 아래는 서주 스님의 '다워니 스님'.



국보 78호 반가사유상. 일본국보 반가사유상과 처음으로 합동전시됐다.



경허 선사 일대기를 그린 연극 경허—Empty Mirror'. 이를 제외하면 신작 불교 창작극은 찾기 어려웠다.

2016년 한해 불교 문화계는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는 평가다. 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 전시는 활발했지만, 불교계 안쪽에서 큰 이슈를 가진 대형 기획 행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공연계에서도 스테디셀러 연극 '이뭣꼬'는 계속 무대에 올랐지만, 새로 만든 창작극들은 거의 없던 것이 사실이다.

불교 관련 대형 전시 잇달아

올해 불교계 문화 행사에서 가장 도드라진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불교 관련 대형 전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특별전 '한일 국보 반가사유상의 만남'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3주간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했다. 2015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기획된 특별전은 한국의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과 일본의 국보 주구사(中宮寺) 반가사유상이 최초로 한 자리에서 만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일본 주구사 반가사유상 개안법회는 허용하고 한국 국보 반가사유상에는 헌다 의식을 불허해 문제가 돼 의미있는 전시의 옥의 티가 됐다. 결국 이영훈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와 해명을 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내년도 1월 30일까지 개최하는 특별전 '세계유산 백제' 역시 불교 관련 전시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열리는 특별전은 왕흥사지, 미륵사지, 왕궁리 사리장엄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최초의 전시여서 화제가 됐다.

20주년 맞는 불일미술관 '일신'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은 서울 법련사 산하 불일미술관은 기념사업으로 신진작가 발굴 사업을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간 젊은 신진 작가의 경우 불교 미술이라는 특수성과 재원 부족으로 전시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불일미술관이 전시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신진 작가들의 전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는 가톨릭 인천교구 문화원 · 음악원과 함께 12월 29일까지 '불교 · 가톨릭 미술인 만남' 전시회를 개최했다.

'불교와 가톨릭 미술인의 만남' 전시회는 2003 · 2004 · 2007년 세 차례 열린 바 있다. 앞선 3번의 전시회는 종단 차원에서 이뤄진 전시회였지만, 법련사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일반 신도와 미술인이 요청해 성사된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

창작 공연 저조 · 웹툰 활성화

음반이나 공연계는 전반적으로 침체됐다. 부처님오신날이나 개산대재에 진행되는 산사음악회와 관련 단체들의 공모행사와 정기 공연들을 제외하면 특별한 공연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나마 경허연구소가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동국대 이해랑예술극장에서 경허 선사의 일대기를 그린 연극 '경허-Empty Mirror', 그리스 비극 엘렉트라를 불교적으로 옮긴 '엘렉트라 인 서울' 정도가 새로 선보인 불교 창작극이었다.

그나마 시대에 맞는 문화콘텐츠 발굴이 활성된 것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SNS를 중심으로 스님 작가들의 웹툰 창작이 눈길을 끌었다. 어라 스님 캐릭터로 유명한 지찬 스님은 자신이 작품을 모아 〈어라, 그런데로 안녕하네〉를 출간했다.

동자승 다워니로 작품 활동을 하는 서주 스님은 SNS와 각종 전시회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만, 하나의 콘텐츠로 여러 영역의 상품으로 확장시키는 '원소스 멀티유즈' 마케팅은 불교계가 고민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이 발표된 미슐랭 가이드북 서울편서 1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것도 의미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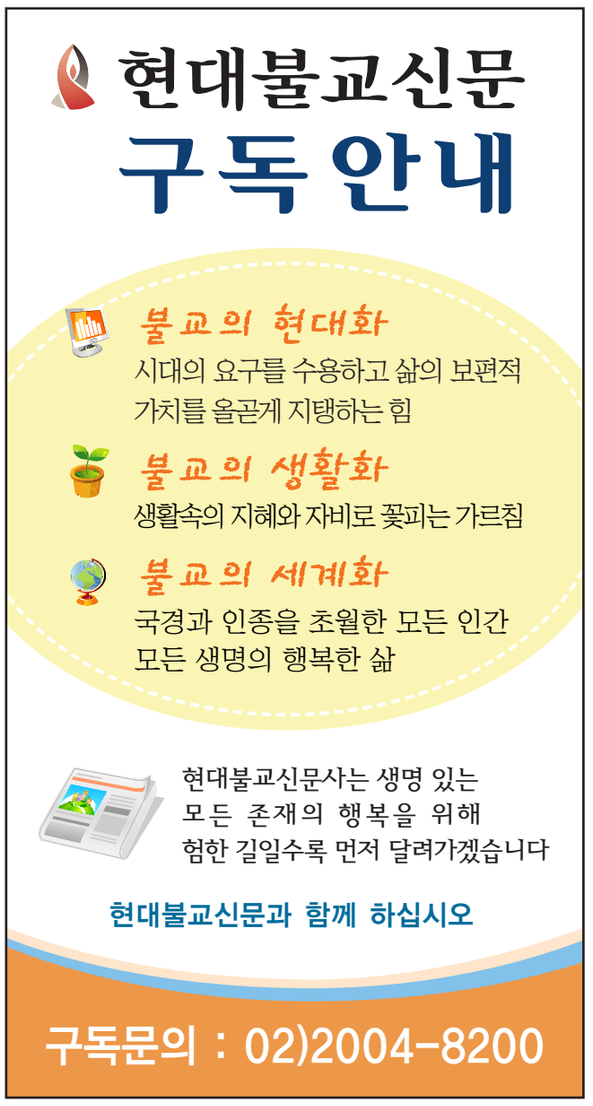
미슐랭 가이드는 "사찰음식을 대중에게 소개한 레스토랑으로 고기와 해산물 외에도 오신채를 쓰지 않고, 사찰서 만드는 장류와 유기농 재료를 사용해 깊은 감칠맛을 내는 요리를 선보인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미슐랭 가이드 선정을 두고 '사찰음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계기이자 세계화를 위한 발판'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상업용만이 아닌 수행자 음식이라는 철학과 뿌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제기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6.12.21~2016.12.2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찰불화명작강의	강소연	불광출판사
2	바람불면 다시오리라-소설 법정	백금남	샘앤파커스
3	유식으로읽는반야심경	요코야마코이츠/허암	민족사
4	틱낫한기도의힘	틱낫한	불광출판사
5	니까야로읽는금강경	이중표	민족사
6	불교를철학하다	이진경	한겨레출판
7	붓다아비담마(체계적으로배우는)	멤틴몬/김종수	불광출판사
8	유마경강의(상)	남회근/송찬문	마하연
9	안되겠다내마음좀들여다봐야겠다	용수	나무를심는사람들
10	대방광불화엄경강설48(여래십신상해품)	여천무비	담앤북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마흔 이후, 가족·친구·일만 있으면 되는 걸까?

인생이라는 산에서 내려가는 연습

마스노 슌묘 지음 | 김지연 옮김 | 담앤북스 펴냄
1만 3천원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이 잘 전해질지 곰곰이 생각한 후, 단어를잘 선택해서 전달하는 것이 '구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마음이 온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온화한 분들이셨어'라며. 그렇지만 이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화가 나서 마구 소리를 지르고 싶어지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업'을 수행한 사람이라면 상대방을 온화한 태도로 대할 수 있습니다."

일, 가족, 친구, 붙든다고, 곁에 오래 머문다고 저절로 내 편이 되지는 않는다. 나이 듦에 따라 관계를 재정립해야 내 사람, 내 일을 잘 지킬 수 있다. 예컨대 부부의 경우, "올라갈 때에는 오르막길에 걸맞은 부부관계가 있듯이 내려갈 때에는 내리막길에 걸맞는 새로운 부부관계가 탄생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런데 대체로 남자들은 이런 부부관계의 변화를 알아채는 데 둔한 편이다. 아내는 이미 산을 내려가며 새로운 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남편은 알아채지 못한 채 여전히 같은 산을 계속 오르려 하는 것이다. '자식을 위해' 혹은 '생활을 위해'라는 발상에서 벗어나 부부가 함께 다음 목표를 찾아야 한다고 저자는 조언한다. 이렇듯 하산길에는 나를 둘러싼 환경을 다른 시각에서 보는 일이 우선되어야, 다음 행동을 현명하게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고독을 즐기되, 사람들 사이서 고립되지 않기를 권한다. 파수공행(把手共行)이라는 선어가 있다. '신뢰할 만한 사람과 손을 맞잡고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을 일컫는 말이다. 저자는 "혹시 지금 외로움에 괴로워하고 있거나 인생을 함께 걸어가 줄 사람이 없다며 한탄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느닷없이 자기 앞에 나타나 주길 기다리고 있지만 말고 스스로 누군가의 가슴속으로 뛰어 들어가십시오"라고 권한다.

특이한 것은 '애매하게 하는 것도 지혜'라는 가르침이다.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어느 한쪽으로 결정지으면 다툼이 일어나므로, 억지로 어느 한쪽으로 결정짓지 말고 둘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시 생활이 익숙해진 배우자를 억지로 자신의 고향으로 이끌지 말고 한 사람은 고향에, 한 사람은 도시에 살며 가끔 서로를 방문하는 것도 괜찮다고 귀띔한다. 이 책은 이렇듯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중년 이후의 삶의 비결에 대해 알려 주고 있다.

저자는 또한 "하나의 산을 끝까지 오른 후 무사히 하산하는 것. 그것이 완결입니다. 영원히 정상에 머물고 싶어 매달리는 것은 마치 인생이라는 산에서 조난을 당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조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평온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하산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라고 조언한다.

'선어'는 말 그대로 선(禪)에 관한 말이다. 하지만 선은 말이나 글 이상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기도 하다. 이 책에서는 각 장마다 깨우침을 주는 선어들이 등장한다. 특히 불퇴전(不退轉)의 결의(수행으로 도달한 경지에서 다시 범부의 상태로 후퇴하지 않다), 지족(知足:만족할 줄 알다), 유연심(柔軟心:유연한 마음) 등 마흔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선어가 있어 책을 읽는 중간 중간, 말뜻을 깊이 음미할 수 있다. 또한 십우도 그림 10장을 통해 인생사에서의 올라감과 내려옴의 의미를 더 쉽게 깨달을 수 있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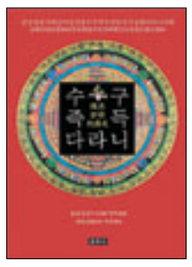
저자 마스노 슌묘는?

1953년 출생했다. 일본 조동종의 총본산인 소지지(總持寺)서 수행했으며, 현재 일본 겐코지(建功寺)의 주지이다. 이밖에 다마미술대학 환경디자인과 교수,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 특별교수 등의 직함을 갖고 있다. 선(禪)을 주제로 한 정원 창작 활동을 펼쳐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원 디자이너로는 처음으로 일본 예술 선장 문부대신 신인상을 받았다. 2006년에 〈뉴스위크〉 일본판의 '세계가 존경하는 일본인 100인'에 선정되었다. 도쿄의 캐나다 대사관과 세룰리언 타워 도쿄 호텔의 일본 정원 등이 그의 작품이다. 국내에 번역된 책으로는 〈스님의 청소법〉 〈심플한 생활의 권유〉 〈삶의 품격을 높이는 1일 몸가짐〉 〈화내지 않는 43가지 습관〉 등이 있다.

부처님도 인정한 최상 제일 진언

수구즉득다라니

불공금강 한역 | 석법성 역주 | 운주사 펴냄 | 9천원



수구즉득다라니는 '구하는 바에 따라 즉각 얻게 하는 진언'으로, 부처님께서도 이를 다라니 중에 '최상이며 제일'이라고 하셨다. 이 책은 〈대수구즉득다라니경〉을 우리말로 옮기고, 가피의 효험, 사서 방법, 공양법 등을 덧붙여 누구라도 혼자서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라니(dharani)는 '선법을 기억하여 지니고, 악법이 일어나지 않게 막다' '지혜와 가피를 총섭하여 지니다'의 의미를 지닌 비밀스런 언어다. 진언, 주, 총지, 능지라 번역하는데, 보통 좀 긴 것을 다라니, 짧은 것을 진언이나 주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진언수행은 주로 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많이 행해져 왔는데, 대승불교권에서 진언을 외우거나 관하거나 사경하거나 하는 등이 불교 수행의 한 방편으로 수용되었다. 이 책의 원제는 〈금강정유가최승비밀성불수구즉득신변가지성취다라니의궤〉로 신수대장경 제20책에 실려 있는데, 멸악취보살의 간청으로 부처님께서 대진언인 근본진언과 소진언인 심불심진언, 일체불심인진언, 관정진언, 관정인진언, 결계진언, 불심진언, 심중진언 등 8개의 진언을 말씀해 주시고, 그 진언들의 공덕과 효험, 가지력 등을 설한다.

수구즉득다라니가 설해진 인연과 공덕을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멸악취보살이 부처님께 청하길 "여래의 방편은 헤아릴 수 없고, 여래의 신통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오직 원하오니, 세존께서 고통을 없애는 비밀법을 설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들의 부모로서 오탁의 중생들을 위하여 성불을 결정하는 법을 설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나에게는 비밀법이 있는데 세상에서 아주 보기 드물며, 죄를 소멸하고 성불하는 데 최상 제일이니 (구하는 바에 따라 곧바로 얻는 진언으로) 수구즉득진언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 다라니를 염송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혹 다라니의 이름을 염송하거나 단지 그 이름을 들었거나, 그런 사람들과 친하거나, 심지어는 그런 사람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일체 천마일체 선신의 왕이 모두 와서 수호해 주어서 재난을 없애고 안온을 얻게 해준다. 만약 이 진언을 염송한다면 일체 중죄가 모두 다 소멸하고 무량한 복덕을 얻으며 죽을 때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설령 오역죄의 중죄를 지었어도 극락세계의 상품에 태어나 다시는 윤회의 태어남을 받지 않는다.

또한 누구든 이 진언의 이름만 지녀도 당연히 안락을 얻고 모든 병이 없으며, 재물이 불같이 성하게 일어나 풍족하게 되고, 매사가 원만하고 길하게 되며 복덕이 증장한다.

"마치 부처님이 모든 법의 왕이듯이 이 다라니를 지니고 염송하는 자도 가장 최상이며 제일이니라. 멸악취여! 이 진언은 일체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진언은 일체 중생들의 모든 고뇌를 여의게 할 수 있으며, 이 진언은 일체 중생들에게 크게 요익하게 할 수 있으니, 그들의 원하는 것을 충만하게 하느니라."

불교 수행에는 다양한 방편이 있다. 그중에는 온전히 자력으로 열반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수행법이 있는가 하면, 타력으로 좀더 손쉽게 열반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수행법도 있다. 그리고 자력, 타력은 개인의 근기와 인연에 따르는 것이니 그 우열을 가리는 것은 허망한 일이라고 하겠다. 어느 방편을 택하든 깨달음, 즉 열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진언 수행도 수행 방편의 하나이며, 나아가 최상승 방편의 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수구즉득다라니에 대해 말씀하시길 "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법을 널리 설하여 헤아릴 수가 없지만, 그 가운데 이 진언이 가장 최상이며 제일이니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라고 하셨다. 즉 진언 중의 근본진언이 바로 이 수구즉득다라니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쌓아온 죄업장을 모두 소멸하고 성불의 인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록에는 역자가 다른 책들을 참고하여 수구즉득다라니의 가피의 효험, 서사 방법, 공양법 등을 정리해 수록해 놓았다.

김주일 기자

부석사에 숨겨진 문화 코드 찾아 떠난 답사기

무량수전에 말 걸다

전광철 지음 | 사회세상 펴냄 | 1만 3천원



이 책의 시작은 현직 교사인 저자와 제자들의 여행서 시작되었다. 글쓴이는 수많은 답사를 다녔고 부석사를 공부하면서 부석사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부석사를 오가며 부석사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지만, 부석사를 그저 스쳐 지나가듯 훑어보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 가슴 한켠의 그러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모여 한 권의 답사 책으로 만들어졌다. 놀랍게도 부석사에 관한 본격적인 책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글쓴이가 사명감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부석사 여정에 앞서 글쓴이는 부석사와 수미산 구조를 설명하며, 이런 구조를 머릿 속에 담아두고 부석사에 오르면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인다고 친절히 설명한다.

그를 따라 단풍이 곱게 든 길의 시작에서 일주문과 천왕문을 만나고, 아름다움의 극치인 무량수전과 안양루, 범종루, 조사당 등을 함께 둘러보면서 곳곳에 숨겨진 옛 건축가들의 문화 코드를 찾다보면 부석사가 왜 아름답고 소중한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답사 중간중간에 아미타불에 대한 이해나 팔작지붕, 공포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글들은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답사에 양념 역할을 한다.

부석사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부석사가 가진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면 글쓴이의 역할은 그저 족할 뿐이다.

최재헌 건국대 교수는 추천사를 통해 "부석사는 통일 신라 한국 불교의 형성기에 창건되어 대승 불교의 신앙과 토착 신앙의 성지로서 1500여 년을 이어온 절이다. 우리는 부석사에서 경사진 지형과 어우러진 절 집의 조화로운 배치와 그 속에 담긴 불교 신앙의 정수를 엿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부석사서 마음을 여미는 길을 찾고 있다. 이 책에서 그 여정을 함께하면서 조상들이 남긴 문화 코드를 찾는 기쁨도 쏠쏠하다. 지금까지 학생들을 사랑하며 묵묵히 삶의 의미를 찾아온 그 길을 많은 분들이 함께 걸으며 공감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저자는 고백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부처님의 원음에서 배우는 지혜와 행복의 길!



짧지만 깊은 부처님 말씀

아함경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하루에 한 편, 아함경의 가르침을 현대인에 맞게 되살린 보경스님의 초기경전 강설!

선사들의 어록과 일화, 시대를 아우르는 동서양 고전, 철학과 문학을 넘나드는 사유와 성찰!

보경 저 / 국판 / 372쪽 / 16,000원



가장 오래된 조사들의 문답

조당집 읽기



『조당집』은 당나라 시대 선의 태동과 전개과정, 선사들의 삶과 어록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전해 내려온다.

이 책은 『조당집』에 수록된 중요 문답과 어구는 물론이고, 다른 선어록들을 참고하여 등장 선사들의 전기와 일화, 선어록을 덧붙이고 간략한 해설을 하였다.

정영식 저 / 신국판 / 352쪽 /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성탄절 수백만 동물 살육… 채식 도입 '절실'"

세네카 동물애호법음회장
12월 4일 인터넷 뉴스 칼럼서

"성탄절 파티 육식 위주"
고기 판매 법적 금지되는
스리랑카 베삭일처럼 해야
불자들에게 '살생말 것' 당부



세네카 위라랏나 동물애호법음회 콜롬보지부 회장이 12월 4일 'Lankaweb' 칼럼을 통해 "성탄절 식사로 수백만마리 동물들이 희생된다. 불교식 육식금지 전통을 도입해야 될 때"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전통적인 성탄절 식사메뉴로 칠면조가 올라온 모습. **사진출처=Huffington Post**

스리랑카 동물 애호 운동가가 가족 · 친구들과 모여 파티를 즐기는 성탄절 문화에 스리랑카의 '불교식 육식금지 전통'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세네카 위라랏나 동물애호법음회 콜롬보지부 회장은 인터넷 뉴스사이트 'Lankaweb' 12월 4일(현지시간)자 칼럼서 "성탄절 같은 이웃종교 축제일엔 수백만 마리 동물이 살육된다. 이는 평화와 자비를 전파하는 종교와 전혀 맞지 않은 이중적 전통"이라며 "불자들은 무분별하게 서양 전통을 받아들이지 말고 이제부터 성탄절에도 베삭일처럼 살생에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자들이 성탄절에 관해선 비폭력 정신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성탄절을 기념하고픈 불자라면 모든 생명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불교식 전통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성탄절 기간 동안 수백만 마리의 칠면조 · 오리 · 돼지 · 양 · 닭들이 도축되는데, 이는 불교 전통 베삭 기념일과 정반대 현상이다. 베삭은 부처님의 탄생 · 각성 · 열반을 기념하는 날로, 해당 기간 동안 스리랑카 내 정육점은 고기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베삭 기념일에 스리랑카선 고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은 온 생명체를 향하기 때문에 불자들은 동물을 죽이기는커녕 함께 축제에 참여시켜 배불리 먹입니다."

세네카 회장은 동물보호 전통의 근원으로 불교식 무외시(無畏施 Abhaya-dana, 남을 여러 가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보시행)를 꼽았다.

"무외시는 위협에 빠진 모든 존재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따라서 베삭 기간 동안 도살 직전의 소를 구입해 자유롭게 풀어주는 보시행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탄절 선물로 무외시를 베풀지 않을까요?"

이어 세네카 회장은 동물학대 원인인 공장식 집적농업을 해체시키기 위한 적극적 방법으로 채식을 제시하고 채식주의의 장점을 설명했다. 세네카 회장은 "많은 연구들은 육식이 환경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먼저 육식 위주 식생활은 채식단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배 정도 많다"며 "특히 소고기 섭취의 영향은 끔찍한 수준인데, 소 사육은 밀 · 쌀 · 감자 같은 농사를 지을 때보다 160배 많은 토지를 소비하고 11배 많은 온실 가스를 배출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심장병 △고혈압 △비만지수 등에서도 육식주의자들이 채식주의자들보다 현격히 높은 발생비율을 보였다며, 가장 큰 폐해로 대장암 발병을 예로 들었다.

또한 성탄절 선물로 주고받는 새끼 강아지 · 고양이가 유기되거나 모피 제작을 위해 토끼 · 여우가 희생되는 경우를 지적하고 "성탄절에 더 가중되는 동물을 향한 전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탄절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불자들에겐 매우 심란한 전통입니다. 올해 성탄절엔 새롭게 채식 전통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새로운 전통은 생명을 살립니다. 이보다 더 성스럽고 고결한 전통은 없습니다."

한편 동물애호법음회는 2011년 자신들의 고통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동물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자 스리랑카 불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이후 전 세계에 지부를 결성하고 '인간의 정의 · 자비 · 나눔의 정신은 지구에 거주하는 모든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아래 동물 보호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독특한 발상 불교 슈팅게임 '마니유기 TOKOYO'

아티스트 다카쿠라 카즈키, 불교 마니차 콘셉 게임 제작





'마니유기(摩尼遊戯) TOKOYO' 게임 화면.

일본의 인터넷 언론 '카이유(界遊) 컬쳐 미디어'는 12월 19일자 기사를 통해 평소 불교를 모티브로 많은 작품 활동을 한 아티스트 다카쿠라 카즈키(たかくらかずき) 씨의 게임 제작 소식을 보도했다.

다카쿠라 카즈키 씨가 만든 게임은 불교를 소재로 한 슈팅게임으로, 타이틀명은 '마니유기(摩尼遊戯) TOKOYO'다. 게임은 티베트 불교의 마니차(摩尼車)를 콘셉트로 제작된다. 기사에 따르면 게임을 플레이 하는 것만으로 경전 독송 1억 회분의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게임을 시작할 때 플레이어는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가?' 등의 현세의 행위에 관한 10개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런 다음 답변에 따라 얻은 공덕을 생명력으로 변환한 후 게임을 시작하는 방식이다.

게임은 육도 윤회를 본뜬 천도(天道), 인간도(人間道), 축생도(畜生道), 지옥도(地獄道), 아귀도(飢餓道), 수라도(修羅道)의 6개 스테이지로 나뉘어 있고 이를 하나씩 공략한다. 게임에 나오는 적은 구천을 떠도는 영혼으로, 그들을 구제함으로써 공덕을 쌓고 최종적으로 관세음보살에게 예불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간다.

다카쿠라 씨는 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 스튜디어 도코요(スタジオ常世)라는 회사까지 설립했을 만큼 열정적이라고 한다. 독특한 불교적 발상을 통해 만들어지는 이 게임은 닌텐도3DS 용으로도 개발 중이다.

주성원 객원기자

호주 초등학생들 불교에 심취 "교법사 양성 필요"

명상 · 달라이라마에 대한 이미지 불교 선호도 급상승 일으켜

호주의 공립학교들이 불교 교법사 충원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브라이언 화이트 뉴사우스웨일즈주(州) 불교위원회장은 "3,000명 이상의 공립학교 학생들이 불교 공부를 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이트 회장은 "명상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와 그것에 대한 이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6~7세 어린이들도 단 몇 분만 명상을 하면 무엇이 좋은지 알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불교 자체는 평화롭고 실용적인 삶의 방식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꽤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사우스웨일즈주 불교위원회는 불교 경전을 가르치는 교법사를 70명 양성했지만 최소 60명 이상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화이트 회장은 "우리는 뉴사우스웨일즈주 전역에 교법사를 필요로 하는 학교 명단을 갖고 있으며 수업이 필요한 학교를 위해 항상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교수업의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은 뉴사우스웨일즈주 북부지역에 있는 바이런 베이 공립학교다. 전체학생수의 1/4 이상인 15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불교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학교의 불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에밀리 콜링은 수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해 학부모 회보 모집공고를 내기도 했다.

콜링 교법사는 "북부지역이 좀 더 개방적인 곳이기 때문에 불교가 급성장 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든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을 하고 있으며, 불교는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줬다"고 말했다.

불교 인구가 급증한 현상에 대해 호주 디킨대학교 안나 할라프오프 종교학과 교수는 2가지 큰 이유로 △달라이 라마의 긍정적인 모습이 호주 국민들에게 호의적으로 비추어진 점 △서양 종교에 대한 서구인들의 불만이 고조된 점을 들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에 있는 공립학교 학생들 중 3,000명 이상이 불교 공부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ABC**

할라프오프 교수는 "2011년 인구 조사에서 불교는 호주에서 기독교 다음인 2번째로 큰 종교로 성장했다"며 "최근 불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다. 학자들 중에는 스스로 불자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명상에 관심이 많고 잠들기 전 달라이라마의 책을 읽는 '나이트스탠드 부디즘'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독교 등 주류 종교는 개인과 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더 많은 종교적 접근법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골라서 선택하고 결합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호주에는 각 주(州)마다 공립학교 종교 교육 규정이 있다. 빅토리아주는 올해 초 교육과정에서 특별종교과정을 삭제했다.

하지만 세실리아 미트라 호주 불교위원회장은 "불교가 모든 공립학교에서 즉시 시행가능하다면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수요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주 1회 30분정도의 종교 수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불교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몽골, 中에 백기 "달라이 라마 초청 안 해"

뭉흐어르길 외무장관, 자국매체와 인터뷰서

몽골이 중국에 백기를 들었다. 정부 차원서 "달라이 라마를 다신 못오게 할 것"이라 천명한 것.

12월 21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첸드 뭉흐어르길 몽골 외무장관은 최근 자국 매체들과 인터뷰서 "달라이 라마가 몽골을 '몰래 방문'했다"며 "그 영향과 후과는 종교범위를 넘어섰고, 몽-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몽골 정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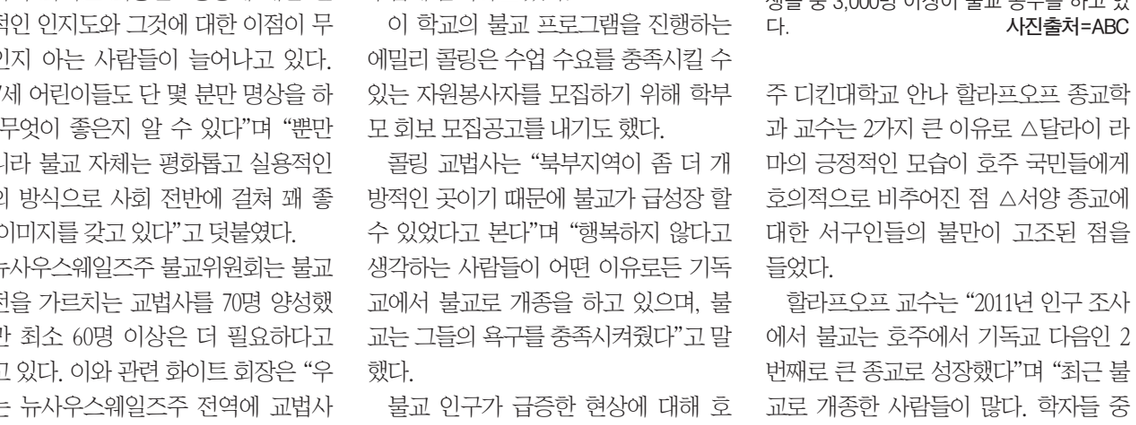
또한 뭉흐어르길 장관은 몽골이 중국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뜻과 함께, 몽골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고 달라이 라마가 몽골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표명했다.

이러한 몽골 정부의 입장은 지난달 달라이 라마 방문 후 시작된 중국의 강도 높은 제재에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다. 중국은 몽골에 금융 및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간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고, 몽골 남부 톨고이 지역에 접한 중국 네이멍구 세관 당국이 국경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통관비를 징수했다.

한편 달라이라마는 11월 18~21일 몽골을 방문, 몽골 최대사원인 간등사 등서 대중 강연을 펼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0-5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cm × 세로 300cm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매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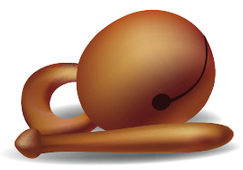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이 했건 말았건 상관하지 말라, 다만 내 자신이 저지른 허물과 게으름만을 보라.

– 법구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신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고치는법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정신질환 상담

우울증, 정신분열, 정신이상, 빙의, 환청, 환시, 간질발작, 정신병원약을 복용하신 분
(상담 및 개인지도)
사주학, 성명학, 빙의퇴마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4호선 상계역

수 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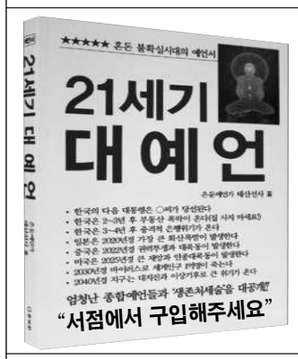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일단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 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 점안식,
시다림, 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매주 : 화,목 강의 / 2시~ 4시
(교재무료)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051-245-5353

관 상 (손금)

– 스님 특별 비법 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묘터,질병,재판,이혼수를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
– 일반인,무속인,철학원,스님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사찰 화분장 분재공원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 선설치 후지불
- 100평 기준 70기 유치
- 분재공원 조성은 신도 활성화
www.화분장.kr
010-8458-3310
대표 율평

이조불교용품 재활용센타

법당철거전문.개금.단청.
탱화.중.대형불상.공예
탱화 제작 수리
(사찰부동산중개전문)
구리시 아천동 산 4-1
010-9177-7842

? 고민 해결의 지 침 서

당신의 어떠한
고민도 해결 할 수
있는 지침서이다
010-7732-3267
농협 302-1030-1238-01 배종영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빙의.퇴마.전생체험

수강생 모집 (개인지도)
3개월 과정
교재는 무상 지급함
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1시~5시까지
세종시 소정면 운당 (대승암)
010-5269-4168

척추교정

비법전수
누구든지 가능
하루교육완성
출장가능
사찰경제에 큰 도움
010-3055-900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칡 판매

스님이 직접 캔
칡을 판매합니다
경북 예천군 유천면 하천길 21-73
우체국 012-104-02-185640 김재홍
010-5585-0459

포교원 필요하신 분

– 서울 화곡동 시장부근
– 2층건물 2층 20평, 남서향
– 보증 300,월30,권리금 무
– 살림편하고 건물주가 협조
010-5381-1419

비구스님 모십니다

(60세 전후)
010-5221-5893

부산 조계종 본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급여 상담 후 결정
– 퇴직금, 상여금 있음
010-9822-6460

천수작법 바라지 하실스님

인연 기다립니다
010-2168-2800

문두루 기도비법?

원하는 것을 이루게되는 기도이며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이천)
010-3797-006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원)
010-3618-6061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사찰내외 유무선 마이크 설치전문

일반적으로 중형교회의 경우 5000만원 내외 정도의 음향설비를 합니다. 그러나 대전 한성음향은 노래방기기설치 21년차로 특허도 있고 간략하고도 기성복이 아닌 맞춤옷같은 방법으로 대웅전 음향설비를 평균 200만원대 소형은 100만원대로 교회음향에 준하는 설비를 해 냅니다. 예불과 설법과 천도가 쉽게 할수 있게 설치해 드립니다. 설치된 곳은 강원 인제읍 무애암, 충북 보은읍 만선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대국사, 경북경산 압량면 수안사, 경남창원 진해구 청룡사 등입니다. 문의 바랍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 (대전,전국 출장가능)
010-4440-8687

포교원 인수 하실 분

– 비구, 비구니스님
– 초기경전 강의 및 수행지도 가능하신 분
– 사천지역의 다양한 주민들에게 상응할 수 있는 학식과 지식을 갖추신 분
– 반드시 보문정사 주지스님과 면담 후 결정됨
– 소재지 :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137-8번지 2층 보문정사 포교원
연락처 : 총무 010-5654-2148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자모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기도치료법 一名 염력요법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6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 인류 최초의 전문기도 치료사는 부처님과 예수님이었습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직업으로 삼아도 될것입니다.
- 70대 중반인 본인은 현재 충분한 용돈을 벌어서 걱정없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협 (정보석)

새해맞이 해넘이 258회 3000배 용맹정진

착한 불자들이여!
새해 소원성취 절로 절로 저절로 이루어지이다

■ 완벽한 표정, 자세, 동작, 호흡, 알아차림, 고마움의 감사 철철 넘치는 기쁨으로 무량공덕 쌓고
■ 칠판 지우듯이 병, 불행, 잡생각 싹싹 지워 블랙홀에 넣고
■ 코스믹 우주 사운드 만트라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염송 신나게 신명나게 신바람나게 새해 소원성취 대원력으로 마음 먹은 대로 뜻대로 다 이루어지이다.
■ 영남 알프스 가지산 신불산 와불산의 찬란한 태양광명 해맞이를 따뜻한 법당에서 온전히 ~

일 시 : 12월 31일 토요일 저녁 9시 ~ 1/1 아침 6시
장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문 의 : ☎ 010-3487-0035 www.법왕정사.net

깨달은공동체 법왕정사

한국최초!! 내손안의 육임

이제 운세를 휴대전화와 휴대용 PC로 순쉽게 손안에서 해결되는 새로운 비법의 육임 운명법(사주, 개운법포함),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을 각자의 생년월시만 넣으면 8640페이지로 명쾌하게 해결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운명을 알아 맞추는 형식이었다면 육임 운명법은 운명의 법칙대로 살아야 잘사는 법을 만든 비술이다.

■ 시간법도 각각 年名(년명)을 대입하여 풀어놓은 국내 최초의 비술이며 휴대전화와 앱으로 볼 수 있는 국내최초로 만든 손 안의 운세이다.
■ 육임은 대운법 뿐만아니라 세운으로 각자의 운명을 어떻게 살아야 맞게 사는지를 자연법칙에 맞추어 만든 비술이다.
■ 인연이 가장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다. 만법이 자연에 순응하여 살듯이 인간도 자연법칙에 맞추어 살아야만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이다.
■ 육임 운명법은 자연법칙에 맞는 인연과 직업을 명확히 알고 살도록 만든 최초의 비술이다.

● 가 액 : 600만원
(모바일 / PC 버전 : 내손 안의 육임 보는법 무료로 강좌해 드립니다.)
동영상 CD (외장하드)를 함께 드리며 화상강의도 가능합니다.

■ 육임강좌, 수강생 모집 : 수강료 300만원
■ 육임이 보인다. 공념 著 / 4×6배판 / 정가 70,000원
■ 강좌문의 : 공념학당 010-4471-6410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이 세상에서 천박하고 불타는 욕망을 억제한
사람은 온갖 근심 걱정이 말끔히 사라지리라.
물방울이 연잎에서 떨어지듯이.

- 법구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도심속의 땅넓은 사찰 ◀
- 위치 : 부산시 신평동 (혁신공단예정지 부근)
- 총부지 4,000여평 ※일부 주거지
- 건물 : 법당 및 산신각, 요사채
- 조망권 : 먼바다와 노송이 우거진 멋진전망
- 가액 : 6억 8천만원

▶ 토굴 ◀
- 위치 : 경북 청도
- 총부지 : 280여평
- 건물 : 법당 및 산신각, 요사채(방7개)
- 가액 : 1억 4,500만원

051-863-6622
010-3560-8522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무안 전세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법당, 요사채 등 토지 10.000㎡
- 조용하며 30년정도된사찰.스님입적하시여 불가피임대함.
- 전세가액 : 1억 5천만원, 조정가능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비밀보장. 방문접수.전국사찰. 암자 급히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경기
◎ 부지 : 80평 ◎ 부지 : 2200평
◎ 법당 : 40평 ◎ 법당 : 60평, 외전각
◎ 요사 : 60평 ◎ 요사 : 100평
◎ 양도 : 6억 8천 ◎ 양도 : 30억 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 장유폭포 부근
- 토지: 14,780평, 주차장 완비
- 건물: 건평 80여평, 법당 요사채 등
- 불모산 사찰, 정남향 최고 위치
- 양도 : 몽땅 6억 5천만원

010-2595-7752 전무

주소: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504호(만덕동302 다산타워)

영주 사찰(급)안내

- 토지 7,000㎡
- 한옥기와 법당, 산신각, 요사채 등
- 주변산, 바위, 약수, 토목완료
- 영주 4K 고속도로 접근성 좋음
- 가액 : 4억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사찰전문)

서울에서 접수. 상담.안내가능합니다
(원주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서울 & 경기 사찰 / 포교원 중개 전문

-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전문적 / 중점적 중개
- 직접 방문을 통한 정확한 권리분석 및 상담
- 전국 매물 수백건 보유/심층상담을 통한 고객 만족 매칭서비스
- 공인중개사로서의 정확한 책임 중개
- 서울&경기 지역 매물 접수처(H.P 010-3426-9393, 카카오톡 : hyeonjong01)

서울.경기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 44 101호 / www.010-3426-9393.com

010-3426-9393 / 070-8145-9393

서울시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지하철역5분거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
- 3층 198㎡ (약 60평)
- 방1, 사무실, 법당, 주방 화장실2, 도시가스 ,바닥 난방
- 가액 : 보1000만 월99만 시설비1억

010-3426-9393(포교원전문)
070-8154-9393

삼 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액 : 12억

- 위치 : 경기
- 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5평
- 가액 : 6억5천

[포교원]
- 위치 : 안양
- 총평 : 65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방3개
- 시설비 약간, 시설 굿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경매상담, 부동산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량물건 보유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실 안내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금정산 외국어대 뒷산
- 토지 : 600여평 점유, 창건 80년
- 건물 : 법당 10여평, 요사채(건축물대장)
- 산신기도 사찰, 해발 300m 동남향
- 양도 : 몽땅 2억 9천만원

010-9906-3631 혜관

주소: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504호(만덕동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납골당 사찰 안내 (납골당 허가 완료)

- 위치 :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소재 사찰
- 토지 2,930평, 건물, 대웅전, 지장전, 관음전, 약사전, 산신각 등
- 봉안당 현대식 3층 건물 5,000기 봉안가능 안치단 등 내부시설 완비
- 가액 : 15억

010-4389-181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남향
- 남향동 대로변
- 평수 : 3층건물 중 2층 38평
- 가액 : 보 500만원, 월 45만원 시설집기일체 600만원 (절충가)

010-7314-873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1동 신정시장 부근
- 평수 30평, 2층독채, 큰방3개, 거실, 욕실주방
- 편백나무 리모델링, 급한사정
- 위치 좋음, 교통도 좋음
- 삼존불, 석가모니, 약사여래, 관세음보살
- 후불탱화, 용왕, 산신, 신중
- 가액 : 전세 1,0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금액은 1000만원

010-9902-396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시장 부근 7호선 약 3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주방,욕실,주차 2대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가액: 1,000만원, 월 11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즉시 법회 가능

010-4646-3638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 도량 총 1,420평, 목조법당, 관음전, 종각, 요사채
- 공양간 외 부속 건물, 차고, 창고, 대형주차장 등등
- 가액 : 급 2억 8천 (부득이한 사정으로)

010-4628-5699

포 교 원 임 대

- 위치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 건물 : 2층 건물중 2층 (옥상 사용 가능)
- 대도로변 위치 포교하기 좋은곳 주차장 있음
- 가액 : 보 1,0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시설 A급 몸만 오시면 됨

010-9908-8017

산밑에 예쁘게 단청이된 사찰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
- 토지 : 약 530평
- 건물 : 법당1동, 칠성각1동, 산신각 1동, 요사채, 약 40평 1동
- 가액 : 3억 2천만원 (조정가능)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
- 대지 257평
- 법당 : 2층 건물 2층법당 25평, 1층 30평.1층 대형방 2칸, 화장실, 샤워장, 해수관음 다보탑, 삼성각 신축
- 요사채 : 공양간, 창고9평, 화장실 2칸, 방2칸
- 전망 : 앞바다 300m 내려다 보임, 뒷산
- 가액 : 4억5천(은행1억5천 대출가능)

010-7169-9878

멋진포교당(급) 안내

- 위치 : 마산터미널 부근
- 3층 건물에 2층 약 40평
-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전 300만, 월 30만 시설비 800만원

010-8548-8608
010-3637-2425

사 찰 안 내

(시세이하 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하북면 소재
- 임야 : 종교부지 합 15,000평 (종교부지내에 개인부지 포함) 건물 1동 (약 70평)
- 터는 명당자리(좌백호, 우청룡), 토목공사 진행중
- 가격 협의 가능(현지답사후 협의 요망)

010-8014-7707
010-3832-7157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시내 2차선 도로변
- 대단지 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 중간부분 교통 원활
- 아미 관음 지장 후불 신중 칠성탱화 영가단, 소불 법당종 냉,난방기 음양 조명 등 시설완벽 불기 및 집기일체
- 신조성 1년 10개월 포교 및 명리 적합, 3층 건물중 2층 약 25평
- 보: 300백, 월30만. 주방시설은 있으나 방은 없음 시설비는 꼭 하실분에게 최소의 금액에 드리겠습니다

010-5050-6252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길 26 부근
- 평수 30평에 방3개 단독주택
- 시설 : 삼존불, 신중후불, 탱화 등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150만원 30만원 시설비 100만원

010-9252-0766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자인면 율옥리
- 총평수 : 545평(자연녹지)
- 가액: 평당 20만원

010-6752-9339

상가임대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청룡동 33-4 동산아파트 상가 범어사 90번 종점
- 용도: 사주카페, 불교용품, 소품갤러리
- 가액 : 전세 1천 5백만원 월 40만원 권리금 천만원

010-9394-14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 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음성 생극면
- 대지 513평, 법당 외 4동
- 계획관리 전망좋음
- 가액 : 1억 7천

010-6341-347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소재
- 독채 벽돌조 32평, 등기필 사찰(개인소유)
- 대지는 도지료 1년 35만원
- 법당 약 20평, 주방거실1, 방2, 세면장
- 2차선 큰길변 남향
- 가액 : 4천 8백만원

010-7295-1259

사찰안내 또는 전세

- 위치 : 경북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586
- 부지 400평
- 목조법당 25평
- 요사콘크리트 슬라브 50평
- 심야보일러, 田 다소
- 가액 : 3억 5천만원(양도) 6,000만원(전세)

010-5780-1415
033-762-2494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명상 나에게 이르는 길

샐리 켐튼(명상 강사 · 저널리스트)

〈3〉 명상을 준비하는 마음가짐

깨달은 스승 상상하면, 내가 곧 그가 된다



광대한 사랑은 내안에 존재
은총 기원하며 주파수 맞추면
깨달은 스승 '구루' 기운 뻗쳐
정묘한 각성 · 참자아 되살아나

이완과 집중

〈카타 우파니샤드〉에는 "참자아는 저절로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했다. 내면세계는 억지로 열 수 없다. 제아무리 열심히 명상을 한다 해도 우리는 명상 체험을 억지로 일어나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마음가짐이다.

명상 속으로 깊이 몰입하는 길은 자신의 수련을 존중하고 명상을 위해 마련한 시간을 성스럽게 여기며 명상에 들어가는 것이다. 존중하는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 신체적인 행위를 비롯해 간단한 의식을 행하는 것도 좋다.

가능하다면 규칙적으로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좋다. 그렇게 하면 그 공간에는 정묘한 기운이 쌓여 명상할 때 내면으로 들어가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간단한 제단을 설치하면 명상 분위기를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제단은 종교성을 떠나 그 공간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그 앞을 지날 때 명상의 고요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는다. 샤워를 하거나 세수를 하고 발을 씻을 때, 심신의 정화 과정을 정성스럽게 행한다. 제단에 절을 하거나 우주에 절을 할 때 다음의 문구들 중 하나를 되뇔 수도 있다. '사랑을 막고 있는 껍질이 녹아듭니다.'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칩니다.' '참자아에 귀의합니다.' 이런 문구를 되뇌면 딱딱하게 굳은 가슴이 녹으면서 사랑의 마음이 싹튼다.

명상을 시작해서 참자아를 일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이완이다. 그러니 몸도 마음도 이완하라!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는 시간을 내어 신체의 어느 부위가 경직되어 있는지 찬찬히 살펴본다. 그런 다음 딱딱한 어깨, 복부, 이마 등 경직된 부위로 숨을 들이쉰다. 내쉴 때는 딱딱하게 굳은 것을 함께 내보낸다. 수련에 집중할 때도 이완의 필요성을 잊지 말고 마음을 느긋하게 하며 몸과 마음의 힘을 뺀다. 이런 식으로 이완된 집중을 '무위無爲'라고 한다.

명상을 위한 은총

어떻게 하면 이완하면서 명상 속으로 들어가고, 힘을 주지 않고도 집중할 수 있을까? 본질적으로 말하면 '신뢰'해야 가능하다. 첫째, 참자아가 우리의 목적이고, 참자아는 실재하며, 참자아를 체험할 수 있음을 신뢰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명상을 도와주고 명상의 결실을 가져오는 거대한 힘과 연결되어 있음을 신뢰해야 한다.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이 힘을 '은총'이라고 한다. 은총은 가슴을 일깨워 그 광대성과 사랑을 드러내는 우주의 힘이다

은총은 결국 밖이 아닌 우리 안에 있다. 특정 방송국을 선택하기 위해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고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 서버에 연결하는 것처럼, 명상을 심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태의 은총을 기원하며 우주와 주파수를 맞출 필요가 있다.

우리가 명상에 파장을 맞추는 데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형태의 은총이 있다.

첫째, 우주의 근원에서 오는 은총이다. 그 근원의 존재는 우주에 흐르는 형상도 인격도 없는 사랑이요, 지성이다.

둘째, 자아에서 오는 은총이다. 자아는 우리 자신의 각성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과 마음과 정신이기도 하다.

셋째, 인격적인 신에서 오는 은총이다. 인격적인 신에는 시바Shiva(파괴를 담당하는 힌두교의 신)나 락시미Lakshmi(부와 번영을 담당하는 힌두교의 여신), 관음보살 등이 있다.

넷째, 깨달은 스승에서 오는 은총이다.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은총으로, 특히 뛰어난 영적 계보를 잇는 스승이면 두말할 나위 없다. 수련 중에 이들 중 하나를 응용해보면 좋을 것이다. 하나만을 선택해서 수련할 수도 있고, 네 가지를 모두 취해서 수련해도 좋다.

우주의 은총은 비인격적이어서 '제3의 영혼'이라고도 한다. 이 영혼은 만물을 감싸면서도 만물에 스며있는 '본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본성은 우리가 자연 속에서 가장 쉽게 경험하는 은총이다. 산에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속에서, 대양大洋에서 이 본성을 체험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몸에도 지혜가 있다. 하타 요가Hatha Yoga는 인간의 근육과 뼈, 기氣의 통로에 있는 명상의 힘을 개발하기 위한 요가로, '아사나asana'라는 요가 자세를 취하며 심신을 수련한다. 몸의 리듬과 의지가 명상하려는 마음과 공명할 때 몸은 우리를 깊은 명상 상태로 데려간다. 탄트라에는 근본적인 명상 비법이 있다. 그것은 깨달은 존재의 기운에 기도하면 수행에 불이 붙고, 메마른 명상에 윤기가 흐르며, 정묘한 우주의 힘을 얻는다는 것이다. 금강승 불교(티베트 불교)에서는 깨달은 스승의 기운과 파장을 맞추는 수행을 '구루 요가'라고 한다. 이는 진정한 요가로,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며 비전秘傳되는 수행법이다.

인도와 티베트의 탄트라에서는 명상을 시작할 때 잊지 않고 스승의 도움을 청한다. 구루에게 간구하는 행위는 한 인간에게 절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유명한 탄트라 주석에서는 스승을 '신의 은총을 내려주는 힘'으로 묘사한다. 개인적인 스승의 몸과 마음은 이 힘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 산스크리트에서 구gu와 루ru는 '빛'과 '어둠'을 가리킨다. 그래서 구루하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구루는 내 안에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신세계에서는 영적인 계보와의 연결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한다. 메마른 겨울나무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생동하는 수액처럼, 구루나 구루의 계보와 연결되어 흐르는 영적인 권능은 수행에 생명력과 활력과 힘을 불어넣는다. 구루를 떠올리기만 해도 가르침을 전하는 문이 열리고 일상적인 명상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비상할 수 있다.

구루나 신과 같은 인물이나 명상에서 나타나는 존재에게 우리가 진실로 바라는 것은 '존재의 내면에 있는 투명성, 사랑, 정묘한 각성이 우리 안에서 펄떡펄떡 살아나게'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내면의 빛에 마음의 문을 연다. 우리들 각자의 내면으로 이끌어주는 보이지 않는 안내자이며, 명상에 힘을 불어넣는 내면의 스승에게 마음의 문을 연다.

이 내면의 구루는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살며,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양한 경험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안내하며,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 자신을 아는 경지까지 이끌어준다. 제자가 준비되면 내면의 스승은 미래의 실제 스승이나 참스승에게로 제자를 인도한다. 내면의 스승이 우리를 외면의 스승에게 인도하면, 이 외면의 스승은 우리에게 '내면의 스승'의 존재를 일깨워준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한 스승을 우리 영혼의 지혜와 사랑을 구현한 형태로, 불성佛性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구루를 노래한 산스크리트 시 〈구루 기타Guru Gita〉에서는 "구루는 자각한 참자아와 다름없다"라고 말한다.

'헌신'이란 말은 산스크리트로 '박티bhakti'라고 하는데 박티는 '맛보다'라는 의미가 있다. 기도와 기원, 찬송, 회상, 예배, 의식은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감미로움을 실제로 맛보는 것을 뜻한다. 박티 수련을 하면 마음이 고양되어 신비로운 기쁨이 일어나고, 기쁨이 생동감 넘치게 한다. 다른 수련도 마찬가지지만 헌신 수련도 꾸준히 반복해야 수련의 힘이 붙는다.

당신이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깨달은 스승이나 위대한 성자, 혹은 구루 앞에 자신이 앉아있는 모습을 떠올린다. 당신 앞에 있는 구루를 보통의 구루로 생각하지 마라. 이 구루는 무수하게 깨달은 스승들의 계보를 통해 내려오는 은총을 모두 자신 안에 담고 있는 존재로 생각하라.

구루의 형상을 보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구루의 현존을 느끼는 것, 구루의 현존이 당신 앞에 생생하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당신의 의식을 일깨우는 신성한 힘으로 구루의 현존을 느낀다. 대단히 친숙하면서 깊숙이 연결된 은총의 힘으로 느낀다.

구루가 숨을 내쉬면, 그 숨은 사랑의 권능이 되고, 태고 적부터 내려오는 깨달은 존재들의 축복이 되어 당신의 숨 속으로 들어간다. 당신이 숨을 들이쉬면 사랑과 축복이 들어온다고 느껴본다. 숨을 내쉬면서는 깨달은 스승들에게서 오는 축복을 온몸으로 느끼고, 구루가 베푸는 축복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껴본다.

이제 구루의 사랑이, 구루 계보의 사랑이 당신의 몸을 채운다. 당신 안에서 축복의 기운을 느껴본다. 그 축복 안에서 안식한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올린다.

당신의 기도가 구체적이고 솔직하며 마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구루는 당신 안에 실제로 현존하며 당신의 일부로 존재한다. 당신이 기도할 때 누리는 은총의 권능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발현된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은총의 권능을 체험했다면, 지금 당신은 명상세계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이제 그 세계로 들어가는 문, 입구를 선택할 차례다.

이 글은 〈명상 나에게 이르는 길〉(한문화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당신도 명리학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를 풀어주기 위해 명리학을 공부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본 책자는 초보도 만세력에서 일주만 찾으면 성격 및 당해년 운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포교를 하다보면 제가자들이 많은 것을 물어오는데 부록편에서는 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우혜안 –



발행인 : 초암사 주지 혜 안 스님
주문처 : 초암사 043-215-1569
010-9405-818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초정길 156-9)
입금계좌 : 농협 317-02-322143 (우복진)

慧眼決書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배종훈의
명상카툰

시간이 흘러야만



살아보지 않은 삶과 시간에 공감하는 일은 참 어렵다. 소설 '소나기'의 내용도 어린 시절에는 '이게 왜 감동적이지? 그래서 둘이 어떻게 됐다는 거지?' 정도의 의문이 전부였다. 학생들에게 소설을 읽어주고 소년과 소녀의 감정에 대한 설명과 작가의 표현력을 열강 하셨던 국어선생님의 수업에 시큰둥했었던 내가 눈앞에 떠올랐다. 15년 정도를 살아 온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었다. 그래도 선생님은 늘 따뜻한 웃음과 목소리로 또 설명하셨고 추운 겨울 복도에서 만난 아이들을 국어편집실로 불러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게 하셨다.

세상은 울고 웃는 더 긴 시간을 지난 다음에야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대부분이다. 인생은 공부로 배울 수 없다. 서른, 마흔, 쉰, 예순이 되어야만 자물쇠가 열리는 일들과 감정이 있는 것이다. 나는 그 애틋하고 복받치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중학생에게 다시 황순원의 '소나기'를 가르치고 있다. 예전 나를 가르친 국어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말이다. 나는 이제야 그 시절 선생님의 마음을 조금 알아가고 있다.



윤종헌의
아버지란 이름으로
⑤ '한마음아버지마당'의 유통기한

自覺이 가져다 준 가족 신뢰와 사랑

예전에 어떤 부부와 우연히 만나 이야기한 적이 있다. 아내분과는 공부 인연으로 만났고, 그녀는 남편에게 여러 차례 마음공부를 권유했지만 남편이 들은 척도 안 한다는 부부였다. 인사를 나누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남자는 마음공부 안 하면 나이 들어서 비참해진다"는 말이 나왔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은 아마 나에게 던진 것 같다.

당시 나는 마음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를 비롯해 젊어서 큰소리치고 사신 주변 남자 어른들이 연세가 들고 질병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한 분도 예외 없이 집안 내의 천덕꾸러기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나의 노후를 고민하던 때였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잡는 뜻으로 그 자리를 빌려 나온 목소리라 생각된다.

주변을 돌아보면 나이가 들수록 가족 내에서 남자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왜 그럴까? 남자는 사회 위주의 생활양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정에서 필요한 남편과 아버지 역할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자는 그런 생활양식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가장으로서 부양의 의무를 다하면 자신의 역할을 또한 다한다고 굳게 믿은 것이다.

하지만 아내와 자녀들은 이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부양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아버지가 강요하게 되는 가족 구성원들의 복종과 아버지의 잘못에 대한 이해 등을 빼놓지 않고 기억한다. 그렇게 반감을 가진 채로 지내다 아버지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는 순간부터 마음의 상처를 보상받으려는 움직임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잘 인지하지 못한 아버지는 평생을 몸 바쳐 부양해 온 가족들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인생의 회의를 느끼기도 한다.

요즘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한다. 과거 우리의 아버지들은 은퇴를 하면 조용히 인생을 정리하시다가 오래지 않아 세상을 등지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100세 시대를 사는 지금의 아버지들은 은퇴 후에도 사회생활을 한만큼의 기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온전히 개인의 몫이다.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도 이 100세 시대를 살아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은퇴 후에 현실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찾기 힘든 남자들은 사회적 입지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며, 가족들에게 그 복잡한 마음을 전가시켜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마음아버지마당'에서는 프로그램 초반에 '나의 인생그래프'를 그려 보는 시간을 갖는다. 즉 '내 인생의 5대 사건'을 회상하여 나이대별로 정리한 후 각 사건 당시 자신의 마음을 점수로 표시해 선으로 연결하여 한눈에 보는 것이다. 의외인 것은 '내 인생의 5대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또 인생의 5대 사건에서 빠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결혼 또는 이혼이라는 점이다.

이는 남자에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또 결혼·이혼이라는 사건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결정적 계기를 만든 경우가 많아 남자와 가정, 남자와 가족구성원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男, '부양=역할 다한 것'이라 생각**
> **은퇴 후 입지·정체성 혼란 생겨**
> **서운함 및 삶의 회의 느끼기도**
> **'개인'으로서 자각 찾는 공부해야**

한마음아버지마당의 또 다른 프로그램은 '나의 아버지'를 회상하는 시간이다. 아버지는 아들이기도 하다. 지금 내 모습은 과거 '나의 아버지'의 모습과 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보통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으로 아버지 역할을 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본분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 '나의 어린 시절'과 '나의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다 보면, 나에게는 즐거운 추억과 더불어 '아픈 기억'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한마음아버지마당'에서는 제일 먼저 이런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드러내고 자기가 만든 모습임을 인정함으로써, 앞으로 내가 가져야 할 나의 마음과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듯 '나의 아픈 상처'와 그로 인한 지금의 모습을 진심으로 자각하는 아버지들은 대부분 프로그램 종료 후 가족들에게 놀랄만한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는 과정을 겪는다. 이것이 바로 '한마음아버지마당'이 다른 프로그램과 크게 차별되는 힘이라 볼 수 있다.

한마음아버지마당이 끝나면 참가한 아버지들의 소감 발표가 이어진다. 그 중 한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제가 한마음아버지마당에 참가하며 저도 모르게 많은 변화가 있었나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러더군요. 아버지가 달라져서 참 좋은데 이 프로그램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고요. 혹시 한마음아버지마당에 유통기한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의 사후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프로그램은 참가하는 기간 중에는 참가자들이 진행을 잘 따라오지만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이는 참가자에게 진행자가 교육과 강의를 통해 정답을 제시하고, 그 정답에 맞춰 가기를 요구하는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한마음아버지마당에는 강의가 없다. 오직 마음을 진솔히 바라보며 나의 현재 모습을 알아차리고 이 모습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를 스스로 참구하며 끊임없이 내 근본자리에 되돌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인생의 목표와 아버지 역할을 창조해나가는 실천 위주의 프로그램이다.

본인 스스로 문제를 자각하고, 답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에는 효과에 대한 유통기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본인의 계속된 실천정도에 따라 효과가 증대되거나 기한이 무한대로 연장될지도 모른다. 필자는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우리 아버지들이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벗어나 한 개인으로서 자신을 자각하고,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할 생각이다.

끝으로 지금까지 5회에 걸쳐 '한마음아버지마당'과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현대불교신문'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끝〉





대행 스님

여러분이 없으면 생활도 없고 생활이 없으면 불법도 없어!

오늘은 아주 허심탄회하게 자기 생활 속에서 거북한 점, 또 생활 속에서 걸리는 점…. 모두 여러분이 없으면 생활도 없고 생활이 없으면 불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벌어졌고 생활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는 내 마음 그 자체가 바로 이 내면의 세계의 그 많은 생명들을 이끌어 가지고 가는 지배인이에요. 하하하, 내면의 세계부터 끌고 갈 줄 알아야 또 외부의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죠.

오늘은요, 같이 앉아서 서로 토론하는 날입니다. 서로 질문들 하세요. 또 어떻게 돼서 걸린다는 점, 답답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

그런데 질문을 할 때에 양쪽 말이 다 들어가려면 이 마이크가 필요하거든. 그래, 이렇게 토론을 하시고요, 요다음 토요일 날 다시 한번 들어 보세요. 두어 번 더 다시 들어 보면요, '아! 이런 점에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점에는 좀 요렇게 할 걸….' 이런 게 인제 되죠. 그림을 그려도 처음에 그린 거하고 그 다음에 그린 거하고 다르니까요. '요걸 좀 요렇게 축소했으면 좋겠다. 요건 더 늘렸으면 좋겠다. 요런 것이 인제 잘못되어 나오면 고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자.' 이런 문제죠. 누가 말소리가 안 들려서 이걸로 하는 게 아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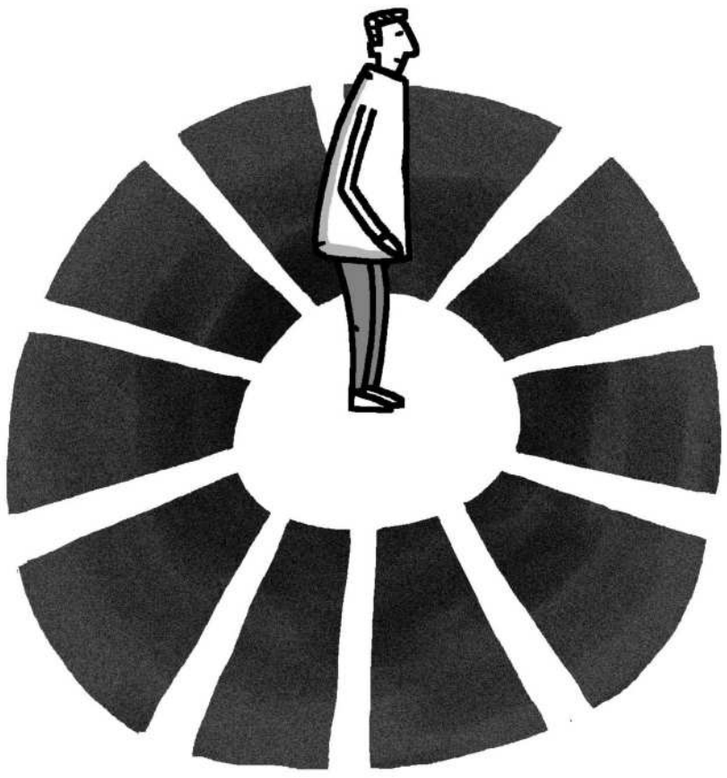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1(여) 저기 마음공부 하는데요, 승복 입는 것과 안 입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요.

큰스님 간단하게요, 입산을 해서 이 승복을 입은 사람하고 안 입은 사람이 공부했는데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안 입은 사람을 따르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유년 같이 이렇게 해 오던 사람 같으면 승복을 안 입고 머리를 안 깎아도 따르지만 모르는 처지에서 막상 보고선 "으응." 하고 그냥 따르지 않거든요. 그런 점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승복을 입는 겁니다. 이 승복을 입은 사람은 여러 모르는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건져 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승복을 안 입으면 자기 공부만 했지 남을 이렇게 반 이상을 건질 수가 없는 거죠, 따르질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세 번째는 이것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순색입니다. 이것이 중도를 말하죠. 그래서 안 보이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이 혼합된,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다, 이건 중도도 되지마는 중도가 되기 때문에 중심이 되고 중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봐도 그 뜻을 안다 이런 문제입니다. 또 질문하실 분요.

질문자2(남)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건강에 대해서…. 선을 하면 몸의 병도 고친다고 스님께서 설법하실 때마다 말씀하시는데요, 병도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 있고 또는 정신적으로 오는 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경우는 작년부터 당뇨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선으로써 고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큰스님 이 병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게 많아요. 병뿐만 아니라 전체 살림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일체 만법이 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는 얘깁니다. 이 원인은 지금 여러분 몸속에, 예를 들어서 간단히 방편으로 따져도 11억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아니라 숫자 없는 11억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1억이라는 게 어디서 왔나? 자기가 과거에 살던 인연들입니다. 악으로 했으면 악으로 지은 인연, 선으로 했으면 선으로 지은 인연들, 형제의 인연들 뭐, 모든 인연들이 착을 가지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대로 인연이 돼서 여기 여러분의 몸 하나가 된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엄마나 아버지의 정자 난자가 있어서 뼈와 살을 빌려서 몸뚱이 하나를 부모한테 받았는데 그 몸속에 있는 생명체, 그 의식들은 전부 자기의 인연으로 인해서 만난 뭉침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살다가 망하게 되는 것도 과거의 인연이 그렇게 하게 만들고, 악도 거기서 나오게 하고 선도 거기서 나오게 하고, 모든 게 한군데서 그냥 바깥으로 나고 들고 나고 드는 겁니다. 체가 없으니까. 마음에 정말 입자가 돼 가지곤 그냥 분자로 화해 가지고는 자꾸 나와서 나한테 귀인이 되게 만들지 않고 그냥 악인이 돼서 나를 망하게 만들고 있고 또 잘돼 나가는 거는 전자에 살다가 인연을 잘 지어서 선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인연이 있다면 또 그런 인연은 귀인을 만들어서 끌어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병이 나게 하는 것도 공장마다 병이 나게 하는 수도 있고 간장 공장만 병나게 하는 수도 있고 방광 공장만 병나게 하는 수도 있고 그냥 전부, 대장 소장이니 식도니 뭐, 심장이니 콩팥이니 이런 것도 전부 공장과 같다 이겁니다, 오장육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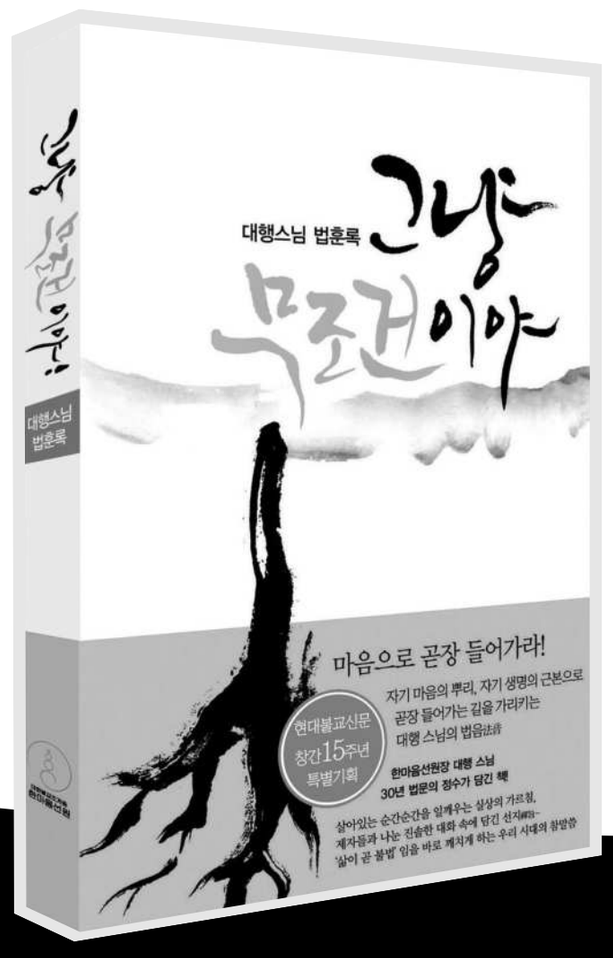
우리가 지금 마음공부 하는 사람이니까 마음을 잘 내면 꿈을 잘못 꾸고도 '아, 이거는 잘될 꿈이다.' 생각을 하면, 한생각 주인공한테 맡겨서 '아, 이거 잘되게 할 수 있다. 주인공만이 할 수 있다.' 하고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그런 것이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이 속의 모든 의식들을 지배하거든, 전부! 마음이 그러면 두뇌로 올라가서 두뇌로 인해서 사대에 다 통신이 되는 거라.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인체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루는, 병 다루는 그 지배인이 자기지만 다루지 않게끔 말을 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자기 자유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스럽게 할 놈의 거를, 자기가 자기 몸 다루는 것도 자유스럽게 생각을 못해. 자길 믿질 않아. 지금도 "놔라! 놔라! 응? 아니, 당신은 거기에 자꾸 말리지 말고 거기에 모든 것을 놓고 거기에 부드럽게 생각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러는데도 자기가 부드럽게 생각을 못하는 것은 자기가 자길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고 부아가 치미는데 그게 화탕지옥이다 이거야. 왜냐하면 딴 데서 화탕지옥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화탕지옥이야. 근데 왜 내가 거기에 끄달리느냐 이거지.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그런 원인도 거기에 있다 이거야.

내 지배인의 이 마음은, 그대로 마음내기 이전은 부처지만 이 속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마음 분별은 바로 중생들의 마음이다 이거야. 그러니 중생들의 마음이 그렇게 이끌어서 분별심이 막 동할 때는 '어, 이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깐 거기서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믿고 놔야 될 텐데, 하늘이 무너진들 어떻고 땅이 꺼진들 어때!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죽기가 그렇게 원통해? "놔라! 놔라!" 해도 그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살지 못한다 이거지.

그거를 비유해서 한마디 하겠는데, 만약에 집안사람들이 심부름꾼을 두었다고 합시다. 여기 가게들 많이 하죠? 그러면 가게에서 심부름꾼을 두었는데 심부름을 시키려면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뭐뭐 뭐뭐 해 가지고 와!" 이렇게 해야만이 심부름꾼이 심부름을 해 올 텐데 그냥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알아서 해!" 그러면 뭐를 알아서 하라는지, 심부름을 영악하게 못한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운전수가 잘 끌고 다니고 잘 이끌어

☞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개별적인 주인공이 아니라 포괄적인 주인공이에요!

☞ 25면에서 계속

갈 수 있는 생활이 필요하다 이거지.

옛날에 그런 점이 있었어요. 노자는 영계를 다룰 때에 아주 영원한 친구로서 영계를 다뤘어. 죽은 세상의 사람들이나 산 세상의 마음들이나 모두 아주 그 영원한 친구로서 다루었으니까 둥글고 모가 나지 않고 못할 일이 없이 했다 이거야. 그러나 강태공은 명령해서 영계를 다뤘다 이거야. 그런데 명령해서 다루는 거는 언젠가는 적이 될 수도 있고 언젠가는 나한테서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명령해서 다루는 거는 영원치 못하다 이 소리야. 둥글지 못하다. 제갈공명은 촛불을 켜 놓고 영계를 다뤘다 이거야. 그러니까 꼭 바람을 청해도 올라가 빌어야만 되는 이치야. 그건 한계가 있지 않아? 그래서 촛불이 꺼지면 자기가 그냥 죽어 버리게끔 되는 거지. 어쩔 수가 없잖아. 그것도 사람의 마음이다 이거야.

사람이 촛불을 가지고 정해 놨으면 자기 인생이 그냥 촛불로다가 막 돌아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자처럼 그렇게 둥글게 악도 내가 부릴 수 있었다면, 아주 악한 강도라도 내가 잘해 주고 둘이 아니게 참 잘해 준다면, 또 강도가 가다가 나를 살려 줬다면 그 강도는 나한테 은인이라. 남들이 강도라고 하지만, 그리고 강도 행을 했지만 나한테는 바로 생명의 은인이라. 그러니까 남이 강도란다고 나도 강도라고 할 수는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강도의 마음이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되고 잘된 거를 알아. 은인을 알고 의리를 알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아니게 항상, 저쪽에서 악하게 나오더라도 부드럽게 말을 해 주고 주인공에다 맡겨 놓으면…. 주인공의 그 마음은 어떤 거냐? 이 전력과 같다 이거야, 광력과 같고. 그래 가지고 통신이 되게끔 돼 있어. 자력이라고 그랬거든. 자석은 한계가 있지만 자력은 한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마음을 좋게 이끌어 줄 수도 있고 아주 나쁘게 이끌어 줄 수도 있는 건 자기 마음대로 그 자력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 생각을 잘 내서 자력을 쓰면 아주 귀인이 되고 한생각을 잘못 내서 쓰면 악인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 악인의 인과로서, 또 선인의 인과로서, 그 인과가 돼서 업이 된 뭉치다 이거야, 이 몸뚱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을 낫게 하는 데는 그저 무조건 자기 지배인, 즉 말하자면 주인공 그 자체를 믿고 맡겨 놓는다. 주인공이라는 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의 근본과 마음을 낼 수 있는 분별과, 마음을 내면 육신이 움죽거리는 그 모든 그, 사람들이 서로가 독불장군이 없이 돌아가는 거. 공생 · 공용 · 공체 · 공식화 할 수 있는 이 세상, 이런 거를 더불어 같이 이익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낸다. 꿈을 꿔도 꿈을 잘못 꿨다 잘 꿨다 이런 거를 논의하지 말고, 이게 잘못될까 잘될까 생각을 하면 벌써 이게 잘못되게 나가는 수가 있어. 그리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잘못되는 거야. 그렇게 여기에 벌써 통신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이 그 마음 하나를, 남이 또 나쁘게 망하게 했다 해도 모든 거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 이거지. 내 탓으로 돌려라. 내 탓으로 돌리고 나로 인해서 생긴 거라고 믿을 때에 그 사람 마음도 아주 자비한 마음으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나를 대하게 된다. 남의 탓을 하고 남을 끝끝내 망하게 생각을 한다면 끝끝내 내 앞으로 돌아온다 이거야, 그게. 연관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내가 없더라도, 우리 꼬마 스님네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이 일체제불의 마음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여러분 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부처님은 계시거든. 왜냐하면 그 마음이기 때문이야. 한 찰나에 들고 난단 말이야.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대로 한 찰나에 여러분 그 주인, 마음 가운데 항상 같이 해 준다 이거야. 그러니 내가 있음으로써 모든 게 부딪치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가 부딪쳐? 그러니까 내 탓이지. 잘못했든 잘했든 내 탓이라. 모든 게 나의 탓이니까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모든 것을, 병 얘기를 하셨으니까, 병이 나으려면 내 탓으로 돌리면서 주인공에다 '주인공밖에 내 병을 고칠 수 없다!' 하고 맡겨 놓고 또 잘됐으면, 나았으면 '감사하다!' 하는 것도 거기에 감사해라 이거야. 모든 생활하는 것이 딴 사람이 생활합니까?

이거 한 가지 얘기해 드리죠. 여러분 몸뚱이 하나가 때로는 아내 노릇도 하고 때로는 남편 노릇도 하고, 금방 엄마 노릇 하고 아버지 노릇 하고, 금방금방이에요. 한 찰나에 그냥 엄마가 됐다가 금방 "여보!" 하면 부인이 됐다가 "아무개야!" 하면 며느리가 됐다가 "아무개야!" 하면 딸도 되고 "아무개 있어?" 하고 들어오면 친구가 되고…. 아니, 여러분의 이름이 엄마의 이름이 되고 또 형제의 이름이 되고 딸의 이름이 되고, 남녀를 막론해 놓고, 그렇다면 그 한 몸이, 한 사람이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부처님께서 한생각을 내서 문수도 해 놓고 보현도 해 놓고, 때에 따라선 동방에 아촉을 해 놓고 서방에는 아미타를 해 놓고 이 세상만사의 살아나가는 그 도리는 관세음이라고 이름을 해 놓고 또 지천국에 지장을 해 놓고, 이렇게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 자기가 살림살이하는 거와 똑같아. 때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됐다 때에 따라서는 또 며느리가 됐다가 아내가 됐다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냥 자꾸 돌아가는데, 여러분이 종교를 믿을 때 불교 믿는데 칠성에 갖다 놓고 빌고 그러면 여러분이 엄마 됐을 때에 갖다가 빌고 또 아내가 됐을 때 갖다 놓고 빌고, 따로따로 해 놓고, 그렇게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모두 갑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많은데 이름을 요기 써 붙이고 저기 써 붙이고 저기 써 붙이고 그러곤, 요기 갖다 빌고 저기 갖다 빌고 저기 갖다 빌면 그거, 부처가 있으면 웃을 겁니다, 기가 막혀서. 그러니 그렇게 찾지 말고 그걸 한데 합쳐서, 내 이름이 그렇게 많지만 나는 하나다 이거야. 그 하나도 그렇게 이름이 많이 화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바로 나조차도 없구나. 이 도리를 알아야지!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없는 게 부처니까 말이야.

그러니 오늘 병이 어떡하면 낫느냐고 그러는데 아니, 자기네들 속에서 나오는 거 자기네들이 해결하라고 딱 맡기면, 자기네들이 '아, 이거 맡기는 놈이나 나 지금 하는 놈이나 다 같은 나구나.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맡기는 놈 죽인다면…. 바로 이 맡기는 놈이 바로 내 몸뚱이로구나.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죽이는 법은 없거든. 여러분이 자기 죽이려고 하는 분 없죠? 자기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분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이 진짜, 자기 주인공이라는 것은 삼합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고 우주의 모든 것이 근본은 바로 같이 직결돼 있으며 이 세상의 모든 살림살이가 이 전기 가설돼 있듯이 모두가 가설이 돼 있다 이거야. 그러니 아들이 나쁘든 며느리가 나쁘든, 또 손자가 나쁘든 남편이 나쁘든 부인이 나쁘든 간에 주인공에 맡기고 부드럽게 말해 줘라 이거야. 그래야 이탈이 안 되는 거다 이거지. 모두가 부드럽지 못하고 조금만 잘못했다 하면 그냥 이를 악물고 "이놈의 새끼, 어디 갔다 들어왔어? 너 어디서 자고 왔어?" 뭐 어쩌고 어쩌고…. 아이, 그러면 따뜻한 보금자리에 들어가고 싶지 아니, 그런 데로 들어가고 싶어요? 여기는 특히 한국보다도 더해요. 아침에 나간 사람이 저녁에 들어오고 저녁에 나간 사람이 아침에 들어오니까. 자식들하고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 저 냉장고에다가요, 메모지를 해서 딱 붙이고 요 입술을 일부러라도 발라서 거기다가 키스를 해 놓고 "아무개야! 난 너 사랑해!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니? 너희들도 이해해 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넣어 놨으니 꺼내 먹어, 엄마 올 때까지." 아, 요렇게 해 놓고, 또 남편한테도 하는 게 있잖아요? 또 남편은 부인한테 하는 게 있고 자식들한테 하는 게 있다 이거야. 메모지에 몇 자만 쓰면 모든 게 이탈이 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고 마음의 고독이 없어지고 그럴 텐데 아, 이거는 그냥, 너 떼먹고 나 떼먹었느니 하곤 그저 자기 할 거 하곤 너 언제 봤더냐 하고 그냥 달아나가고 그러니 아니, 이탈이 안 돼? 마약이나 또는 이탈이 돼 가지고 무슨 도둑, 깡패 이런 걸로 번진다 이거야. 왜? 고독하니까. 배고프니까.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둑에 요만한 구멍이 뚫어졌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같죠? 그렇지만 그게 쪼끔쪼끔 나가다 보면 둑이 그냥 다 무너져 버려. 그 뜻을 아시라 이겁니다.

불교란 '불'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요, 애고 어른이고 이렇게 서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니 가톨릭교니 믿는 사람들도 다,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게 없어요. 케네디 대통령 묘지에도 가 보니까 봉화가 올라가고 있더군요. 그 불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야. 그런데 모두 꼬리표들 하나씩 붙여 놓고 '내 거 네 거' 하고 싸우거든, 요만한 항아리 속에서. 지구 속인데 항아리라고 합시다. 요만한 항아리 속에서 내 자리네 자리 하고 싸워. 허 참! 아니, 그게 될 법이나 한 얘기야? 그뿐인가, 또? 우리 몸속에서도 지배인이 잘 리드해서 이끌어 가면 될 텐데, 그리고 자기 마음이, 지배인 마음이 이끌어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자제해서 이끌어 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거기서 분란이 일어난단 말이야. 거기도 네 공장 내 공장, 너 나 하고 싸우니까 병이 안 나? 울그락불그락하고. 지금 살아나가면서 마음이 그렇게 둘 셋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지배인 마음이 그런데 아니, 그게 잘될 것 같아요, 회사가? 허허허….

이 체가 없는 마음은 아주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거든.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만 개도 되고 10억도 되고, 한생각이. 10억이라고 한다면 10억 속에 그 하나가, 하나의 생각이 천만도 되고 만만도 되니까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진짜로 정말 그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돌아가는 거를…, 보고 듣고 가고 오고 생각하고 이러는 것도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먹는 것까지도 고정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합해서 주인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주인공이 아니라 포괄적인 주인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주인공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자부처의 근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진짜 믿고 거기에 맡겨 놓으면 그 주인공 자체가 그대로 그냥 마음에서 누진으로 해서 그냥 다 사대로 통신이 돼 가지고 그 공장에 '이러이러하고 잘못된 게 있으니까 고쳐!' 이렇게 되거든.

내가 틀리면 항의들 하세요. 토론하는 날이니까요. 뭐 나도 잘못하는 게 있지만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오장육부가 있는 내 몸뚱이가 있음으로써 바로 이 세상이 있는 거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로부터예요. 나부터 믿고 나부터 발견하고, 발견을 했으면 바로 운전을 해서 생활을 자재로이 해 나갈 수 있는 둘 아닌 도리를 또 배워야 하고, 둘 아니게 나툼을 또 배워야 하고, 이렇게 해서 전진해 나간다면 우리는 전부 앉아서 구만 리, 아니 앉아서 우주 탐험을 다 하고도 남음이 있으니 그 또한 어디냐 이거야. 또 보기만 해도 도가 아니랬으니, 가고 옴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라면 전부 그게 어디냐 이거죠. 또 남의 마음을 전체 아니 그게 어디냐. 과거에 살던 내 모습이나 과거에 살던 사람들의 그 과거를 모두 알고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현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통신을 할 수가 있으니, 새 한 마리도 풀 한 포기도 같이 말을 할 수가 있으니, 말을 하지 않으면서 말을 할 수가 있으니 그게 무심 법계의 도리다 이거야.

(다음 호에 계속)

내 탓으로 돌리고 나로 인해서 생긴 거라고 믿을 때에
그 사람 마음도 아주 자비한 마음으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나를 대하게 됩니다.

※위 법문은 1990년 12월 7일 뉴욕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물녘 벌판에 앉은 눈사람처럼



맹난자
수필가

겨울 해가 부쩍 짧아졌다. 남은 달력 한 장에서 원효 스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년년이이하여 잠도사문(年年移移 暫到死門)이니라"

해(1년)와 해가 옮기고 옮겨서 잠깐 죽음의 문에 다다름이니 급하지 아니한가. 요지는 공부하라는 말씀이다. 〈발심수행장〉에서 나는 이 대목을 좋아했다. 그동안은 원거리에 있는 죽음이니 여유롭게 운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바로 코앞이다. 눈앞에 대상은 흐릿하고 귀와 눈도 멀어진 요즘, 내 몸은 저물녘 벌판에 앉은 눈사람처럼 적막하다. 적막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해체되고 싶다.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지금, 어떤 날은 들판에서 시신이 풍화되는 과정을 내 몸에 옮겨보곤 한다. 한줌 흙으로 동화(同化)되는 과정을 따라가며 아무것도 아닌 '나 없음'의 해방감을 슬쩍 맛보기도 한다.

"끌어 모아서 얽어매면 한 칸의 초가집. 풀어헤치면 본래의 들판인 것을!" 누구의 시구(詩句)였더라, 눈사람 또한 머잖아 본래의 들판으로 돌아가리라.

한나절 독서마저도 자주 끊겨, 그럴 때면 TV의 리모컨을 찾게 된다. 연일 터져 나오는 함성, 100만 촛불의 행진. 실망스럽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을 그는 최순실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여러 차례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변명 뿐, 진정한 사과는 없었다. 시간을 끌며 벗어날 수 있는 꼼수를 계산하는 것 같이 보인다. 촛불은 횃불이 되었고 232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광장으로 달려 나왔다. 그들은 '퇴진'을 외치더니 '하야'에서 이제는 '구속'을 외치고 있다. 관저에서 덩그러니 혼자 이 노릇을 어떻게 하나.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다. 12월 9일이었다. 그 전날 밤은 밤새 비가 내렸다. 구슬프게 내렸다. 피눈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외로운 대통령. 자존심 때문에 사과할 수 없었나? 어린 생명이 수장(水葬)될 때 왜 맨발로 달려 갈 수 없었나? 무엇이 그를 가로 막았나?

대통령은 당선한 지 얼마 안 되어 중국을 방문했는데 청화대학교 강당에서 중국 고전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렸고 직접 에세이를 쓰면서 마음을 다스렸노라고 말했다. 그의 수필에는 이런 대목도 나온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헤쳐가면서 제가 깨우친 게 있다면 인생이란 살고 가면 결국 한 줌의 흙이 되고, 백년을 살다 가도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결국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 줌 흙'과 '한 점(點)'에 지나지 않는 존재. 존재란 과연 무엇인가. 비실체적인 몇 가지 요소들이 모여 일시적인 나를 이루고 있지만 무아적(無我的) 존재이다. 어디에 내가 있는가? 자만과 나르시스 그것은 신기루와도 같은 환(幻)일 뿐이다.

TV화면에서 대통령 얼굴의 멍 자국을 보며 30여 년 전, 정수직업훈련원 수료식에서 격려사를 하던 젊고 가녀린 퍼스트레이디의 모습이 눈앞을 스쳐갔다. 무상한 세월이 고약하다. 무상(無常)은 공(空)이다.

만물의 본질은 공(空)이며 형상으로 나타난 '나'는 연기의 법칙에 의존한다. 우리는 모두 연기적 존재다. 따라서 주변의 인간관계나 내 앞에 마주선 상대방이 더없이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나이를 더해서 깨달은 건 인류의 문제는 물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나는 왜 사람들을 많이 사랑해 주지 못했을까. 마음뿐 사랑하는 방법에 서툴렀다. 작별 앞에 남겨진 후회가 많다. 내 한 몸 떠나면 한 물건도 소용없다. 물질이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 안고 팽목항에 달려만 갔어도…. 시간을 놓치지만 않았어도…. 자비는 생명에 대한 헌신이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비의 실천, 일심의 정화(淨化)가 이 눈사람에게도 남겨진 숙제다. 판결 앞에 선 또 한 분의 눈사람도 그런 점을 깨달았으면 한다. 찬바람 속에 날이 저물고 있다.

'불교 세시풍속' 개발이 필요하다



노덕현
취재부기자

12월 21일 '동지'(冬至)를 맞아 불교계가 동지 팥죽나눔 축제를 열었다. 서울 인사동, 노량진, 시청, 탑골공원, 종각, 광화문 등 서울 6곳을 비롯해 전국 112개 장소에서 동시에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29개 종단이 참여해 17만여 그릇의 팥죽을 전달했다. 특히 인사동 행사장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각 종단 대표 스님들이 나서 시민들에게 동지의 의미를 담은 리플렛과 팥죽 2만 그릇을 전달했다.

24절기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동지'는 예로부터 선조들이 작은 설로 여길 정도로 중요한 절기였다. 그 속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문화가 녹아 있기 때문이었다. 동지에는 음기가 가장 강하고 귀신이 몰려든다는 속설에 고사를 지내고 팥죽을 나눠먹는 관습이 이어졌다. 이는 새해를 앞두고 묵은 기운을 떨치고 새 희망을 만들자는 의미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나눔 문화를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정신문화는 동지 외 정초, 입춘, 백중 등 불교와 관련된 절기에도 나타난다. 정초에는 지신밟기를 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을 키운다. 또 오곡밥을 먹으며 만중생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음을 알고 새로운 원을 세우기도 한다.

입춘은 아직 추위가 남아 있지만 따뜻함이 온다는 것을 일러주는 절기로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정진의 마음을 새롭게 다진다.

산업화 과정에서 세시풍속이 사라지며 그 속에 담긴 정신도 잠시 잊혔지만 불교계에서는 맥을 이어왔다. 그러던 세시풍속이 이제 불교계를 시작으로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각 사찰 스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절기, 그리고 명절마다 사찰을 찾거나 행사 참여를 문의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분당의 한 사찰 주지 스님은 평소 600명 수준인 주말법회 참여자가 동지나 절기 때에는 1000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털어놨다. 한 스님은 특히 대보름, 동지 등에 음식을 먹기 위해 불자가 아닌 이들, 특히 직장인들이 사찰을 많이 찾는다고 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미 설과 추석과 같은 명절에 입증되고 있다. 조계사와 봉은사를 비롯한 서울지역 도심 사찰에서 진행되는 차례에 참가하는 인원은 매년 7% 이상씩 증가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올해에는 대구 동화사 등 지역사찰에서도 명절 차례를 시작하기도 했다.

이제 불교계는 그동안 이어온 민족문화를 연구, 발전시키는 과제가 남았다. 기존의 획일적 의식에서 벗어나 세시의 내용을 어떻게 채우고 알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현대인들의 삶에 불교적 방식의 재충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오늘날에 맞도록 재편, 전승하는 작업이 필수적인 것이다.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삶의 기반이 달라진 현대에 적합한 세시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데 불교계가 기여해야 한다.

따라서 각 사찰의 종교적,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살려 새로운 세시풍속 활용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는 방안을 비롯하여 지역특성을 살리는 가운데 주민의 참여를 이끄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희미한 불교관련 세시풍속이 지닌 정체성을 정립하는 과제도 새롭게 부각된다. 점차 대형화·장기화되는 의식이 많아지면 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도 커질 우려가 있다.

그 무엇보다 다양한 명절과 절기의 문화 속에는 자기중심의 마음을 지혜와 자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내재됐음을 주지시키고 그것이 불교계가 이어온 세시풍속의 본질임을 일깨우는 작업이 강조돼야 한다.

불교계 최초로 각 종단이 참여한 동지 팥죽나눔 축제에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했다고 한다. 종단협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긴급한 예산 요청에도 그 중요성에 높은 호응을 보였다니 지속적인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세시풍속을 개발하는 과정은 템플스테이, 사찰음식에 이어 불교문화와 한국전통을 알리는 또 다른 작업이 될 것이다.

이제 세시마다 진행되는 불교계의 활약을 눈여겨보자.

社說

'無종교인' 급증이 던지는 메시지

불교 신자가 762만명이라는 통계청의 종교인구 조사 결과가 나와 불교계 안팎에 충격을 주고 있다. 2000만 불자를 외치던 불교계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전수조사가 진행된 1995년 1015만명, 2005년 1058만명과 달리 표본조사 후 762만명으로 무려 300만명 가까이 신자 수가 줄어 든 것이다.

하지만 줄어든 불자 수에 주목하지 말고 차분히 불교 현황을 살펴보자. 이미 탈종교화, 탈제도권화 현상은 공고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활동 참여가 5년 간 3.1% 감소했다는 통계와 종교가 없는 국민이 10년만에 12.2% 증가한 56.1%를 기록한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이런 와중에 개신교는 신자수가 늘었다. 사회양극화 과정 속에 조직적 보호를 받으려는 일반인들의 발걸음이 개신교로 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상은 어렵다. 먹고살기 팍팍해진 지금,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종교의 필요를 느끼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찰이나 성당 등 기성 제도권화된 종교에는 열성적이지 않다. 어쩌다 오는 신자들도 이들 종교계 내 인적네트워크 등을 활용코자 오는 것이다.

불교는 그동안 참선, 명상 등 자기극복 수단 제공에는 성과를 보였지만 사회적 네트워크 제공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제는 자기극복 수단 외에도 신도조직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다듬어 나가야 한다. 사회양극화 현상 속에 소외받는 이들을 보살피고, 많은 시민들이 불교의 품 안에서 다시금 힘을 찾을 수 있도록 불교를 혁신해야 한다. 이제 불교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 당장 불자들이 함께 불교 혁신에 나서야 한다.

내년 불교계엔 갈등보단 희망만을

시국이 어수선하니 한해가 정리되기보다는 연장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연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과 청문회 소식으로 떠들썩하다. 몸과 마음이 모두 얼어버린 것 같다.

한 해 불교계 뉴스도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소식보다는 뒷맛이 씁쓸한 소식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의 경우 직선제 찬성이 80.5%에 달했지만 지난 11월 열린 207차 중앙종회에서는 종법 개정 등 절차상 난맥으로 차기 회의 이월됐다.

출가자 감소로 인해 올해 조계종 교육원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된 출가 진흥사업은 고무적인 일이었다. 그럼에도 올해 출가자 수는 150명대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비구니 스님 출가자의 감소폭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안으로 나왔던 은퇴자 출가는 제도화에 실패했다.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며, 태고종 내부 종단 갈등의 불씨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올해 본지의 마지막 헤드라인은 "한국불교 인구가 급감하고 무종교인구 대폭 늘었다"는 것이었다. 2015 인구총조사의 표본조사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탈종교화'가 지난 10년 사이에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은 유의미한 값이다. 본지 역시 '탈종교화·다불교' 현상을 창간특집 기획으로 기사화하며, 기성 제도권 종단들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내년 한국불교가 해야 할 일은 정말 많고 분명하다. 외부로는 팽배해진 탈종교화 현상을 어떻게 감당해 내며 포교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내부로는 청정성 확보와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갈등보단 희망의 소식으로 지면을 채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찾아오듯이.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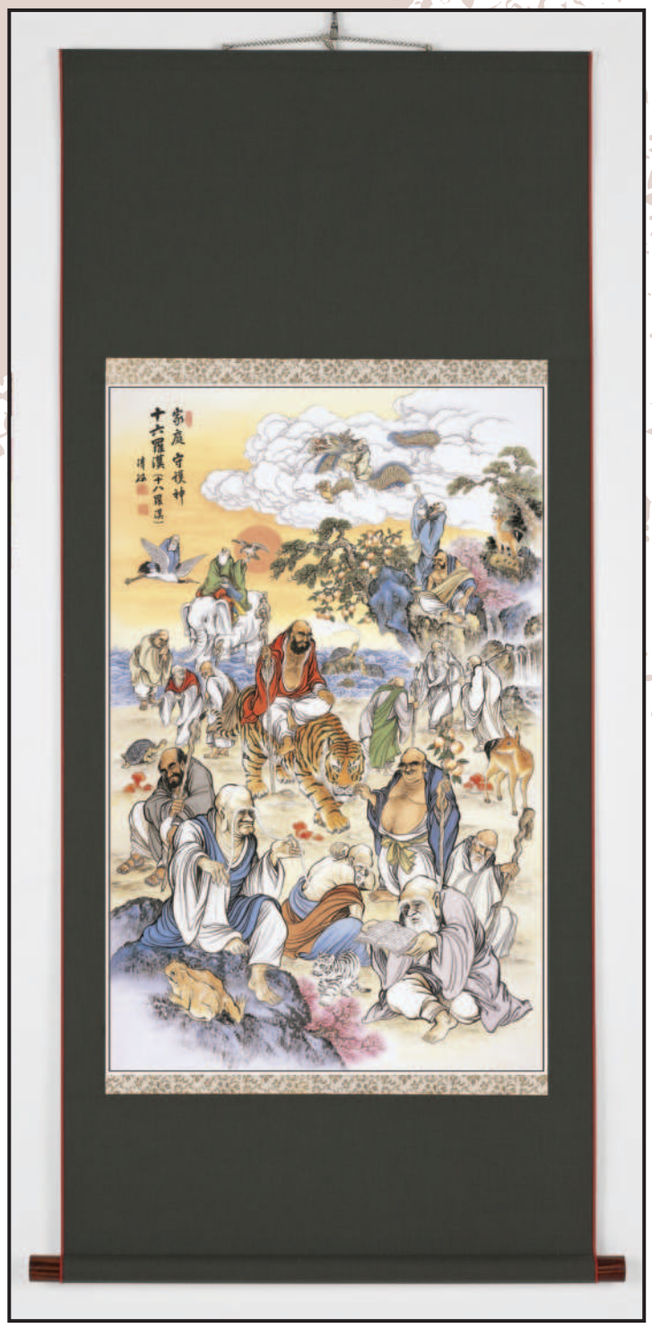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두십시오"

십장생이 들어간 16나한도(18나한)포대화상도, 달마도

이상 작품들은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 줄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 이제까지 불교카렌다를 통해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스님과 사찰 풍속도를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께서 이번에 직접 세가지 작품을 족자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길이 : 120Cm x 폭 54Cm • 가격 : 각 100.000원

16나한도를 구입하시는 분에겐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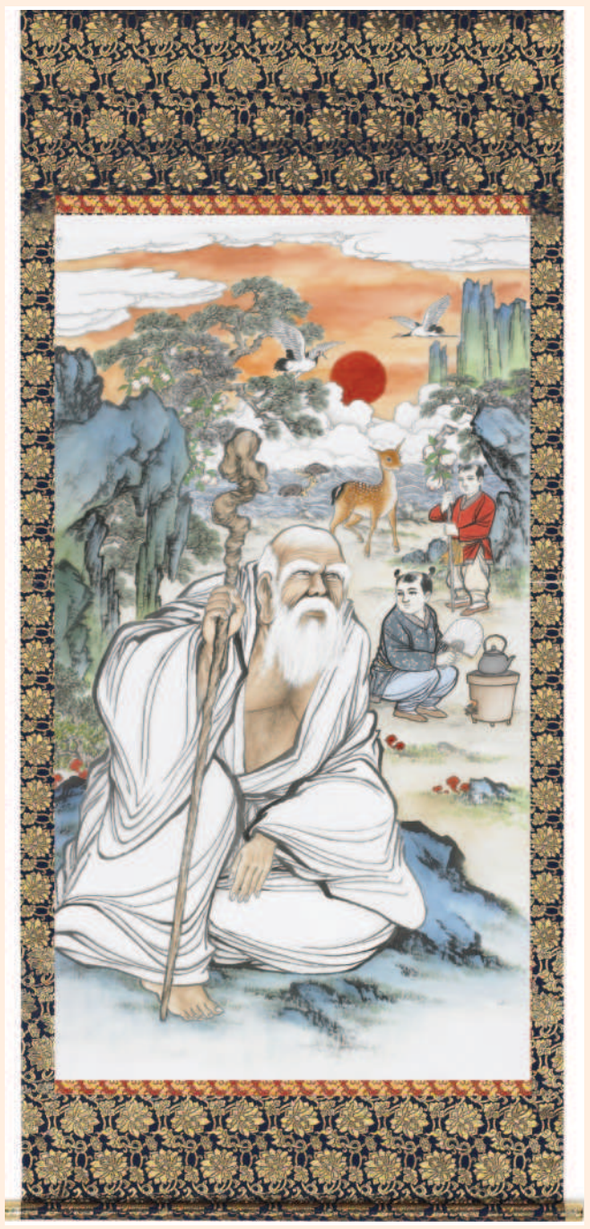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입니다. 나한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자 이시다.
이들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현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 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한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분 한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영원한 수호신으로 모셔 주기를 바랍니다.

사찰용 십장생 수호신 – 산신각, 칠성각, 독성각

• 길이 : 180Cm x 폭 80Cm
• 가격 : ~~각 380.000~~ 각 280,000원







그림마다 십장생을 배경으로 하였으며 칠성각은 해 대신 무지개를 넣어 제작 하였으며 그림마다 천도 복숭아가 들어가 있고 **전통불교 황금족자**로 제작하였습니다.

※ 본 작품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표절 및 복사행위를 금합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